



2

주체 91 (2002)

문학예술출판사



나의 2월 .....	38
방목길 백오십리 .....	38
작가들이여! 라남의 봉화따라 심장에 불을 달자.....	39
선군혁명문학령도의 성스러운 자욱을 더듬어.....	41
백두산에서 .....	45
2월은 봄, 봄의 고향... .....	46
경애하는 <b>김정일</b> 장군님의 성품과 취미 .....	48
삼지연에서 .....	49
살아 있는 인간의 초상 .....	50
시대와 함께 숨 쉬는 작가가 되고저 .....	53
불 타는 마음.....	54
태양에 드리는 기도 .....	55
인간애가 불 타는 위인찬가 .....	61
밀림(외 1 편).....	62
아들 .....	62
주체 90(2001)년 조선문학축전상 당선작품 .....	62
선군혁명시가문학에 내려치는 웃음의 정서 .....	63
급속히 발전하게 될 생명과학.....	67
설천봉풍경 .....	68
5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될 나노메터기술 .....	80

## 2월 16일

박호범

백두산은 날을 골라  
반만년의 그중에서 그 하루  
2월 16일을 골랐다  
우리 장군님 탄생하신

봄맞이 태양맞이  
백두산은 두팔 벌려  
안아 올렸다  
그 이름도 찬란한 백두광명성

그이를 떠나서 조선을 말하지 말라  
60성상 그속에 조선이 있었다  
백두산빨찌산의 아들  
백두산장군님의 품에

걸음걸음 그이 온몸에 넘치는 정기는  
청청푸른 백두산의 정기  
그이 옷자락에서 일어 번지는 바람은  
백두산바람

당도 백두산의 당으로 높이 세웠고  
군대도 백두산의 강군으로 키워냈고  
인민도 백두산의 동지로 사랑하시는  
민족의 아버지 **김정일**장군

그이 한번 거인의 손을 높이 드시면  
이 땅에 강성대국의 봄바람이 일고  
그이 한번 두눈에 백두의 번개를 담으면

원썩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이 한번 걸음을 옮기면 세계가 따라서고  
한번 숨을 쉬어도 세계를 호흡하는

**김정일!** 그이를 떠나서는  
오늘의 세계를 말할수 없는

아, 그 절대의 권위  
아, 그 절대의 존엄  
온 세상이 21세기의 태양으로 받드는  
그이는 21세기의 령술자!

살아 한생 모시여 영광 끝없고  
받들어 이 조선의 행복 끝없는

**김정일**장군님의 시대에  
**김정일**장군님의 전사 내가 사나니

봄을 불러라  
봄을 불러라  
끝없이 아름다운 2월의 봄  
그 봄을 노래하며 하늘에서 봄눈이 내린다  
그 봄을 축원하며 송이송이 눈꽃이 내린다

아, 2월 16일  
그날이 있어  
오, 그날이 있어  
아느냐, 조선이 있다!  
아느냐, 세계가 있다!

## 동행자들은 말한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곡절 많은 인생의 먼 길을 걸어 오면서 꺾어 지고 무디고 버리었던 붓대를 다시 쥐여 주시고 시대와 역사를 추동하고 우리 당의 위업을 결사 받들어 나가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키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삶의 품에 안긴 우리 작가들의 가슴가슴에서 뿜아 처럼 끓어 솟아 2월의 하늘가에 진하게 새겨 가는 다함없는 경모와 매혹, 축원의 메아리 우리 함께 들어보자!

《눈속에서도 세상만물을 꽃 피우는 따사로운 2월의 봄빛, 자연의 봄만이 아닌 이 봄이 있어 이 땅의 축복 받은 인민들은 영원한 행복속에 살고 있는것이다. ...

세계의 이름난 문호들가운데는 나처럼 로년기까지 붓을 놓지 않은 작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작가들의 마지막운명은 폐외없이 불우하였으며 그가 한생 써놓은 작품들 또한 그 시대 인간들의 생활을 그리는데 그쳤을뿐이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다른 나라작가들의 비극적인 말로이며 그가 타고 난 <운명>이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희세의 위대한 령도자이실뿐만아니라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대거장이시며 봄의 화신, 만민의 태양이시다.》

### 리기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하고 영명하신 령도, 그이의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품속에서 지난 날에는 낡고 고식적인 창작적올타리를 벗어 나지 못하고 헤매이던 수많은 작가들이 우리 인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혁명적인 작가로 자라났으며 수많은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 이름 없던 작가들이 오늘은 우리 당의 당당한 동행자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그 품속에서 내가 걸어 온 길은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끝 없는 영예와 행복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다.

그이께서는 미숙하고 혁명화되지 못한 저를 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것보다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여 당적이며 혁명적인 작가로, 당의 참된 동행자로 키워 주시였으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최고의 영예상인 <**김일성**>계관인칭호와 작가로서의 첫 로력영웅칭호를 수여 해주시는 크나큰 영예를 안겨 주시였다.

<**김일성**>과 영웅칭호를 받으셔야 할분은 바로 다른 아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우리들에게 안겨 주신 그 모든 영예를 그이께 드려도 우리는 그이께서 이 땅우에 이룩하신 그 불멸의 업적을 다 칭송할수 없다.》

### 백인준

《우리 문학은 예술의 천재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명한 령도에 의해서 위대한 주체시대의 새로운 혁명문학으로 휘황히 솟아 올랐다.

이 과정에 나 자신도 진흙물의 소용돌이속에서 솟아 올라 당당히 혁명문학을 하는 한 작가로서 자기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다.

미숙한 한 작가에게 소생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하여 작품의 종자를 주시고 작품의 골격과 인간관계의 설정을 몸소 가르쳐 주시고 지어는 작품의 화폭으로 될 력사적인 시대에 대한 지식과 그 시대가 가지는 특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의 육친적인 지도를 받는 과정은 위대한 예술적환희를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실로 온 우주를 새로이 감득하게 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그 천재적인 가르치심과 끊임 없는 육친적지도가 없었다면 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시대의 참된 작가로 재생할수 없었을것이다.

이 목메이는 고마움에 대하여 내가 무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한 작가를 그토록 아끼시여 그처럼 자애로운 손길로 이끌어 주시며 정력과 의지를 주시고 억센 날개를 달아 주시여 오늘과 같은 소생의 환희를 느끼게 하신 경애하는 그이의 그 은덕의 크기를 내 과연 무엇에 비겨 표현할수 있단 말인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녕 위대한 시대에 위대한 문학을 안아 올리고 계신다.

나는 넓은 대지를 바라보듯 진통속에서 태어난 나의 탄탄한 앞길을 벅찬 가슴으로 바라보며 때없이 눈물을 머금곤 한다. 아, 이 광활한 길을 어떻게 걸어 가야 하는가, 언제나 나의 가슴속에 휘황히 비쳐드는 그 찬란하고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 경애하는 그이를 어떻게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어야 내 일생 한이 없도록 잘 받들어 모실수 있으며 우리의 새로운 혁명문학에 나의 몫을 다 할수 있겠는가! 나의 절절한 마음속에는

늘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로 불 붙고 있을뿐이다.》

## 전세봉

《태고의 인간들이 불을 발견한 그날도 외관상은 평범한 날일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날이 있는 다음부터 인간은 자기의 생활에서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내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었던 그날은 이 땅위에 레사롭게 흘러 간 평범한 날들중의 하루였다. 하지만 그날은 작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나의 성장발전에서 인간이 불을 발견한것과 같은 그러한 거대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온 날이었다.

내가 쓴 미흡한 작품을 친히 보아 주시고 작품을 살릴 방도며 우리 주체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던 그날의 영명하신 그이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캄캄한 새벽하늘에 찬란히 솟아올라 광휘로운 빛발로 온 누리를 밝혀 주는 향도의 태양이시였다.

찬란한 향도의 태양 **김정일** 동지.

그 밝고 눈 부신 빛발로 우리 주체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언제나 환히 밝혀 주시고 그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사랑의 불씨를 심으시여 심장을 덥혀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내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소리높이 웨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향도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작가로 사는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행복을 나는 모른다고...

우리 갈 길 제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우리의 마음 든든하거니, 불을 발견한 인간이 무엇인들 못해 내랴.

우리의 향도의 태양은 온 누리를 찬란히 비치 고있거니, 심장속에 충성으로 불 타는 한점의 불 씨만 있다면 우리는 온 누리를 충성의 불길로 덮을 수 있다.》

## 석윤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을 당과 수령을 모시고 따르는 주체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영원한 동행자, 그 어떤 역풍과 광풍이 휘몰아 쳐도 일편단심 몸과 마음 다 바쳐 우리 당의 위업을 받들어 나가는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불러 주심으로써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친근하고도 미더운 동지로 내세워 주시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였다.

이 위대한 사랑, 위대한 믿음은 오직 우리 작

가들을 제일로 믿고 사랑하시며 아끼고 내세워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베풀실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며 크나큰 믿음인것이다.

돌이켜 보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문학을 령도해 오신 력사는 우리 작가들을 혁명적 문학작품창작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고 조국과 혁명을 위해 복무하는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키워 주시기 위해 뜨거운 사랑과 정력적인 로고를 바쳐 오신 나날이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사랑하고 애독하는 수많은 문학작품들, 비록 그 갈피마다에는 찍여 있지 않으나 종자선택으로부터 창작과정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빛나는 예지와 뜨거운 사랑, 정력적인 로고가 깃들어 있다.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를 떠나서 어찌 오늘 우리 주체문학의 자랑스런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있으며 우리 작가들이 오른 최상의 높이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으랴,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그이가 없이는, 그이의 품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들이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이것은 인간의 지위와 역할의 최고의 절정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바로 이 최고의 절정에 자신께서 키우신 우리 작가들을 세워 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걸어 갈것이며 그 길에서 그이와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 할것이다.》

## 김병훈

《칠칠야밤 같은 나의 눈앞에는 장엄한 태양이 떠올라 그 찬란한 빛발로 온 누리를 밝히며 나를 포근히 감싸준다.

그 태양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이 몸을 소생시켜 주시고 **김일성** 주의문학대오에서 계속 꽃을 피워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은인이시고 스승이시며 나의 삶의 앞길을 밝혀 주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김정일** 동지!

그처럼 밝고 싶은 그이의 존함을 목 메여 부를 뿐 그 태양과 같으신, 하늘과 같으신 존귀하신 영상을 그려 볼수조차 없는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아, 나에게 만약 번개의 섬광과 같은 순간의 광명이라도 온다면 그토록 밝고 싶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러 뵈올수 있으면만...그래서 빛나는 태양의 그 숭엄한 영상을 머리속에 영원히 생생히 모시고 눈을 감았으면 원이 없을것이다.》

## 박대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러 높이 모시고 그이의 이끄심을 따르며 우리 조선의 아동문학은 참답고 보람차고 긍지 높은 혁명적문학으로 자라고 꽃 피었으며 무르익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이날 이때까지 그이께서 아동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밤, 이른 새벽까지 그리도 마음 쓰시며 손 잡아 이끌어 주시며 로고를 아끼지 않으신 나날들이 가슴 사무치게 안겨 온다.

우리 혁명의 후비대이며 내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속에서 우리의 아동문학이 발전하고 아동문학작가들이 자라났으며 오늘의 이 행복이 꽃 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아동문학은 혁명의 후대들의 장래문제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그 혁명적사명을 깨우쳐 주시여 영광으로 빛나는 한길을 걸어 온 우리 아동문학.

걸어 온 길도 영광으로 빛나지만 걸어 갈 앞길은 또 얼마나 찬란한가.

혁명의 대를 이어 갈 미래들의 깨끗한 가슴속에 충성의 꽃을 붉게 피워 주는 우리 아동문학 작가들의 사업은 얼마나 고귀하고 성스러운것인가.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참말로 그이는 혁명의 새 세대들을 참답게 키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위대한 태양이시다.》

## 강효순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두고 은혜롭다고 말해 오고 있다. 그것은 태양이 세상만물에 생의 빛을 주기때문이다. 만약 저 하늘에 태양이 없다면 지구위의 모든 생물체는 존재하지 못할것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크나큰 은혜와 은덕을 칭송할 때 그것을 하늘의 태양에 비기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도 시들어져 가는 꽃을 다시 소생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들어 저 가는 꽃도 다시 피여 나 영원한 향기를 풍기게 하는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한한 희망을 꽃 피워 주시고 미래를 안겨 주시며 힘과 열정을 부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정 깊은 사랑의 빛발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과 은정의 빛발은 저에게 있어 꺼질줄 모르는 신념을 주고 패기와 정열을 소생시켜 주는 찬란한 광명인것이다. 세상만물이 태양의 빛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그 찬란하고 은혜로운 사랑의 빛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삶의 보람이나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저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정의 빛발을 영원히 간직하고 천대를 두고 만대를 두고 그 이야기 전설같이 전하면서 대동강의 푸른 물을 잉크 삼아 온 세상이 부러워 하도록 우리 꽃봉오리들의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쓰고 또 쓰겠다.》

## 윤복진

《우리모두의 참된 삶의 은인이시며 영원한 보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하기를 흔히 한생을 살아가는데는 한두사람의 은인이나 귀인을 만나게 된다고 했다.

깊은 물에 빠져 헤여 나올수 없을 때 누가 뛰어들어 건져 주었다거나 심한 병으로 신음할 때 명의가 명약을 써서 낫게 해주었다면 그들은 다 은인이며 귀인일것이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머리카락을 베여 신을 삼아 드려도 아까울것이 없을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생에 맞이한 은인은 혈육도 친우도 그 어떤 명의도 어찌할수 없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구원해 주신분, 딛고 사는 땅, 이고 사는 하늘과도 같고 우주의 영원한 빛과도 같은, 그 품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 갈수 없는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다!》

## 오영재

《시인이 있어 시가 씌여 지는것만이 아니다.

이 땅위에 크나큰 시의 세계를 펼쳐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가 계시여 시인들이 태어나고 시와 노래가 나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나에게 피를 주시고 숨결을 주시었다. 나의 운명도 미래도 맡아 안아 주시고 비바람이 들쭉우면 그것을 막아 주시고 죽음에 닥쳐오면 그것까지도 막아 주시었다. 그리고 나의 생명과도 같은 시를 주시었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 변함 없는 의리로 전사들을 뜨겁게 안아 주시고 보살피 주시는 태양과도 같으신 경애하는 그이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시인으로서 나의 시가 있고 인간으로서 나의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는것이다.

태양의 빛발을 받아 영생의 꽃으로 피여 나 새 삶을 누리는 복 받은 사람이 이 땅에 피는 꽃의 아름다움과 그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게 한 그 빛발의 따사로움을 노래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한스러운것은 그이의 따사로운 사랑의 진가를 노래하기에는 나의 붓이 너무나도 무딘것이다.

하지만 내 한생을 붓을 버리면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 펼치신 그 빛발의 따사로움을 노래하고 또 노래할것이다.》

## 김 철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랑의 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때문에 나는 불구자의 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자주적인간이 되었다.

나에게는 오늘 조선로동당원이라는 빛나는 정치적생명이 있고 사회적직분인 작가라는 명예가 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돌격대원이라는 긍지, 조선인민군의 병사로 된 영예도 있다. 그리고 가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웃음도 있고 노래도 있는 인간이 갖추고 있어야 할 삶의 고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든것을 그 누구보다 더 값높이 안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성한 몸으로 걸어 다닌다 한들 이보다 더 큰 영광의 봉우리에 오를수 있으며 백번 다시 태어난다 한들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었으랴!

불구로 된 인간을 이처럼 가장 빛나는 전사의 영예와 행복을 지닐수 있도록 키워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는 세기를 넘어 길이 전해 질것이다.

믿음은 충신을 낳고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고 한다.

세월의 눈비에도 씻기지 않고 그 어떤 불속에서도 녹지 않는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만대에 전해 갈것이다.》

## 김시권

# 고향집의 배낭

## 홍문수

방금 벗어 놓으신듯  
백두밀영고향집 정갈한 벽에  
나란히 걸려 있는 두개의 배낭

지금도 항일전의 화약내가 풍기누나  
준엄했던 30년대의 불길속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간직되어 있던  
위대한 수령님의 배낭에선

지금도 백두의 눈비에 젖어 있구나  
사령관동지께 바치시는  
티없는 충성심이  
가득 차 한량 없던 어머니의 배낭은

조선혁명의 전부가  
두 배낭에 있었거니  
이집 프락에서 결음마 키우시던 그 시절  
우리 장군님의 예지로운 시선이  
어찌 그것을 스쳐 지났으랴

한몸에 책임지시기엔  
실린 짐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운것이었으나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수령님과 어머니의 배낭을 합치여  
자신께서 지니실 혁명의 려장으로 간직하시고  
계승의 길위에 큰 자욱 내짚으시였나니

그때부터 장장 긴 세월  
헤쳐 오신 길은 험난하고 멀었어도  
순간도 그짐 내려 놓으신적 없이  
그 무게 조금도 더심이 없이  
마음속에 안고 오신  
우리 장군님의 혁명의 려장

그 려장속에 간직하신 높은 뜻을  
이 강산에 활짝 꽃 피우시려  
아버이장군님  
선군령도의 먼먼길을 헤쳐 가시고  
쪽잠에 드신채로  
새날을 맞으시곤 하는게 아니던가

변함 없으리 절대로 영원히  
설사 우리앞에  
하늘땅이 바뀌는 변화가 생긴다 해도  
우리 장군님의 혁명의 려장은  
언제나 고향집에 걸려 있어라



# 조선의 광명성

백두의 눈보라 날리고  
충포성 높이 울리던 그날  
조선에 광명성 솟았네  
그이는 빨찌산의 아들

대결전의 선포인양  
저 멀리 울려 가는 퇴성  
그이의 탄생은 시대의 사변  
온 나라 민족의 대경사

## 작가일화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우리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슬하에서 **《김일성훈장》, 《김일성상》** 계관인으로, 로령영웅으로 자라난 재능 있는 작가 리종순은 자기의 창작 전 생애에 원숙한 자기의 작가적초상과 참인간으로서의 인간적면모로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의 추억속에 살아 있다.

리종순은 작가로서 창작적배짱이 남다른 사람이었을뿐만아니라 정치사상생활에서도 배짱이 강한 사람이었다.

1970년대 중엽 그가 조선영화대표단 단장으로 어느 한 나라에 간적이 있었다.

당시 그 나라는 수정주의, 대국주의적경향이 농후한 나라로서 작은 나라들을 업수히 여기며 자기 나라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회의나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단들에 대해서 심히 차별하였다.

특히 주체적이며 자주적립장이 강한 우리 나라를 더욱 못마땅하게, 아니꼽게 보고 있었다.

그런 때라 우리 나라 대표단의 행사참가좌석도 회의장 제일 말석에 정해 놓고 거기에는 우리 나라 기발을 꽂아 놓았다.

**김정일 김정일**  
그대 영광 누리에 떨치리  
**김정일** 그 이름 영원히  
만민의 심장속에 빛나리

그이께선 성장하셨네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우등불가 빨찌산노래  
자장가 삼아

## 배짱

분기를 참을수 없었던 리종순은 행사주최측인 그 나라 관제일군에게 강경히 항의하였다.

《당장 우리 나라 국기를 앞자리에 옮겨 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행사에 참가할수 없소!》

상대측은 그 항의를 받은후 단장인 리종순을 찾아와서 이제 국기순서를 바꿔 놓으면 뒤로 밀려난 나라 측에선 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가 사전에 잘못된 처사이니 널리 양해해 달라고 사정사정 하였다.

그때 우리 나라 대사관 일부 일군들도 리종순에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립장을 밝혔으니 행사탈퇴는 너무하지 않는가고 그를 설득시키려 하였다. 그러자 리종순은 물론 국제관계상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걸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대표단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함을 안고 왔다! 우리는 조선의 명예를 안고왔다, 그런만큼 내 결심을 꺾지 말아 달라, 우리 대표단은 조국으로 돌아 가겠다고 단호히 선언하였다.

이리하여 리종순은 행사참가를 거부하고 귀국의 길에 올랐던것이다.

리종순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귀국의 길에 오른 비행기안

## 게. 데. 베르디슈브

대결전의 선포인양  
저 멀리 울려 가는 퇴성  
그이의 탄생은 시대의 사변  
온 나라 민족의 대경사

**김정일 김정일**  
그대 영광 누리에 떨치리  
**김정일** 그 이름 영원히  
만민의 심장속에 빛나리  
(필자는 우크라이나사람임)

에서 우리 대표단성원들은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책임질수 없는 일을 빚어 놓은것으로 하여 모두 불안과 위구심에 잠겨 울적해있었다. 그들은 단장의 기색을 말없이 살펴 보았다.

리종순은 의사등받이에 기대여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두 눈귀에서는 진액 같은 눈물이 맺혀 불을 타고 흘러 내리고 있었다.

이름할수 없는 그 눈물의 의미를 두고 그때 대표단성원들은 《우리 단장이 지금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생각하고 울고 있소...》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표단이 조국에 돌아 온후 이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그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며 리종순동무한테 그런 배짱이 있는줄 몰랐다, 아주 잘했다고 높이 치하해 주시었다.

수령과 당, 조국의 명예와 권위를 결사옹위한 리종순의 립장과 태도는 이처럼 견결하고 투철하였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주신것이며 그이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에서 생긴 배짱이었다.

## 최희건

# 우리 장군님과 총

김재원

탄생하신 그날도  
베개밑에 놓여 있던것은  
방금 백두전장에 불 뿜던  
두자루의 권총!

첫뚝 경축날도  
백두산아들이 받아 안은  
첫 기념품  
정일봉 이팔로 소중히 다듬은  
총이었네

천품으로  
총과 인연이 맺어 지신분  
총대는  
장군님의 다정다감한 생활이었고  
타고 나신 운명이던가

백두산을 상속 받으시듯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으신 유산도  
빨찌산 총이었고

우리 수령님  
자신의 한생을 넘겨 주시듯  
넘겨 주신 첫 공적도  
이 나라 국방을 위한 최고사령관

가사

총대직분이 아니시던가

자유분방하시다  
우리 장군님의 총대관! 총대의 세계-  
태양 빛나는 그 세계는  
맑은 하늘에 봄비들기 자유로이 날고  
푸른 대지에 핀 꽃들  
영원히 불구름 모르는 세계-  
  
그 세계를 가꾸려 우리 장군님  
오늘도 천리전연과 전연을 넘어  
찾으시는 련합부대, 들리시는 중대마다  
자신의 지향과 의지, 그 모든것을 넘겨 주시듯  
총대부터 안겨 주시는것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장군님  
총대를 제일로 사랑하신다  
웃음을 지으셔도  
총대를 보시며 지으시는 웃음  
가장 호탕하시다!

아아, 총대는 총대는  
우리 수령님 한생이시고  
우리 어머니 한생이시고  
총대는 총대는 곧  
**김정일!** 자신이기에

# 노래여 너와 함께

신지락

장군님 안겨 주신 우리의 노래는  
생활의 벗이라네 행복의 향기라네  
기쁨도 행복도 노래로 꽃 피우고  
노래와 함께 참된 삶을 빛내가네  
아 나는 사랑해 우리의 노래를

장군님 안겨 주신 우리의 노래는  
투쟁의 무기라네 승리의 열쇠라네  
고난도 시련도 노래로 헤쳐 가며

노래와 함께 백전백승 펼쳐 가네  
아 나는 사랑해 우리의 노래를

장군님 안겨 주신 우리의 노래는  
붉은기 넘이라네 신념의 기치라네  
천만의 대적도 노래로 쳐부시고  
노래와 함께 강성대국 세워 가네  
아 나는 사랑해 우리의 노래를

## 위대한 장군님은 은혜로운 해님, 나는 복 받은 해바라기-작가

### 《김일성상》 계관인 최학수

나는 미술작품이나 음악을 감상하기를 좋아 하는 정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똑딱거리며 무엇을 만들거나 곡식 혹은 화초를 가꾸기를 좋아 하는 동적인 취미도 가지고 있다. 농사군의 집에서 태어나 고증을 졸업한 다음 한해동안 협동조합에서 농사도 지어 왔던때문인지 어디 가나 짬만 있으면 무엇이든 심고 가꾸든가 또 무엇인가 생활에 소용될만 한것을 만들든가 해야만 글도 쓰고 싶어지는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전 세기 70년대 우산장에서 《평양시간》과 《백두산기슭》을 쓸 때에는 도끼목수보다도 못한 솜씨로나마 술한 탁상용책꽃이와 탁상등, 노가지나 무늬시대를 만들어 나도 쓰고 다른 여러 작가들에게도 나누어 준 탓으로 《최목수》라는 별명까지 받아 안았다. 그 남포시 우산장에서 강동군 봉화리의 맥전나루가에 자리 잡은 다른 한 창작기지로 자리를 옮겨 가던 80년초 여름에는 우산장 6각에서 심어 가꾸던 딸기 두포기를 화분에 옮겨 가지고 가서 새 창작기지의 1호동 정원꽃밭에 심어 퍼뜨리기 시작하였는데 삼사년이 지나자 그곳의 여러 호동의 잔디밭들이 온통 딸기밭으로 변하여 소동이 일어 난 적도 있다. 바로 그곳의 꽃밭에서 나는 몇해동안 화초대신에 고추, 오이, 도마도, 가지따위의 열매나채를 심고 가꾸면서 천세봉이나 석유키, 리상현, 엄단웅 등의 선배 작가들이 식당에서 내주는 기름진 음식들보다 나의 《터밭》에서 따가지고 간 신선한 남새열매들을 더 즐겨 하는데서 《농군》의 보람을 느끼곤 하였다. 그런 《농군》의 습성을 버릴수 없어 지금도 나는 《베란다농사》를 짓곤 한다.

아무든 그 같은 《작가답지 않은》 취미를 가진 덕분에 식물을 포함한 생물계에 있어서 해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몇해전에 나는 온실에서 가꾸고 있는 대나무를 몇대 갈라서 우리 창작단청사의 정원에 심어 놓고 그것을 평양의 야외조건에 순화시켜 사철 바깥에서도 살수 있게 개량하자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마가울에 태성호반의 한 분병원에 가서 한달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돌아 오니 나의 의도를 알고 있는 어느 한 착한 사람이 그 참대숲을 겨울추위에서 구원해 주자고 벼짚으로 감싸서 품뽕동여 매놓았었다. 너무 기가 막혀 언제 저런 방한대책을 취해주었는가고 물으니 한달가까이 된

다고 하였다. 대숲주변에 햇빛을 받으면 열을 잘 내는 부식토를 두툼히 깔아 주고 비닐막으로 《집》을 만들어 씌워주었어야 하였을걸 한달가까이 햇빛의 덕을 못 보게 하였으니 어찌 그 대나무가 살수 있었겠는가?

생물계에 있어서 태양은 삶의 원천이다. 태양이 없이는 살수 없는것이 곧 생물이다. 이 단순 명백한 리치를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을 탓에 그 마음이 착한 동정자는 대나무를 죽이였다.

그런 일이 있는지 며칠후에 나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순똥생일상을 받아 안았다. 온 나라가 한창 《고난의 행군》을 겪고있던 주체86(1997)년 12월 초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풀죽으로 끼니를 예워 가고 그러한 인민의 정상이 너무 가슴 아프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췌기밥으로 끼니를 예우시며 선군혁명의 전인미답의 길을 진두에서 헤쳐 나가시던 때였던만큼 우리 가정에서도 생일을 쉬자고 생각한 사람은 있을수 없었다.

뜻밖에 베풀어 진 사랑의 예순똥생일상을 받아 안는 자리에서 나는 61년전의 늦겨울인 주체25(1936)년 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만의 남호두를 떠나 백두산으로 나오시는 간고한 행군길에서도 한 전령병의 생일날을 잊지 않고 계셨다가 그날 저녁의 숙영천막에서 비록 아주 간소하게나마 생일상을 차려 주시였던 가슴 뜨거운 옛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해에 있는 일이지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통하여서도 널리 알려 지고 나자신이 또한 《백두산기슭》에서 《대통령감》의 시점에서 품을 들어 묘사한 장면이었으므로 내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것처럼 기억에 생생하였다.

사상정신적품모는 물론 덕망까지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

자기의 예상이 현실과 꼭 맞아 졌을 때 사람은 무한한 환희를 느낀다. 나는 《대통령감》이 조국광복회창립대회장에서 수령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던 그 격정에 넘친 독백을 되받아 외웠다.

《태양에는 두가지 속성이 있다. 빛과 열이다.

**김일성** 장군님께서도 두가지 성품을 지니고 계시니 즉 빛나는 예지와 뜨거운 사랑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 그것은 곧 태양

의 빛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사랑, 그것은 곧 태양의 빛이다.

그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별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는 인간세계의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창작하던 그때까지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단 한번도 몸가까이 모셔볼 기회를 가지지 못했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은 두차례에 걸쳐 한자리에 모시고 오랜 시간의 가르침까지 받아 안는 행복한 기회를 가졌었다. 주체60(1971)년 초겨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을 진행하였을 때와 주체61(1972)년 9월 6일 문예총산하창작가들이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 안을 때였다. 그리고 《평양시간》과 《백두산기슭》을 창작하는 과정에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통하여 자기의 창작품에 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가르치심과 배려를 수차 받았다. 그런 기회들마다에서 내가 절감하게 된 강렬한 인상은 태양의 존함을 지니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그 존함대로 태양의 두가지 속성을 겸비하신 인간세계의 태양이시라는 것이었다.

많은 목격자들과 접견자들, 체험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모든 면에서 꼭 같으시다고들 말하곤 하였었다. 그렇다면 주체25(1936)년 20대 청년장군시절의 **김일성**장군님은 더우거나 현재의 **김정일**동지와 같으신 모습이었을것이 아닌가! 나의 눈, 나의 심장에 비껴 드신 **김정일**장군님을 형상한다면 그것이 곧 그대로 《대통령감》의 시안과 심장에 비껴 드신 **김일성**장군님의 생동한 형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창작적령감에 사로잡혀 나는 대담하게 붓을 들고 수령형상의 힘겨운 탐승의 길을 뚫아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백두산기슭》에 모셔져 있는 수령님의 형상은 곧 그대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형상이신 셈이다. 그리고 《백두산기슭》에서 《대통령감》인 리동백이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걱정애 넘쳐 웨치는 독백은 나 자신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접해보면서 세인을 향해 웨치고 싶던 내 마음의 고백이었던 것이다.

《대통령감》의 시안으로 《백두산기슭》에서 서술한 것처럼 우리 조선의 작가들은 광원이 없이는 빛을 낼수 없는 별들이며 해빛과 해별의 덕을 입지 못하면 살수 없는 생물체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떠나서야 어찌 나 자신의 작가적존재, 작가적생명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천만다행스럽게도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이듬해부터 《조

신문학》잡지의 편집원으로부터 현역작가로 되어 전문적으로 창작생활을 하게 되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 진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 사업으로부터 거룩한 령도의 첫자욱을 떼시었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과 열기는 문학예술의 숲에서부터 미쳐온것이다. 바로 그런 덕에 나는 작가로 썩 터나던 첫 시기부터 태양의 한량 없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발도 안난것이 콩밥부터 먹자는 격으로 20대의 풋내기소설가로서 장편창작의 어려운 초행길에 나섰던 나는 전쟁물인 첫 장편을 그마저 한 문학통신원과의 합작품으로 겨우 빛어 낸 다음 평양건설에 대한 두번째의 장편창작에 달라붙었다가 나의 창작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완성시킬수 없을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창작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였다.

그 당시에 내가 썼던 일기장을 나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수풍호반의 벽동군 동주리에서 주체60(1971)년 11월 3일(수요일) 안개후 흐림이라고 적어 넣은 폐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올해에는 아주 이상하다. 왜 그러도 글쓰기가 더욱더 어려워 지는지 알수 없다. 내 힘으로 도저히 다뤄 낼수 없을 큰 바위돌을 불안고 찢찢매고있는것 같은 형국이다. 만일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번 장편은 포기할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바로 그런 절망감을 안고 번민속에 모대기고 있던 이듬해 9월 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창작가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창작가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조직생활, 창작과 관련한 해빛같이 눈부신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제는 조국이 해방된지도 스물일곱해나 되었는데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의 작가들이 대작들을 광광 써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고 고무격려해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는 대담하게 착상하고 형상하여야 한다. 공연히 이것저것 재면서 눈치놀음을 하여서는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날수 없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맥을 놓고 주저앉을번 하였던 나를 일떠세워 주고 장편창작의 간고한 탐승길을 계속 뚫아 오를수 있도록 떠밀어 주신 위대한 구원의 손길이였다. 작가적재생의 활기를 안겨 주신 그 력사적인 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품치 좋은 우산장휴양소를 작가들의 창작기지로 돌릴데 대한 은정 넘치는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그러신 다음에는 우산장에서 창작하는 작가들에게 휴양생대우를 해주도록 하

시고 손수 낚으신 잉어며 백련어 같은 생선들까지 여러 차례 보내주시었다.

그런 은혜로운 해빛의 혜택을 받아서야 비로소 움 트다 말면 했던 《평양시간》이 거목으로 자라나 자기의 자태를 드러낼수 있게 되었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장편소설이 되는 영예도 지니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인 장편소설 《백두산기슭》도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력도의 해빛을 떠나서는 삶의 빛을 보일수 없었을 작품이다. 초고단계의 《백두산기슭》원고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주인공으로 확고히 모시고 있지 못했을뿐만아니라 수령님의 혁명활동선, 력도선이 작품의 주선으로 뻗어 있지조차 않았다. 주체25(1936)년 초에 수령님께서 남호두를 떠나시었을 적에도 력사적사실과는 전혀 달리 수하에 이미 두개 련대를 거느리고 계신것으로 외곡되게 형상하였는가 하면 《대통령감》도 자기의 운명선을 가진 인물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괴이한 인물도 있었다고 소개하는 식으로 얼핏 선이나 보이다마는 삽입적인 인물로 등장시켰을뿐이었다. 전령병은 있었으나 그의 생일을 쇠여 주시는 장면도, 미혼진의 열병환자들을 돌봐 주시는 장면도 없었고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사르시는 장면은 있었으나 새 사단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즐기찬 가치를 뻗치고 있지 못했으며 조국광복회창건과 관련한 화폭들이나 이야기는 통채로 제외되어 있었다.

그같이 한심한 초고를 친히 보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해시기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에 따라 력사적사실을 그대로 충실히 반영할수 있게 작품의 주선을 확고히 세우며 《대통령감》도 자기의 운명선을 가진 인물로 특색 있고 의의 있게 형상하고 조국광복회창건과정도 다 반영하는 등으로 전면적으로 개작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에 포괄될수 있는 혁명소설로 완성시킬데 대한 방도를 밝혀 주시었다. 그리고 작품을 전면적으로 개작완성할데 대한 어렵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4.15문학창작단에 소환된지 반년도 못되는 저에게 맡겨 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창작도중에 건강을 상하여 병상에서 신고할 때에는 친히 사랑의 불사약까지 보내시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었다.

나에게 미쳐 온 그 광휘로운 예지의 빛발과 크나큰 믿음과 따사로운 보살핌이 《백두산기슭》으로 하여금 성공작으로 탄생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최상의 기쁨과 만족을 올리는 총서작품의 하나로 되게 해주었다.

《백두산기슭》의 련속편인 장편소설 《압록강》

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이하게 되는 올해의 태양절에 내놓게 된 새로운 장편소설 《개선》(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해방후편)도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의 빛발과 따사로운 사랑의 해별을 받아 오면서 싹 터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은 거목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꺼져 버릴번 하였던 나의 작가적생명에 소생의 빛을 주시고 부실하고 허약한 존재로 태어나 단명할 운명을 면치 못할번 한 작품마다에 강한 생명력을 가진 생활인자를 넣어 주시여 그 작품들이 이삼십년의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의 기억속에서 지워 지지 않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위대한 은인이시며 위대한 해님이시다.

바로 이 위대한 해님이 계시기에 세상에 류례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가장 엄혹한 시기에도 우리 작가들은 쓰러지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집안의 수도관마저 얼어 터지는 창작실안에 비닐박막으로 작은 천막 같은 집을 짓고 자주 보지 못하게 되군 했던 전기불 대신 석유등잔불로 원고지를 밝혀 가면서 그속에서 혁명소설창작전투를 단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었다. 이제 곧 세상에 빛을 보이게 된 《개선》도 그렇게 창작되었다.

지금 우리 창작단의 작가들이 쓰고 사는 칸칸마다 모두 전기난방화된 고급살림집이 조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기에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주택이라는 한가지 사실만을 상기해 보아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돌려 주시는 사랑과 은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고 하는 노래의 가사구절대로 위대한 장군님은 만민의 태양이신 동시에 우리 작가들의 영원한 해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조선의 작가들은 그 위대한 해님덕에 우리 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해바라기들이다.

온 세계가 《21세기의 태양》으로 숭앙하며 칭송해마지 않는 위대한 해님!

그 해님이 계시는한 **김일성**조선의 문단은 더욱더 풍만한 태양의 꽃을 피워 가며 누리에 질은 향기를 풍기게 될것이다.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날인 민족최대의 2월의 봄명절을 북받쳐 오르는 환희속에 맞이하는 나는 정일봉에 솟아 오르는 해님 우러러 언제나 그 언제나 그 뜻만을 따르는 해바라기-작가임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긴다.

## 위대한 시인

박웅전

수려한 이 강산에 동이 트면  
피여 오르는 붉은 노을속에  
장중한 노래가 울린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설레는 그 음향속에  
희망의 창문들이 활짝 열리고  
금빛 새들이 무리지어 날은다

그러면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장엄한 행진곡에 발을 맞추며

산뜻한 옷차림, 들쭉이는 어깨를  
그속에서 누군가  
기쁜 눈매로 속삭인다  
《어제 <로동신문>의 서사시가  
정말 눈물 나더군》  
《또 새 명곡이 나왔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지도해 주신것이 분명해요》  
명랑한 목소리, 환희로운 미소  
새날의 발걸음이 다우쳐 진다

《해돋이순간》부터  
《아침도 좋아 저녁도 좋아》  
《지새지 말아 다오 평양의 밤아》가  
은하수처럼 흐를 때까지  
사회주의 내 나라는  
시와 노래로 가득찬  
선물의 나라  
명곡의 나라

이 땅을 지켜 온 투사들과 영웅들  
병사들과 어머니들, 청춘들을  
가장 아름다운  
시와 노래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주시고

이 땅에 솟는 해  
뜨는 달과 별들도  
가장 화려한  
시가의 월계관을 씌워 주신분

시와 노래로  
일심단결의 대가정을 꽃 피워 주시고  
시가의 장점으로

원썬들과의 대격전도  
총포성없이 승리한 이 땅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위대한 시인을 령수로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 끝이 없어라

## 1

그 누가  
모란봉의 붉게 타는 노을  
대동강에 곱게 비낀 무지개를  
그처럼 아름다운  
어머니조국의 모습으로 그려 주시었던가

그 누가  
진달래꽃 방긋 웃는 새봄  
종달새가 지저귀는 푸른 하늘을  
봄날처럼 따사로운 조국의 품  
사랑하는 어버이장군님의 품으로  
그처럼 뜨겁게 안겨 주시었던가

그이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시의 천품을 지니시고  
불후의 명작들을 창작하신  
천재적인 시재

얼마나 유명하시었던가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높이 모신  
아름다운 교실  
건설로 들끓는 내 조국의 음향을  
희망찬 미래로 안겨 주신  
동시 《우리 교실》은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품에 안아 키워 주신 어머니  
만가지 소원을 헤아려 주시면서도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길러 준 그 품을 잊을수 없어  
기쁘나 슬프나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나의 어머니》

우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동지  
 남이 자기로 되는 세계  
 가슴에 따로 둔 심장이 없는  
 우리의 벗이라고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하늘땅 가득히 펼쳐 주신 시

총검을 비껴 들고 산정에 오르시니  
 온몸에 넘치는 멸적의 장수힘  
 천만대오 이끄시고 험산준령 넘고 넘어  
 백두의 행군길 곧바로 이어  
 그 어떤 원썬도 얼씬 못하게  
 내 조국을 영원히 지켜 갈  
 선군의 의지를 선포하신 노래

해 솟는 통남산마루에서  
 세기와 세기를 굽어 보시며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끄시고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원대한 구상 펼쳐 주신  
 영원불멸할 계승의 노래  
 신념의 노래

구절구절마다 넘쳐 나는  
 불 타는 사랑과 열정  
 빛발치는 사색과 예서  
 매혹적인 신비로운 정서  
 시적환상과 랑만이 끝없이 나래치는  
 명작중의 명작들

용서하시라 내 이 시를  
 우리 장군님 쓰신  
 시행과 시어로 엮는것을

허나 어이하리  
 아무리 심혼을 바쳐  
 아름다운 시적표현을 고르고 골라도  
 위대한 시인의 풍격을  
 그이 쓰신 주옥 같은 시어이상으로는  
 노래할수 없음을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계시며  
 인민의 무한한 정서를 퍼내시여  
 그처럼 인민이 사랑하는 노래  
 우리 어찌  
 못 잊을 추억으로만 부르랴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승승장구해 온  
 성장의 노래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

오, 위대한 장군님의 전기는  
 시와 노래없이 쓸수 없으리라  
 시와 노래만으로도  
 찬란히 엮을수 있으리라

## 2

태양이 있어 꽃이 피듯이  
 자애로운 아버이를 모시여  
 그리움의 노래 차고 넘친 땅

잊을수 없으라  
 저 멀리 하늘가 포연이 서리던  
 준엄한 전선길  
 아버지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 담아 지으신  
 《축복의 노래》

《복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행복한 날에나  
 준엄한 세월에나  
 아버지수령님만을 믿고 사는  
 인민의 일편단심  
 그리움의 만경창과를 펼쳐 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장백의 험한 산밭  
 눈보라 헤치시며  
 혁명의 수만리길을 헤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아름답고 향기 넘친  
 시와 노래의 꽃바다에 모셔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설날과 4월의 명절이 오면  
 시인들과 함께  
 인민의 다함 없는 축원이 담기도록  
 아버지수령님께 드릴  
 불멸의 헌시와 송가를 지으시며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이시던가

안팎의 원썬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려 할 때도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로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를 쌓아 주시고  
 원썬들에겐 죽음을 주신분



잊을수 없으라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 주시려  
한평생을 바쳐 오신 우리 수령님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자고  
그처럼 훌륭히 완성해 주신  
만수축원의 노래

그때문에  
오늘도 어버이수령님  
우리 장군님 지어 주신 영생의 노래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여라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선대수령을 천세만세 받드는  
가장 숭고한 도덕과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는  
영원불멸할 태양의 노래로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신  
만고절세의 위인  
태양의 시인이시여라

### 3

이 세상 시인들 많고 많아도  
없으리라  
위대한 시인을 스승으로 모신  
내 나라의 시인들처럼  
자랑찬 시대의 가수들이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우리 시인들이 써올린 시들을  
일일이 다 보아 주시는분

시인들은 시대정신의 대표자  
혁명의 나팔수라 하시며  
한밤중에도 달려 오시여  
정서가 모자라면 풍만한 정서를  
운율이 부족하면 음악적인 운율을  
환상이 없으면  
시적환상의 나래를 활짝 펴주시던  
못 잊을 우산장의 추억이여

수백편을 다듬고 다듬어 주신  
명가사들로  
5대혁명가극의 포성을 울려 주신  
그 헤아릴수 없는 로고를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데

《고난의 행군》길에서  
우리 시인들이 어렵게 살았어도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좋은 시들을 많이 썼다고  
꽃강생이라도 먼저 맛 보라고  
무르익는 전야의 정서를  
창작실 가득 채워 주시여  
시인들을 울리신 장군님

그 품속에서 태어났으라  
혁명시인들, 영웅시인들  
영예군인시인들, 녀류시인들

대오에서 떨어 저 잊을번 한 시인도  
붉은 당기의 기폭에 안아  
그처럼 뜨거운  
우리 당의 영원한 찬가  
《어머니》시를 쓰게 하신 분

인생의 파란곡절을 헤쳐 온  
백발의 시인이 쓴  
서정시 《나의 조국》을 읽으시며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시었던가

1994년, 그 피눈물의 언덕에서  
한 시인이 쓴  
수령영생의 시를 다듬어 주시며  
얼마나 높은 시대의 단상에  
시와 시인을 내세워 주시었던가

그이는 우리의 시가문학에  
가장 높은 시대정신을  
가장 정수적인 감정을  
가장 심원한 철학과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분

비상한 착상과 발견으로  
신비로운 종자를 심어 주시여  
형상의 꽃 만발하게 해주신  
문학과 예술의 영재

그이께서 한번 손을 대시여  
순간에 시대의 명작으로 빛을 뿌린  
그런 행운의 시들은  
또 얼마나 많은것이라

지금은 산딸기가 빨갭게 익었을  
옛 싸움터  
허나 아직도 거기 묻혔을  
탄피를 탄피를 잊지 말자고  
락동강을 넘으며 더운 피 흘리던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가슴을 치는 로병들의 노래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는 병사  
그 병사가 고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웅탄부가 된 제대군인총각을  
애틀한 사랑으로 간직한  
탄전처녀들의 노래

수십년전 건국의 나날에  
조기천이 쓴  
복순이네 집앞을 지날 때  
가슴 설레던 전공총각의 《휘파람》도

아직은 말 못할 검덕처녀의  
남 모를 사연도 명곡에 담아  
온 세상에 폭풍같이 퍼져 간 사변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그이는 한편의 시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고  
탄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적들도  
시가의 포화로 섬멸케 하신  
천출시인 령장

무색하여라  
뿌슈깁, 하이네, 바이론...  
이 세상 이름난 시인들 많아  
그네들 한 시대의 인간정서를  
찬미한 재능으로  
수많은 시집을 남기었어도

시와 노래로  
불의의 적들을 타승하시고  
시와 노래로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며  
시와 노래로  
태양의 나라를 만드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  
그이는  
인류가 영원히 칭송해 마지 않을  
력사에 전무후무한  
천출위인  
시의 위대한 대가이시여라

#### 4

새해 설날부터  
우리 장군님 주시는 말씀은  
불멸할 서사시로 엮어 지리라  
《우리 인민이 참 고생을 많이 했지  
나도 의지의 힘으로 이겨 냈고

고생끝에 락이라고  
우리 이제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 지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시인들  
너무도 크나큰 걱정애 사무쳐  
새해벽두부터 시를 쓴다  
온 나라 인민이 시를 쓴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잘 산다고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라고...

원썬들의 전대미문의 압살기도를  
썩은 삭정이처럼 짓부시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장군님의 끊임 없는 전연시찰  
눈 덮인 자강땅의 얼음길을  
사랑으로 녹여 주신 강행군길  
새로 건설한 발진소의 백리물길굴과  
강원도와 평북땅에 펼쳐 주신  
눈부리 아득한 대평원  
백두삼천리별의 감자꽃바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 불길을 지퍼 주신  
성강과 락원, 라남의 봉화는  
위대한 장군님 써주신  
대장편의 영웅서사시들...

분계선초소의 신기한 안개발  
감나무중대 해안포병들의 환호성  
초도의 난파도와 351고지의 함박눈  
길이 미여지게 흐르는  
거름발구행렬과 함께 가신 길  
랑림을 찾아 녀으신 황수령길

어찌 그뿐이라  
광명성제염소에서 높이 안아 주신  
귀여운 소금이  
물절반 고기절반이라고  
양어장마다 터치신 호탕한 웃음  
구월산에서 뜨겁게 읽어 주신  
바위에 쓴 병사들의 시  
무지개동굴에 비쳐 주신  
사랑의 전조등불빛  
대홍단의 민홍단이  
구룡땅의 《고후회》  
우리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쓰시는  
전설적인 사랑의 서정서사시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을 따라서  
세상에 없는 시를 쓴다

우리 장군님 노래를 부른다  
《장군님은 최전선에 계신다》  
《장군님 찬 눈길 걷지 마시라》고

《사랑의 미소》  
《그 이름 부르네》  
《그 품 떠나 못 살아》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온 세상을 통채로 들었다 놓으며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군가가  
되성처럼 울린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그러면  
장군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가  
하늘끝까지 치솟아 오르고  
잔악한 원썬들의 뼈다귀가  
와지끈지끈 발밑에 부서 진다  
땅처럼 두터워 진다  
온 세상은 우리의것이라는 배심이

어느날 또다시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아 주신 자리에서  
우리 장군님 주신  
장쾌한 말씀  
《이만하면  
노래의 싸움준비는  
끝났다고 볼수 있소  
우리의 노래는  
적들의 천만기 핵탄두보다  
비할바없이 위력한것이요  
우리는 이 무기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싸워 이길수 있소》

이것은  
위대한 최고사령관의  
필승의 선언  
이제 우리 장군님 명령만 내리시면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병사들의 가슴에 남해가 설레이네》

우리엔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썬칠  
불패의 혁명가요가 있고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만세만세 높이 부르며  
원썬의 아성을 짓부시며 나아갈  
무적의 전시가요가 있다  
불사조의 시 《조선은 싸운다》가 있다

우리 절해고도에 홀로 남아도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신념의  
노래가 있고  
머나먼 전연의 별빛아래서도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 줄  
《승리의 길》이 있다.

하여  
《남해가의 붉은 꽃》  
**김정일** 화를 높이 받들어 올리고  
통일의 열병광장에서  
하늘땅을 진감시킬  
《경례를 받으시라》가 있나니

정의의 노래를 가진 자 승리하리라  
위대한 장군의 노래를 가진  
군대와 인민은  
백전백승하리라

오, 위대한 시인을  
수령으로 높이 모신 내 나라는  
불패의 사상의 강국  
21세기 태양의 노래  
선군의 노래  
창조와 건설의 노래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통일된 강성대국  
조선은 억만년 무궁번영하리라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10 대인민관》

- ① 가장 열렬히 숭배하는 《하느님》은 인민
- ② 가장 높이 존경하는 선생은 인민
- ③ 제일 힘 있는 존재는 인민
- ④ 제일 재능 있는 창조자는 인민
- ⑤ 제일 강한 무기는 인민의 일심단결
- ⑥ 가장 큰 념원은 자주성이 실현된 인민의  
락원건설

- ⑦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
- ⑧ 가장 큰 피로움은 인민의 불행
- ⑨ 가장 큰 분노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에 대한  
침해
- ⑩ 제일 사랑하는 좌우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 우리의 붓대

김일규

한자루, 한자루...

너와 나, 우리들자신인 붓대!

우리 인생의 무게와 영예가 집약된 이 부름앞에 서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에 가슴부풀어 오름을 금할수 없다.

한자루, 한자루 이 붓대를 목숨처럼 틀어 쥐고 장군님 사상전선의 전사가 되고 붓대를 틀어 쥐고 장군님을 결사옹위 해 나선 우리들이다.

우리 삶의 은인이시며 스승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 다시 한번 심장에 새겨 보라.

**《나는 혁명루정에서 언제나 붓대를 중시합니다.》**

붓대!

그대의 이름처럼 내 이름처럼 조용히 불리만 보아도 크나큰 삶의 희열과 긍지가 가슴속에 샘 솟아오른다.

동서고금의 그 어느 시대를 살피 보아도 이처럼 작가의 삶을 빛나게 상징한 부름은 없다. 또 이처럼 사회와 역사앞에 값높이 내세워 주는 호칭 또한 찾아 볼수 없다.

지난 세기의 세계적인 문호들은 물론이고 현 세기에 함께 사는 이 지구상의 동시대 작가들 역시 부귀와 영화, 향락과 취미의 개인적인 율타리 속에서 찬양되고 그 어떤 물질적인 만족속에서 작가적삶의 보람을 찾고 있을 때 참된 정의와 진리를 노래하는 사회와 혁명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자부케 하는 시대의 부름이 있는가!

내 조국의 당당한 모습과 인류의 미래를 그려주는 주체사상탑앞에 그 어떤 광풍에도 억년 끄떡없을 굳은 자세로 높이 추켜 든 붓대를 보라!

단순히 피눈물 나는 모진 운명의 곡절과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 이 영광의 단상에 너와 나의 모습으로 저절로 선 붓대가 아니다.

준엄한 폭풍과 불길을 헤치고 천겹만겹 시련과 고난의 칭칭 쇠사슬도 짓부시고 당당하게 뿔뿔하게 내세워 준 장군님 동행자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위대한 선군시대를 살며 총대로 불패인 내 조국의 하늘높이 백만총대의 위력 못지 않게 준엄높이 추켜 든 붓대!

우리의 붓대는 자기의 삶과 영생의 아버지를 노래하며 자기 존엄의 수호자를 받들어 추호의 흔들림도 없으리니.

붓대여, 그때문에 2월의 이 아침 누리에 뿌려가는 아름다운 노을속에 너 진하게 새겨가는 다함없는 심장의 노래가 것처럼 절절하고 뜨거운것 이구나.

추억의 돛을 달고서 저 멀리 올라 가 보면  
곡절도 많은 내 한생 굽이굽이 흘러 왔네  
사나운 파도를 넘어 내가 닿은 포구는 어디  
장군님의 사랑의 품에 삶의 닻을 내리였네  
...

어둠속에 쫓기운 나비 등불에 날아 들어 연한 나래는 타버리고 몸마저 재가 되었지만 죽어도 녀은 빛을 찾아 방랑하던 그 운명의 수난자들은 정녕 나라 없던 그 시절 위인을 목 메여 부르며 거미줄의 모진 수난에 퍼고 못 거두던 잠자리나 래처럼 희망을 부르고 찾으며 목이 쉬고 자기 목숨을 버리듯 꺾어 버린 붓대가 우리의 삶이었다.

광야에 몰아 치는 스산한 눈바람에 몰려 생계를 연명하는 생활의 이 골목 저 골목에 텅굴던 가랑잎은 아니었던가, 총칼의 칼부림을 피해 은둔한 향촌의 벌 나비와 시내물의 주절거림속에서 서정을 피내며 물레질소리와 처량한 달밤의 외로운 새를 눈물속에 바라보며 《님》을 부르고 부르다가 피를 토한 운명은 아니었던가.

몇푼의 절거렁거리는 돈앞에 완고했던 《문학》의 자세마저 팔고 칭칭 휘감기는 향수내 구린 치마폭에 작가적량심마저 감겨 정신노예로 정치매문의 분화장에 붓을 적신 운명은 없었던가.

운명의 품을 찾아 돛을 올린 인생의 작은 쪽배는 풍랑에 부대끼고 암초에 깨여지며 그 얼마나 모진 세월의 바다를 거슬러 왔던가.

운명의 그 품, 삶의 그 기슭은 꽃 피는 봄처럼 저절로 오지 않았으니, 피어린 결전의 언덕을 넘어 지동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백두산3대장군의 태양의 품은 기어이 우리 모두를 안아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이 넘치는 이 땅, 이 하늘아래 준엄높이 내세워 주시었으니 아 정녕 위대한 태양의

그 빛발이 아니었다면 우리 운명은 오늘도 그 어느 난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것인가.

《암흑속에 태어나 살기 위해 해매던 나에게 광명을 주고 행복을 안겨 준 영광의 나날은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계처럼 영원하며 흐르는 물이라면 용융한 대하가 되어 나의 가슴속에서 줄기차게 흐르고 있으며 나무에 비하면 푸른 한빛으로 수많은 잎을 띄우고 곳곳이 서 있는 락락장송처럼 생생히 안겨 와 나는 내가 살아 본 나날을 백골이 진토되어도 잊지 못할것이다.》

봉건말기로부터 암흑과 광명의 세 사회를 살아온 짧지 않은 한생을 총화하며 남긴 로작가의 이 한마디 말속에 얼마나 절절한 우리 운명의 어제와 오늘이 집약되어 있는가!

하기에 붓을 들고 원고지를 펼쳐 놓으면 저도 몰래 《나의 은인, 나의 스승》이란 글발을 써놓고 눈물로 붓을 적시군 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어느 한 시인의 진정만이 아니다.

우리의 붓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기의 피와 숨결을 가지고 자기의 심장을 지닌 너와 나 우리의 운명.

정녕 한자루 한자루 백두산장군의 기질과 배짱, 신념과 의지가 비낀 총대처럼 강대하게 자라난 우리의 붓대!

우리 붓대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를 불러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 주시었다.

생각할수록 가슴 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족잡마저 그리운 전선길의 차중에서 한편한편의 시와 가사로부터 부피 두터운 서사시와 장편소설 원고까지 남 먼저 보아 주시고 인민들과 군인들이 좋아 하겠다고, 세계적인 작품이 또 태어났다고 그토록 만족하시여 작가들에게 축하도 보내시고 자신께서는 죽 한공기로 아침끼니를 이으시고도 작품을 쓰느라 수고한 작가들에게는 갖가지 식료품을 보내주시고 몸이 허약해 진 작가들은 휴양도 보내고 외국에 보내여 치료도 해주라고 하신 아버지장군님!

때로 시대의 요구와 인민적인 감정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든 보시면 친히 명문장으로 다듬어 주시여 우리의 붓대는 온갖 진부하고 이색적인것과는 인연이 없음을 깨우쳐 주신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

정녕 얼마나 위대한 품속에서 성장해 온 우리의 붓대인가.

하기에 우리의 붓대는 그이만을 노래하며 그이

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 받들어 나가는것을 제일 생명으로 안다.

그 사랑, 그 인덕에 매혹되어 그 품을 노래하며 붓을 달리다 붓을 쥐고 순직한 작가의 이름을 때없이 외우시며 해지는 저물녘 애국렬사릉을 찾으시고 작가의 돌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조국이 알고 인민이 아는 작가는 영생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그 믿음, 그 영생의 품에서 한자루 한자루 우리의 붓대는 오늘 장군님 사상과 신념의 총대로 선군정치의 위력한 창검이 되었으며 천하를 한손에 거머쥐시고 세계를 평정하시는 백두산장군의 담력과 배심이 그대로 서리발기상으로 비졌다.

조국과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태양의 자애와 열광으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열렬한 인간애와 조국애가 피처럼 저수되어 있고 조선이 없는 지구도 없다는 그 천하무적의 불패의 기상이 만만창된 우리의 붓대이다.

지난 세기의 말에 이른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놓아 작가적인 《명성》과 대부호의 지위를 얻었다는 서방의 한 소설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작가도 이 세월의 풍상고초속에 몸을 담근 생명의 한 존재일진대 나는 나의 소설로 내 생의 만족을 담보하는 돈을 얻은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럴수밖에 없다. 상품화된 소설, 돈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기형적인 사회의 근시안적인 그 안팎엔 돈이 먼저 보였을것이다.

시대와 력사, 사회와 인민을 외면한 붓대는 붓대가 아니며 개인의 향락과 치부를 위한 자본가의 저가락 같은것이다.

설사 그 《인기소설》이 무위도식하는 몇 안되는 안방의 귀부인들의 허영심과 색정적인 취미에 미칠듯한 만족을 주었다면 그것은 그 변태적인 광신자들의 경대앞에 분주한 연지통이라고나 해야 할것이다.

한때 자기 정도자를 찬양하여 그처럼 열렬했던 동유럽의 한 작가는 시대가 바뀌자 제일 먼저 선대수령의 업적을 비난하다가 자기 아들의 《다심장》야유에 못 이겨 자결했다는 그런 인생은 붓대가 아니다.

붓대는 시대에 따라 변할수도 없는것이며 자기의 모든 활동을 목숨으로 담보한다.

붓대는 마땅히 시대의 발전을 추동하며 시대와 운명을 같이 하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붓대는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이며 작가

는 당사상전선의 전호가에 그 무기를 잡고 선 전초병이다.

따라서 우리의 붓대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령도를 묵숨으로 받들며 언제나 당을 결사옹위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그 위력 떨치고 있다.

붓대는 인간과 생활의 깊은 세계를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보고 생활의 진리와 인간의 가치를 높은 경지에서 밝히는 정신적재부의 창조자들에게 주는 시대의 값 높은 이름이다.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사회적기능마저 좀 먹어 썩은 가냘픈 붓대를 쥐고 《순수문학》이요 《진인류적인 문학》이라는 분통에 후줄근히 적서진 붓은 붓대가 아니며 정치매춘부의 장난감이나 같다.

우리의 붓대는 우리와 인연이 없는 온갖 잡것들에게는 단호한 불벼락을 퍼붓는 주체의 총대이다.

염전사상과 평화주의를 고취하며 개인리기주의와 자유주의를 조장하고 일하기 싫어 하고 투쟁하기 싫어 하며 혁명하기 싫어 하는 안일부화한 사상을 얼룩덜룩 매닥질하는것과는 인연이 없는 우리의 붓대!

보라! 라남의 봉화가 세차게 타오르는 이 땅의 그 어데 가나 제일 어렵고 힘든 곳, 벽차고 들끓고 위훈이 창조되는 곳마다에는 우리의 작가들이 있다.

철령과 오성산의 외진 길에서도 배낭을 지고 현지체험의 길을 걷는 작가들을 만날수 있으며 눈보라 지동치는 깊은 밤 총대를 잡고 내 조국을 수호해 가는 전초선의 전호가에도 붓대를 잡고 함께 밤을 지새는 작가들의 모습도 볼수 있다.

대흥단과 무산, 강계와 성강, 금진강발전소건설장과 토지정리전투장 그 어디에 가나 수수한 차

림그대로 로동자, 농민, 건설자의 자세로 현실생활의 무한한 저수지에 붓을 적서 내는 선군혁명문학의 창조자들은 시대와 인민의 사랑과 기대속에 자기의 보람찬 창조의 새날을 맞고 있다.

갑자기 몰아 치는 눈보라에 몸마저 휘뿌려 지는 백두산정에서 2월의 해돋이를 직접 목격하고 소백수물소리 정다운 고향집뜨락에 선 한 시인은 만년필과 원주필이 다 얼어 원고지를 정리할수 없는 조건에서 한자한자 머리속에 무르익힌 자기의 시를 록음기에 수록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해마다 2월이면 찾아 와 백두산해돋이를 보고 고향집앞에 서면 온 우주를 한가슴에 안은듯 무한한 창작적환상속에 잠기곤 합니다. 오고 또 와도 이 가슴에 마를줄 모르는 열정과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안겨 주는 백두밀영고향집은 정녕 우리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고향집입니다.》

그렇다. 백두산은 이 땅에 펼쳐 지는 행복과 영광의 고향이며 우리 붓대의 고향이다.

백두산에서 태어난 주체의 붓대이기에 우리의 붓대는 백두산의 아침노을처럼 아름다운 노래만을 울리고 백두산의 눈보라처럼 원쑤에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며 백두산의 숭엄한 모습처럼 그 어떤 광풍에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것이다.

백두산에서 태어난 우리의 총대가 것처럼 강대하고 빈말이 없듯이 백두산에서 버려진 우리의 붓대 역시 빈말을 모르는 천하불패의 사상적무기로 위력한것이다.

총대와 함께 붓대를 사랑하시고 것처럼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손길에 받들리어 우리의 붓대는 어제 또 오늘도 사상전선의 전초선을 지켜 끄떡 없으리니.

붓대여!

우리의 삶이여!

장군님 사상의 총대여!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장군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명장이 지녀야 할 기질은 비범한 예지와 지략, 강毅한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열화와 같은 열정과 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여 사상으로 이기고 신념과 의지로 이기고 담력과 배짱으로 이기고 열정과 인덕으로 이기는 장군을 명장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은 지난 시기 명장들이 다 지닐수 없었던 출중한 기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종합적으로 체현하신 천출명장이십니다. 우리 수령님은 동서고금의 명장들이 지녔던 장점들을 다 지니고 계시는 천하제일명장이십니다.

나는 수령님을 천출명장, 천하제일명장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 한 여름날의 대화

-남조선언론인의 일기중에서-

김준학

2000년 8월 5일 (토요일)

매옴- 땀- 버드나무들이 우거진 대동강변 어디선가 매미의 울음소리가 꿈결에서런듯 어렴풋이 들려온다.

《육체로서의 <나>를 살리기 위해 령혼으로서의 <나>를 죽이는 그야말로 하느님의 섭리에 배치되는 계급투쟁을 혁명의 최고목적을 삼고 있는 평양으로 하느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력사의 그날이 하루빨리 깃들어야 한다. 조선반도의 통일은 정치적과제일뿐아니라 그것은 한 민족의 집단적회개와 화해로서 종교적과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얼마전부터 카톨릭교계 《런대성》방송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내가 기자생활을 해온 이래 줄곧 주장해온 정치신조였다.

그런 내가 출연 오늘 북조선으로, 평양에 왔다.

그것은 과연 하느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력사의 그날》이 와서였던가?...

아침 일찍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을 때 인파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 왔다. 돌아보니 마치 토끼털귀걸이를 쓴듯 량옆머리에만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조금 부풀어 있을뿐 이마우가 무르팍처럼 벗겨져 반들반들한 한경석이 다가오며 빙시래 웃었다.

《경인일보》사장인 그는 나의 소꿉시절 동무였다.

6. 25전쟁 직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전라북도의 이름없는 산골에서 서울로 올라 와 고학을 마친 우리는 가까스로 서로 다른 계열의 방송공사와 신문사에 기자로 취직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대체 그러하듯이 아이적부터 령리하고 이악한 그는 남보다 출세욕까지 강하여 얼음우에 박밀듯이 승진을 거듭하더니 마침내 그 신문사의 사장 《옥좌》까지 점령해 버렸다.

《함께 가세!》

조금전과 다르게 부러 어깨를 살구고 위엄있게 웅글은 목소리로 재촉하는 그의 제의가 나에게 새삼스럽게, 어찌 보면 굉장한 혜택처럼 느껴졌다. 왜냐면 그는 여느 사람보다 체격이 우람한 나와 함께 다니는것이 마치 꿈과 너구리처럼 (이 비유는 대학시절 동창생들이 선사한것이다.) 자신의 인품에 불쾌한 대조를 준다는것을 의식한 때부터 나와 동행하는 일을 극력 삼가했으며 혹간 어쩔수없이 함께 가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남남사이인듯 멀찍이 떨어져 걸곤했기때문이다.

이런 사유로 하여 나는 《함께 가자》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흘려 들을수 있는 그의 말에 대해 놀랍게 생각했던것이다.

우리는 곧 귀빈실에 들어 섰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면식있는 몇몇 사장들과 제각기 수인사를 차린 우리는 곧 한구석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한경석이였지만 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흥심이 일지 않았다. 그런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그는 다른 사장들과 긴급히 상론할게 있다면서 자리를 떴다.

홀로 남게 된 나는 이번에 함께 북행할 언론사 대표단 성원들을 한명한명 둘러보았다. 아무리 살펴봐도 결국 한경석보다 더 파악있는 동행자는 없었다.

나는 절로 서글퍼 졌다. 얼마전부터 나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 온 나의 마음이 뜻대도 없이 방향도 없이 출렁출렁 망망대해 그 어딘가로 떠밀려 가는듯한 감을 받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배에서 내던진 빈 병처럼.

아마도 그것은 달반전에 평양에서 잇은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대통령의 상봉, 그에 잇달은 6. 15북남공동선언에 접한 그 충격때문이라.

그날 밤의 대화가 떠올랐다

《정 선생, 그래도 북을 무서워해야 하겠습니까?》

이말은 그때 서울 한복판 경복궁앞에 벽화로 모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초상을 경건히 우러르며 비전향장기수 김선생이 나에게 던진 물음이었다.

수년전부터 우리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던 그는 지난해 말에 만기출소 되였었다.

《글쎄요... 지금의 내 심정을 솔직히 털어 놓는다면 나는 지금 나 자신을 통채로 잃어 버린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 해야 할지...》

정말 그러했다.

장차 반공으로 살아 온 이 땅의 인생들과 반북으로 지탱해 온 이 체제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제 몇달 안 있어 북으로 송환될 김선생은 숙연한 어조로 나에게 자신이 한번도 만나뵈적은 없으나 순수한 마음속에 운명의 구세주로 숭앙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

사실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대다수, 그중에서도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는 보고



를 받으시고 자정이 넘도록 수차에 걸쳐 해당 부  
문일군에게 사고의 경위와 피해상태에 대해 구체  
적으로 알아 보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새벽  
에 또다시 그 일군을 찾으시어 《저녁시간에 물건  
사러 나왔던 가정주부들이 수백명이나 묻혔다니  
이런 큰 변이 어디 있습니까. 술한 아이들이 어  
머니를 잃고 울고 있을텐데 그 애들이 누구보다  
도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퇴근하여 잠간 쉬려고 누웠는데 너  
무도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수가 없어서 전화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로  
그랬을가 싶은 상상밖의 기담이었다.

여태껏 **김정일** 국방위원장 하면 최전방에 전개  
한 수만문 대포의 일제물사격으로 한순간에 서울  
을 지옥의 불바다로 만들어 놓을 철저한 공산주  
의자라는 인상이 강했던 나에게는 좀처럼 이성적  
으로는 물론 감정적으로도 수궁하기 어려운 북의  
선전으로 생각되었다.

오직 나는 《신비의 지도자》로 알려진 그 분에  
대하여 직접 내눈으로 보고 내 이 머리로 판단해  
야 할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이 한평생 선전을 들으며 살아  
왔고 또 그 《선전》에 종사하여 온 까닭에서였다.  
(우리들이 평양에 간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께서 과연 접견해 주실가?)

그답은 전연 미지수, 허나 나는 긍정적으로 믿  
고 싶었다.

그렇게밖에 달리는 생각할수가 없기때문이다.

《여보게 선무군, 저 그림이 16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브뤼겔이 그린 <바벨탑>이 아  
닌가?》

한참만에 다시 내옆에 돌아 와 앉은 한경석이  
명상을 깨뜨리며 잘름잘름한 손가락을 들어 맞은  
편 벽을 가리켜 보였다.

아아한 창공에 감도는 구름을 꿰뚫고 불끈 치  
솟은 원통모양의 거대한 석조건물이 시야에 안겨  
왔다. 그 탑신과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  
감공사를 다그치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었다.

《옳네. 브뤼겔이 1554년에 그린것을 복제한것  
이구만.》 나는 곧 수궁하였다.

《그런데 언제인가 자네 방에 걸려 있던 <바벨  
탑>은 저 그림과 달랐던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내가 기자로 취직한 소식을 안고 자네를 찾아  
갔던 때였던지.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말일  
세.》

한경석은 자기 두뇌의 총명함을 시위하려는듯  
거의나 확신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 그림은 지금도 내 방에 있네... 자네도 몰  
론 알고 있겠지. 옛날 바빌로니아인들이 무엄하  
게도 하늘끝에 닿는 탑을 쌓겠다고 역사질을 시  
작하자 하느님이 대노하여 그들이 서로 다른 말  
을 하게 조화를 부렸지. 그러자 자연 의사가 통  
하지 않게 된 그들은 저들끼리 서로 화를 내고

고함을 치고 싸움질을 하다가 뿔뿔이 흩어 저 끝  
내 공사를 포기하고 말았다는 그 성경이야기 말  
일세. 거 브뤼겔의 그림은 그 성경의 신화를 소  
재로 취하면서도 화가가 자기의 리상을 담았다고  
볼수 있지. 이를테면 인간이 하늘끝에 닿는 바  
벨탑을 쌓을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려고 했을걸세.  
허나 인간은 천재일우의 희미한 가능성과 리상  
에 현혹되어 엄혹한 현실을 망각하고 그릇된 길  
로 인도되기가 심상이지. 그래서 나는 신화그대  
로를 형상한 <바벨탑>그림을 더 좋아 하네. 인간  
의 말은 영원하지 않고 오로지 기록하신 하느님  
의 말씀만이 지극히 정의롭고 불멸하다는 의미에  
서 말이네!》

나는 상당히 긴 말을 뜨직뜨직 아무려한 력점  
도 박력도 없이 단조로운 어조로 외웠다. 자신을  
독실한 불교신자로 간주하고 있는 그의 심중에  
나의 말이 아무려한 흥미도 감동도 일으키지 못  
하리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까닭에서였  
다.

주변의 동향을 예리한 눈초리로 경계하며 내  
말을 무료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듯 하던 한경석  
이 뜻밖에도 나와서 대화에 진지한 자세를 취했  
다.

《참. 자네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옛 대학시절  
이 생각나누만.》 하고 그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말꼬리를 잡아 나꿔챘다.

《그때가 무슨 철학강의시간이었던지 아니면 력  
사토론시간이었던지. 자네는 난데없이 모두에게  
이런 물음을 제기했었지. <하느님에게서 최초의  
말을 받아 안은 인간이 처음 서로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을가?> 하고 말이야. 그때 우리는 모두  
양천대소했지. 바벨탑을 쌓으면 쌓았지 막연한  
그 답은 영원히 찾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자네  
의 순진한 공상을 놀려댔었지. 그러자 얼굴이 수  
수떡이 돼가지고 벌떡 몸을 솟구치던 자네의 모  
습이 삼삼하네. 그래 지금쯤은 그 대답을 찾아  
냈겠지?》

새말간 안경알속에서 마치 새의 눈알처럼 울롱  
하니 커진 그의 두눈을 보는 순간 나는 불현듯  
아득히 흘러 가버린 옛 시절의 그 랭소가 다시  
반사됨을 느꼈다.

나는 머리를 가로 저으며 《난 전혀 그런 기억  
이 없네.》 하고 칼로 베듯 땀땀하게 잘라 말했다.  
무안을 당한 그는 《물론 그런걸 기억해 둘 세  
포야 자네에게 없겠지.》 하고 헛식은 웃음을 지  
었다. 그 찰나 면구해진 우리들은 빠금히 열리는  
출입문쪽으로 일시에 눈을 주었다.

《아, 변혜령사장도 왔군. 그래 안가겠다고 한다  
더니 끌려 가진 가는구만. 하긴 그 녀자는 북의  
초청에 흥정할 체면이 없지. 사상최악의 큰물피  
해를 입고 있는 북의 참혹한 현실을 두고 <이 세  
계의 마지막 사회주의 실체를 수장해 버릴 준엄  
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박수갈채를 보

내던 그 여자에게야 평양방문초청이 너무도 파란만장한 혜택일테니까?》

한경석은 통명스러운 나에게 아예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심산인듯 현숙한 몸차림을 하고 우리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장년의 그 여자에게 눈길을 박은채 설새없이 말을 흘렸다. 그 여자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쓰거운 옛 추억이 얼핏 되살아 올라 나는 저도 모르게 그를 외면하며 고개를 돌려 버렸다.

잠시후 비행기가 리륙하였다.

아득히 멀어 겨 가는 땅세계를 작은 시창으로 내려다 보는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서울의 한 골목길을 더듬어 찾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어느날밤 취재길에서 돌아오던 나는 우연히 불량배들에게 걸려 된욕을 볼번했던 표령의 한 처녀를 구원해 준 일이 있었다.

그가 바로 당시 XX일보사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변혜령, 제노라 하는 경상도출신 국회의원의 외동딸이었다.

우리들은 무척 가까와 졌다.

하나 나에게서 첫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그 비정한 정열은 그와의 그 어떤 마찰도 가슴아픈 상처를 남김도 없이 미미하게 사그라지고 말았다. 마치 야단스러운 소나기뒤의 그 무지개처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도 나는 딱히 설명할 수 없다.

아마 삼국시대이래 천수백여년의 래력을 가지고있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뿌리깊은 반목과 질시의 지역감정이 우리들의 몸에 본능처럼 잠재해있을때문인지, 혹은 먼저 자기의 진정을 고백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존심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지금껏 내가 확신하고 있는것은 변혜령이 쓴 기사를 읽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나의 마음에는 아름답고 총명한 그 여자가 어느날 밤에 그를 욕보이려던 그 불량배처럼 느껴졌던 사실이다.

상아에 흑보석을 쪼아 박은것 같던 크고 희맑은 두눈도 신선한 웃음이 넘쳐 흐르던 선이 부드러운 얼굴도 그전처럼 나의 가슴을 들쭉게 하지 못했다.

그가 부르짖고 있는 북의 민중에 대한 나아가서 인간일반에 대한 악의에 찬 멸시와 증오의 말들이 나의 카톨릭교적신앙심과는 너무나도 천지간으로 떨어져 있기때문이라.

하나 나는 그때의 그 느낌을 그 여자에게 말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와 나는 청춘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서로 다른 생활의 길을 쫓아가게 되었다.

그는 《녀성시보》사장이 되었다.

하나 여자의 다른 이름은 허영과 질투인듯 언

젠가부터 그의 신문에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후원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 우리 교회와 방송공사를 로골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했다.

거의나 잊은듯 했던 그 여자가 내 앞에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새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공갈하는 도전자, 협박자로.

그런데 그 변혜령과 함께 나는 지금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지 않는가. 나는 눈에 티가 들어 간듯 시창에서 얼굴을 돌렸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나는 그 골목길을 찾을수 없을것이다. 고르로운 비행기의 동음은 나를 다시 상념으로 이끌었다. 이 비행기는 지금 어디로 날고 있는것인가?

북에 큰 죄를 진 사람들, 북에 대한 악의에 찬 말을 누구보다 많이 한 이들과 함께 나는 지금 북의 민중에게 사과를 하러 가는것인가? 아니면 벌을 받으러 가는 길인가?

우리들이 평양에 간다면 북조선에서는 과연 어떻게 맞아줄가?

끓어오르는 적의와 경멸감을 애써 제어하고 배다른 웃음을 짓는 그들의 스팅크스같은 분노한 표정들을 떠 올리니 가슴이 섬쩍해 왔다.

나는 그 무슨 말로도 변명키 어려운 자신에 대한 허무감을 느꼈다.

이때 갑자기 비행기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사태를 관망하니 이 좁은 비행기안에서는 벌써 언론계 특유의 입씨름극의 막이 오른것이였다.

제목은 《단장뒤집기》였다.

첫 출연자는 곧잘 자신을 《반정부언론인》으로 표방해오던 매사에 사리정연하고 계산이 밝은 한경석이었다.

《문화부장관님께 내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습니다. 명색으로 보나 대표단 구성으로 보나 명실공히 언론사대표단이요 또 관영이 아닌 언론사가 대다수인데 장관각하가 단장을 하시면 심히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들속에서 신문파로, 방송파로 각기 단장, 부단장을 선출하는게 어떨런지요.》

그의 말에 이구동성으로 호응이 뒤따랐다. 이번 대표단성원들중에서 그중 나이가 젊은측에 속하는 신수멸쩍한 장관은 한경석의 불의의 급소타격을 받고 얼음판에 넘어진 황소처럼 눈만 디룩 디룩했다.

비행기안에서는 1:58이라는 압도적인 역량관계를 배경으로 한 열띤 공방전끝에 더는 배겨낼수 없게 된 단장이 《은퇴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뒤이어 저들 스스로의 《민주주의적인 선거》가 진행되었다.

마침내 2명의 공동단장과 2명의 공동부단장이 선출되었다.

그것은 《국정원》이 미리 내람하지 못한 언론계의 《무혈쿠테타》였다.

(한 덕대의 닭이 한 울음을 운다는데, 참...)  
한숨을 내쉬 나는 시들먹한 눈길로 《천상》에서 《독재》를 타고한 《지상의 승리자》들을 하나하나 여겨 보았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4년밖에 통치하지 못하지만 기자들은 영원히 통치한다》는 미국제 명언을 되뇌이며 정부의 장차관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초학도로 굶어보면서 안하무인격으로 자고자대하는 이들, 서로 부릅뜨고 흘겨보며 남의 어깨를 짚고 발돋움하여 왜가리목을 빼드는 이들의 작태에 신물이 난 모양 며칠전 저 장관은 《앵덩이에 뿔이 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평양에 갈바에는 차라리 돼지 열마리를 물고 가는것이 더 낫겠다》고 개탄했었다.

초록이 동색이라는 속담 그대로 나도 그 말을 들은 첫순간에는 내심 그를 패섬하게 보아왔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권력만능의 닭은 타성에서 벗어 나지 못한 헛내기 정치인으로.

조금전에 기습강행된 《단장뒤집기》극도 바로 장관의 그 경솔한 푸념에 대한 섭섭치 않은 보복 일것이다. 통쾌하게, 깨고소하게 단 하나의 논리로 기세도도하던 정부의 장관에게 급소타격을 안기는데 성공한 남조선언론의 《제왕》들은 제법 득의양양한 기색으로 걸쭉한 통답들을 주고 받으며 떠들어대고 있다. 한경석의 토끼털귀걸이같은 다 불다불한 머리칼들은 제 흥에 겨워하는 무희의 팔 소매같이 너털거렸다.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인간의 혀는 주먹이나 칼, 원자탄보다도 더 무섭게 인간들의 명혼을 무참히 파괴하고 불사르고 말살하는 문명시대의 최대의 악의 덩어리로 되고 있는듯 싶다.

이 세상의 제노라하는 대통령들과 군주로부터 하찮은 결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누구나 다 질시와 악의 말에 시달리고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느님은 왜 유독 인간에게만 말을 주었던가?

문득 나에게서는 차라리 인간이 손짓, 몸짓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는 병어리로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웅심깊고 착하고 행복하지 않을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마저 떠올랐다.

나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옆에 앉은 한경석의 가마미를 굶는듯한 쉼쉼한 목소리가 바늘끝처럼 나의 여린 신경을 더 크게 자극했다.

순간 이발에서 땀나는줄도 모르고 설새없이 《승전의 감격》을 떠들어 대고 있는 그에 대한 불만과 강한 반발심이 옥 치밀어 올랐다.

강제 《은퇴》당한 장관이 사투 축은해 왔다.

《여보게 경석군, 그럼 우리 대표단의 이름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창 신바람이 나 있던 그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비같은 나의 이 말에 의아쩍어 했다.

《<1인독재>를 타고하고 새로운 <4인 소수집단의 체제>를 수립했으니 대표단의 명칭도 그에 맞

게 달라 져야 하지 않겠나. 그야말로 명부상조이지.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그 무슨 <공화국>이요 <정부>요 하는것들이 새로 속출하군 하니 말일세.》

나의 비양거림에 한경석은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럼 그건 자네가 기안하게. 공동부단장으로서 내가 자네에게 주는 첫 특별지시일세.》하고 뻔뻔스럽게 응전했다.

나는 즉시에 《<언돈분렬대표단>이라고 짓는게 어떻겠나.》하고 제안했다. 그것은 《말하는 돼지들의 분렬된 대표단》이라는 뜻이었다.

그의 여윈 얼굴에는 한순간 무안의 빛이 스쳐 지났다.

한참이나 그는 윈볼을 쉴룩거렸다. 그러는 양을 보며 나는 쾌락을 느꼈다. 인간의 성정이 어찌면 모두 이렇게 뻔뻔어졌단말인가?

《너도 역시 그들과 조금도 닮음이 없는 야비한 놈이다!》하고 누군가가 나를 꾸짖는듯 했다. 아마 마음속의 하느님이리라.

불현듯 나의 뇌리에는 이 러개기가 지상에서 쫓겨 난 말썽 많은 《열마리의 돼지》들을 싣고 지옥으로 날으는듯한 착각이 일었다.

비행기의 동체가 기우뚱했다. 비틀린 솜뭉치같은 타래구름들이 휙휙 시창을 날아 지난다. 눈앞이 아찔해났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동행한 후회와 허탈감이 장마철의 비구름떼처럼 밀려 들었다.

요행 일행은 평양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비행기안에서 내린 우리들은 수신탈의 고급승용차들이 마중 나왔음에 깜짝 놀랐다. 기껏 서너대의 버스가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뭘 그리 놀라나. 돼지도 잡아먹기전엔 잘 먹이질 않나?》

한경석이 나에게 시까슬렀다.

그래서라고는 할수 없지만 저녁에는 우리들을 위한 환영연회가 있었다.

축배를 들기에 앞서 북의 해당부문일군이 《여러분,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던가요?》하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모두들 의아스러워 했다. 그러면서도 《7월 6일이지요.》하고 제각 대답했다.

아직 생활의 이모저모에 음력습관이 강하게 남아 있는 남조선을 갓 떠나 온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래일이 견우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바로 그 칠월 칠석이구만요.》

그제서야 의문을 푼 우리들은 일시에 머리를 끄덕이였다.

얼결에 나의 눈길은 변혜령에게 가닿았다.

《여러분, 오늘아침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저희들에게 남측 언론사대표단이 참 뜻깊고 의미심장한 때에 평양에 왔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북남의 언론인들도 리별이 없는 통일의 칠월칠석을 위하여,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

일의 오작교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깨걸고 매진합시다. 우리 함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건배!》

대표단성원모두에게도 그리고 나와 변혜령에게도 흘러 들을수 없는 말이었다.

그와 이렇게 한 음식상에 마주 앉기는 수십년만에 처음일것이다.

취흥이 오르자 나도 그도 서로 멋적음이 없이 마주 볼수 있게 되었다. 마치 되돌아 올수 없는 그 한때의 옛 시절이 다시 돌아온듯.

아, 얼마나 알곳은 운명의 희롱인가. 어쩔수 없는 오늘 저녁의 상봉과 그에 전설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퍼낸 견우직녀이야기, 얼마나 행복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아름다운 인간의 말인가?!

하늘에서 벌여 지는 그들의 감격적인 상봉극을 평양에서 보게 된 나의 마음은 야릇한 흥분으로 설레었다.

연회가 끝난 다음 시내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그토록 칠월칠석까지 셈하시며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크시니 꼭 만나 주실것만 같았다.

어데선가 매미가 땀-땀-하고 우는 소리가 다시금 들려 오는듯싶다.

내가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아, 열정적인 매미울음소리로 시작된 평양방문의 이 첫날!

밝은 해빛 차넘치는 옥음길은 거리들마다에서는 수많은 매미들이 북조선 특유의 연도환영에 펼쳐 나선듯 운치있고 흥겹게 우리를 반겨 맞아 주었었지.

그 고마운 성의에 대해 남조선에서 프로급으로련마한 솜씨를 발휘하지 못해 몸살이 난 한경석은 야멸차게도 어떻게 표현했든가.

(나와 한 침실에 들어 있는 그는 코를 골며 배포유하게 자고 있다.)

《매미들도 이북에서 살다보니 조직생활에 습관된 모양이지. 늘 같은 곡조로 땀땀 하고 성깔스럽게 울어대고 있으니 말일세.》

그때 나는 왜서인지 그의 말을 씹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경석군, 그럼 이남의 매미는 <땀땀>하지 않고 <멍멍>하고 우나?》하고.

## 2000년 8월 6일(일요일)

5.1경기장, 평양산원, 인민대학습당 등 시내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나에게는 그 모든 건축물들이 북의 사상처럼 안겨 왔다. 그에 대해서는 취재수첩에 따로 적어 두었다.

오늘 저녁식사를 마친 뒤였다.

변혜령은 술선 견우직녀의 상봉을 구경하자고

모두를 추동질했다.

아기자기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옛 처녀총각시절로 되돌아간듯 모두가 그 녀자의 애상적이고도 독가적인 발기를 기꺼이 환영하며 밖으로 우르르 쏟아 나갔다.

은하수 비껴 흐르는 맑고 푸른 밤하늘, 공해가 심하여 늘 흐릿해 있는 서울이나 남조선에서는 볼수 없는 거울처럼 새롭고 밝은 밤하늘이 우리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부지중 나의 눈앞에는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그 다음날에 실렸던 《동아일보》의 글줄들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또렷 또렷하게 보여 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엮어 낸 <세기적상봉극>은 질곡과 비탄의 땅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일대 사변이었다.》

두달전에 이땅위에 펼쳐 졌던 그 사변의 련속으로 이 밤 평양의 하늘에서는 또 한차례의 《견우》, 《직녀》의 감격적인 상봉극이 마련되고 있는것이 아닐가.

이때 조금 앞에서 《하늘의 별들도 사랑이 없는 못살겠는 모양이지요.》하는 애수에 축축히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변혜령이었다.

뒤이어 그 녀자가 호-하고 길게 한숨을 토해내는 모습을 띄어 본 나의 심장은 불현듯 후두둑 뛴뛴했다.

련민의 정으로 가슴몽글하게 하는 그런 류다른 박동이였다.

변혜령의 한마디 애달픈 하소가 나에게 느닷없이 오래전에 각별한 젊은 시절의 그 가슴 울렁거림을 다시 안겨 줄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오작교는 어디서 어디로 놓아 졌는가? 누가 견우이고 누가 직녀란말인가? 정녕 누가 평양에서 하늘의 오작교를 건너 간것인가?!...

한경석이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린다.

《땅의 견우와 하늘의 직녀가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었을가? 아마 먼 옛날엔 하늘의 언어와 지상의 언어가 하나였던 모양이지!》

## 2000년 8월 9일(수요일)

자정이 넘었는데도 밖에선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 온다.

아마 밤늦도록 산책하는 변혜령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몇몇 늙은이들일것이다. 나는 왜 한창 사랑에 빠졌을 때 그에게서 문득 혐오를 느꼈던가.

어느날 밤에 그를 욕보이려던 그 불량배들처럼 그 녀자를 보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절대적인 정신적순결과 미를 추구한때문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그에게 이전된 것인가?...

무릇 《고뇌》라는 병은 생의 욕망이 원인이지만 죽음으로 완치되는 피이한 난치의 병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말하고 있다.

아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불쌍한 양을 굽어살  
펴주소서!...

2000년 8월 11일(금요일)

방문일정이 끝나가는 이 저녁 모두가 전에 없  
는 환희와 걱정, 기쁨과 걱정, 걱정과 걱정, 걱정과 걱정  
기쁨했다. 꿈에서나 바라던 소망, 허나 꿈에서도  
이루어 질수 없다고 단념했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우리들을 친히 접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희보를 전해들자 우리  
모두는 박수를 치며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북의 안내일군은 지방에 현지지도를 나가셨던  
그분께서 지금 밤도와 평양으로 오고계시는 중이  
라고 했다.

모두들 래일의 거사를 생각하며 쉬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조금전에 한경석이 나에게 큰 비밀이나 알려  
주듯이 소곤소곤 하는 말이 《선무군, 래일 인터  
뷰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두게나.》하고  
일렀다. 보매 그들은 애초부터 북측과 한 약속은  
안중에도 없었다. 하긴 생존경쟁의 한계를 초월  
하여 생존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남조선의 엄혹한  
사회풍토에서 살아 남은 그들이 어련할라구...

래일의 예측할수 없는 상황때문에 나는 잠들수  
없다. 어떻게 될까? 불안했다.

다른 사장들은 그만두더라도 변혜령과 한경석  
만 놓고봐도 그들의 교묘한 질문의 덫에 걸려 망  
신당한 외국인들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어느때인가 변혜령은 대통령이랍시고 기자들앞  
에 나선 군부독재자를 한마디의 질문으로 개코망  
신시킨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칼부림밖에 모르  
는 군부독재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대통령각하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인가고 물었다. 미리  
예견하고 있던 질문이었던지 그는 여유작작한 웃  
음을 지으며 《예, 하이네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대통령각하, 그러면 당신이 제일 사랑한다는  
하이네 시의 한 구절을 시청자들에게 들려 주지  
않겠습니까?》하고 재차 물었다.

변혜령은 애교있게 웃고 있는데 군부독재자는  
불의의 급소타격에 얼굴이 유자빛이 되어 연방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고...

한경석도 툭툭치 않은 존재이다.

지난 80년대 북에서 우리 남조선의 수재민들에  
게 막대한 량의 구호물자를 보내주겠다고 제의했  
을 때 《트로이의 목마》설을 제창하며 《정부가 구  
호물자를 받았다는것은 곧 북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받아 들이겠다는것과 같다》고 앞장에서  
반대했던 한경석, 반공과 멸공의식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그였다.

이리궁식 저리궁식 뒤척이다 밤늦어 돌아 온  
한경석에게 물었다.

《자네는 그분께 무엇을 질문할 작정인가? 만약  
래일 인터뷰가 허락된다면 말일세.》

그는 나의 물음에 대답하지는 않고 뜻밖에 이  
런 제의를 하였다.

《우리 한번 인터뷰련습을 해보지 않겠나?》

《뭐, 인터뷰련습?!》

《자네가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게나. 자네  
가 나에게 만족한 대답을 주면 난 저래 포기하고  
말겠네.》

우리 둘은 침대에 마주 걸터앉았다.

《통일은 언제쯤 됩니까?!》

듣고보니 별로 까다로운것 같지는 않았다. 나  
는 답을 찾아 모색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른  
다.

《자 선무군, 빨리 대답하게. 내가 참 묘한걸 생  
각해 냈지?》

정말 무어라고 말해야 좋을지 아무리 궁리해도  
잡힐듯 말듯하면서도 씨원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 시기를 딱 짚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추상적으  
로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대답한다면 실망할것이  
다.

《그 질문은 아마 악마가 자네에게 귀뜸해 준  
모양이구만!》

나는 정말 손 들고 나 앉았다.

《그럼 이제는 역을 바꾸세나.》

그는 상당히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기쁨에 절  
어있던 은회색머리칼을 두손으로 올리 끌어 사자  
갈기처럼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한경석의 그 행동이 마치 어  
머니 몰래 농작에서 털귀걸이를 꺼내쓰고 좋아라  
고 새새우는 장난꾸러기 소년같이만 보여왔다.  
지금도 삼복철인줄도 모르는 그 소년같이.

무중 나는 그에 대한 역제할수 없는 강한 반발  
심을 느꼈다.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겠네. <북의 민중이 국방  
위원장님을 칭송하는 현대 신화와 같은 전설들을  
많이 창조하고 있는데 대해 하실 말씀이 없으십  
니까?!>》

한경석은 대뜸 부정했다.

《그건 너무 무례한 질문이 아닐가? 그러다가  
자네가 남북관계를 삽시에 흐려놓을수 있어!》 그  
는 정말 불에 멘 고양이마냥 펄쩍 놀라는 상이었  
다.

《난 꼭 질문하겠네!》 나는 고집스럽게 우겨대  
었다.

그분을 《운명의 태양》, 《민족의 구세주》로  
숭앙하고 있는 북의 인민들이 아마 우리들의 이  
광경을 보았다면 이렇게 표현할것이다.

《그날밤 민중이와 하루살이와 귀뚜라미 등 온  
갖 곤충들이 모여 래일의 아침해를 모해할 음모  
로 날이 밝는줄도 모르고 있었다.》

2000년 8월 12일(토요일)

목란관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긴장한 마음을 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상봉의 시각을 고대하였다.

기다린 시간은 몇분 안되었지만 순간순간이 천년같이 길어보였다.

김포비행장에서 한경석과 함께 브뤼셀의 《바벨탑》을 보며 심중에 스며드는 위구와 불안을 애써 억누르느라 전전긍긍하던 그때가 떠올랐다. 이제 몇분후면 뵈게 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엄엄한 인상이 환영처럼 안겨 오면서 그때보다 더욱 심기를 불안케 했다.

너무도 변화무쌍하고 자유분방하여 적대국인 미국의 수많은 두뇌진들과 컴퓨터들도 차후의 향방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해주실가.

반공일선의 맹견들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들이 그분에게 얼마나 가슴아픈짓을 많이 해왔던가!

용서와 자비를 바라는 죄인에게 있어 눈앞에 닥쳐 온 판결의 시각은 천년처럼 길어보이는 법이었다.

정각 12시.

《여러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나오십니다.》 하는 안내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흠칫 몸가짐을 바로하며 활달한 발걸음소리가 들려 오는쪽을 응시했다.

드디어 패기있는 걸음으로 드넓은 홀을 가득 채우며 나오시는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구름사이의 해빛처럼 강렬하게 안겨왔다.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신다.

순간 나는 자신이 그 어떤 강렬한 자기마당속에서 있는듯 심장이 세차게 뼑뼑과 동시에 온몸을 초긴장케 하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령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듯한 류다른 정신적양양이 삶시에 나의 심신을 휩쌌다.

나는 평소보다 더 잘 볼수 있고 더 잘 알수 있었으며 더 잘 느낄수 있는듯, 헤아릴수 없는것도 헤아릴수 있는 초능력을 받아 안은듯 싶었다.

그분께서 6.15 그때처럼 오늘도 입고 나오신 수수하고 소박한 옷차림은 그분의 안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가항력의 신비와 위엄에 너무나도 꼭 어울렸고 그이의 인품을 한결 돋구어 주었다. 활동적이고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그분의 강한 개성에 맞는 옷맵시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반갑습니다.》

찌렁찌렁하신 그분의 음성은 나의 귀전에 공명을 일으키며 사면팔방에서 들려 왔다.

그분께서는 일별 종대의 맨 앞에 서있는 공동단장들이 이어 한경석 등 부단장들과 악수를 나누시었다.

그들이 뒤로 물러서자 다른 사장들이 그분께

다가가 자기 소개를 하며 인사를 드렸다.

《<녀성시보>사장 변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혜령사장!》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성이 깃든듯한 광채로운 눈에 함뿍 웃음을 담으시고 변혜령의 작은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었다.

《만록총중에 홍일점이라고 온통 령감들뿐인데 그래도 녀성사장이 한명 있구만. 조선녀성들에겐 역시 조선치마저고리가 제일이지. 정말 잘 어울리요. 첫날웃을 입은 새색시같이 보이니말이요.》

자못 엄숙하고 딱딱하게 흐를수 있는 초면의 분위기를 그분께서는 허물없는 룡담으로 화락하게 만드시었다.

그이의 말쑥에 변혜령은 부끄러운듯 희맑은 얼굴을 봉선화꽃물로 물들이었다.

말기우리해져 더 생기발랄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정겨운 눈길로 굽어 보시던 국방위원장님께서 《변혜령사장, 남쪽에 아직 남존녀비가 많은것 같구만.》 하고 물으시었다.

《예. 아직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에는 남존녀비가 없습니까?》

예견치 못했던 뜻밖의 수집음으로 주눅이 들었던 변혜령이 가까스로 평소의 자신을 다잡은듯 무람없는 질문을 드리었다.

《아직 조금은 남아있소. 남녀평등이란 말이 있다는것은 곧 남존녀비가 얼마간이라도 남아 있다는 의미로 리해하여야 할거요.》

그분께서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쉬이 분간키 어려운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모두들 놀라운 눈길로 국방위원장을 바라보았다.

나도 놀랐다. 나의 인생체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고백하는것은 대체의 경우 타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나쁜 인상을 솔직함으로 몰래 바꿔놓기 위해서이다.

허나 북에서 실시하는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입부리 사나운 우리 언론에서도 감히 시야비야하지 못한 문제였다.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아직도 생활의 구석구석에 도덕관념처럼 남아 있는듯싶은 남존녀비를 대뜸 《남녀평등》이라는 정치적과제의 미완성으로 치부하시는것이 아닌가. 대단히 개방적이고 두려울 정도로 지극히 솔직하신분이시라는 첫 인상이 우리 모두를 그이의 비범한 인간적매력에 스펀없이 끌려들게 하였다.

그럴수록 비전향장기수 김선생에게서 들은 그분의 류다른 인정미와 거례에 대한 사랑의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들이 죄 사실임을 순간에 믿고 싶어졌다.

북은 오로지 진실만이 통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인간들의 마음은 모두 진심이며 아름답다는것을.

점점 그분이 나에게로 가까이 한결음한결음 다가오심과 동시에 떠오른 이 령감, 그것은 거의 나룩감에 가까운 초자연적인 직감력이기도 했다.

물론 이전에는 한번도 자신에게 그러한 초능력 있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었지만.

《<런대성>방송공사 사장 정선무입니다.》

긴장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다듬으며 나는 정중히 자기 소개를 하고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반갑습니다.》

단마디로 빠르게 내소시는 무뚝뚝한 인사말 같았으나 그분의 웅글은 목소리에서 흘러 나오는 친근감과 부드러운 사원의 저녁종소리처럼 나의 온 심신을 포근히 감싸 안았다.

《사장선생은 젊은 시절에 프로레스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굳어진 표정을 일별하신듯 그분께서는 호방하신 어조로 물어주시었다.

역시 순간포착에 대단히 능하신분이시였다.

《아닙니다. ... 제가 어떻게...》

《선생만한 체격이면야 젊은 시절에 꽤 힘을 휘둘러 볼만도 했을겁니다. 제2의 력도산이 되어서 말아요!》

고정격식화된 관례와 틀에서 벗어난 인상깊은 대면의 한 순간이였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분의 당당한 자세에 절로 주눅이 들고 그분의 밝은 웃음과 유모아에 두려움조차 느끼게 되는것은 대체 어인 까닭인가.

초면인사를 마치신 그분께서는 촬영대로 다가가시여 전체 사장단성원들에게 한손을 쳐드시고 《환영합니다.》 하고 다시금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약속이나 한듯 사장들은 일제히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불과 몇분동안에 유모아와 웃음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열어보이신 그분의 겸허한 인품에 반하여 대표단성원모두가 심장의 문을 통채로 열어 제낀듯싶었다.

집체촬영에 이어 공동단장, 부단장들과의 촬영 등 예정된 기념촬영이 모두 끝났을 때 국방위원장님께서 《변사장, 이리 나오시오.》 하고 짹짹 손짓으로 저변에 서있는 그를 불러주시였다.

《기념이 되게 특별히 한장 잘 찍어 봅시다.》

그분의 느닷없는 배려에 변혜령은 몸둘바를 몰라 두손을 맞잡고 한동안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러나 그도 한순간, 마침내 그 녀자는 국방위원장님옆에 나란히 섰다.

나는 벽에 걸려 있는 대형삼지연봇나무 그림을 배경으로 죄많은 변혜령과 함께 서계시는 국방위원장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놀라운 마음으로 우러러 보았다.

그 녀자는 아직 그분께 속죄의 말씀 한마디 울리지 못했는데 그의 죄를 묻기에 앞서 다심한 정과 아량을 베푸시는 그분의 관대와 도량은 복조

신사람들이 즐겨 쓰는 상징어 그대로 마치 우주의 가장 높은곳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차별 없이 생명의 빛을 뿌려 주는 태양같다고나 할지.

이때 사진기의 섬광이 번쩍했다.

아직도 그분의 팔을 잡고 육체적구원을 초월한 령적구원속에서 있는 변혜령이 처너로, 다시 선너로 보여왔다.

그것은 건강미가 넘쳐나는 국방위원장님의 안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화와 순결의 밝은 빛이 창조한 신비의 기적인지도 모른다. 여지껏 김선생을 비롯한 남의 비전향장기수들에게서 느끼던 마음의 고결한 빛은 바로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빛의 반사가 아니였을까?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떠오르는 생각에 사뭇 마음이 승엄해졌다. 잠시후 국방위원장님께서 구면친구처럼 량옆에 공동단장들의 팔을 끼시고 격식없는 룡도 나누시며 오찬회장으로 들어서시였다.

오찬이 시작되였다. 장내에는 길다란 주탁과 그앞에 두줄로 나란히 줄맞춰 대여섯의 큰 원탁이 놓여 있었다.

그분께서는 《변혜령사장, 이리로 나와 앉으시오.》 하고 나와 한 원탁의 그를 패기있는 손짓으로 자신곁에 부르시였다.

그이의 뜻밖의 부르심에 변혜령은 조금전보다 더 당황해 난듯 되우 송구하고 어쭙은 눈빛으로 함께 자리한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 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창황중 그는 더욱 몸둘바를 몰라 하는듯 했다.

만장의 시선이 집중되는속에 국방위원장님 가까이 몸을 웅송그리며 자리를 정한 변혜령은 한순간에 자그마한 소녀로 변한듯 싶었다.

국방위원장님의 그 한번의 손짓으로 인한 위치변동이 오찬회참가자들의 마음속에 끼친 심리적 진동은 과격적이라 할만치 대단히 큰것이였다. 나는 그것을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썩인다는 아버지의 자애의 성정으로밖에 달리 리해할수 없었다.

먼저 국방위원장님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 불처럼 뜨거운 액체가 나의 온몸을 핫-달아 오르게 했다. 여러 사장들이 저저마다 그분께 다가갔다. 그들속에는 한경석의 모습도 보였다.

국방위원장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인사를 받아 잔을 짚어 주시며 사의를 표하시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선뜻 그분께 인사를 올리려고 나갈수 없었다. 어제밤의 일이, 그 《음모》가, 그 죄의식이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열결음 못미쳐 앉아계시는 국방위원장님과의 거리간격이 몇천, 몇만리로 멀어보였다.

나는 답소하시는 그분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마음도 한껏 흥알이 풀어졌다.



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서울에 언제쯤 오시겠습니까?》하고 변혜령옆에 앉아 있던 금태안경의 방송공동단장이 머뭇머뭇하며 물음을 드렸다.

모든 오찬회참가자들의 기쁨과 행동은 일시에 정지되었다. 그들은 숨을 죽인채 그분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분께서 정녕 그 외람된 물음에 대답을 주실것인가? 아니면 노하신 책망?... 일각이 삼추갈았다.

나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도다!》하고 긴장과 불안이 섞인 어쩔수 없는 마음으로 그이를 주시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밟고 있는 듯한 심정이였다.

《서울말입니까?》 그분께서는 방금전의 화기로 온 표정을 흐트리지 않으시고 혼연히 되물으시였다.

그분의 안광에는 무척 친근하신 정희가 어려 빛났다.

《적절한 시기에 가겠습니다. 될수록 빨리 서울에 가야 할텐데...》

분명 그분께서는 비위살 좋은, 그의 이 질문을 독자들에게 한시바빠 새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는 언론인의 직업적인 타성으로부터 오는것으로 아량있게 대해 주시는것 같았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신다면 우리 언론사 전체 성원들이 펼쳐나서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께서 한손을 들어 보이시였다.

이어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공백을 메꾸려는 듯 《남북수뇌분들을 시드니올림픽에 초청할 경우 시드니에 가시겠습니까?》하고 변혜령이 촉기빠르게 말씀올렸다.

나는 민망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그분의 남다른 배려를 받은 그 여자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리라고 예측했던 나였었다. 즉석에서 그분의 말씀이 튀어나왔다.

《시드니에 가서 배우노릇을 하기보다는 내 민족이 사는 서울에 가서 동포들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순서를 봐도 응당 그래야지요.》 별로 생각해보실 시간적여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다소 해학적으로 거침없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우주가 비낀 하나의 물방울을 보는듯싶었다.

《웁습니다. 장군님.》

변혜령이 너무 기빠 열렬한 박수로써 긍정의 뜻을 표하자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듯 자리를 차고 일어나 그분께 우뢰같은 박수를 보냈다. 각

일각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 번졌다.

그이의 통쾌하고 결렬하신 인품에 감복되어 가뭇 시장기를 잊고 수저를 놓고 있는 사장단성원들을 둘러보신 국방위원장님께서 《자, 금강산

도 식후경이라는데 사장선생들, 어서 방금 내온 이 불고기리리를 들어보시오.》 하고 사뭇 명령조로 장내의 모두에게 권하시였다.

《변혜령사장도 내우를 말고 어서.》 거침없는 말솜씨와 당당한 행동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신 국방위원장님께서 그의 앞으로 손수 접시를 밀어 놓으시였다.

《이건 하늘소고기입니다. 아마 별맛일거요.》

《예? 하늘소고기란 말입니까?... 우리 나라에 천우란 짐승은 없지 않습니까?》

그이의 말씀을 술곳이 듣고 있던 변혜령도 그렇게 모두의 눈이 대뜸 휘둥그래지며 그분께서 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물론 하늘소라는건 우리 북에만 있는 특산물은 아니고 이전에는 북남모두가 하늘소라고 불렀지요. 그것을 **김일성** 주석님께서 고쳐주시였습니 다. 주석님께서 동물원에 가실적마다 하늘을 향해 대가리를 쳐들면서 운다고 하여 하늘소라고 이름을 바꾸어주셨지요. 한 동물인데도 표현이 다르니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구만. 인간생활에선 뭐니뭐니해도 역시 말이 제일 중요하단말입니다.》

국방위원장님께서 즐겁게 웃으시였다.

말에 대한 그이의 견해가 더 피력되었으면싶었으나 아쉽게도 그분께서는 화제를 다른데로 돌리시였다.

《한 3~4년전에 남쪽신문에서 내가 본것같은데 거기에는 언론계의 어느한 녀성사장이 금융위기의 늪에 빠져 파산직전에 처한 신문사를 구원하려고 3층짜리 자기 저택까지 저당잡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 다. 나는 그 기사를 읽고 참 용감하고 자존심이 강한 조선의 녀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자본의 탐욕스러운 마수로부터 민족의 뱃과 정신을 지켜낸 애국적소행이라고말입니다. 그 녀장부가 혹시 변혜령사장이 아닙니까?》

《예. 바로 이 변사장입니다.》

한경석이 대답올렸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자기 신문사에서 그 기사를 취급했던적이 있었음을 상기해낸 모양이였다.

그이의 비범한 기억력에 탄복되어서인지 사장들은 오래도록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이의 말씀이 나에게는 곧 나자신에 대한 은근한 질책으로 들려왔다. 변혜령의 그런 행동을 놓고 나는 이제껏 녀성의 집요한 소유욕과 출세와 공명에 들뜬 허영심의 발현이라고만 보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래서 국방위원장님께서 초면의 그를 그렇듯 구면지기처럼 각별히 대해주시것이 아닐가?

라인의 결점이나 악이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을 먼저 보시고 사랑하고 믿을줄 아시는 그분은 역시 장군이시였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자

신의 심신에 엄습해 오는 허무와 무력감을 느꼈다.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이 아니라 악과 결점만을 본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인인가, 아니면 악한이었던가?

(민족의 넋과 정신을 지켜낸 애국적소행!)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귀전을 맴돌이 할수록 자신에 대한 수치와 혐오로 얼굴이 뜨거워졌다.

《천주 김씨의 시조묘를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는 오시지 않겠습니까?》

《미국과의 수교는 언제쯤 될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언제 실현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이 **김정일**장군님의 인터뷰에 참가하고 있는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듯한 사장들의 질문은 무례하다할 정도로 극성스러웠다. 하나 그 누구도 자신들의 그 행동이 세계정치사와 언론사에 아직 그 류례가 없는 최초의 인터뷰임을 의식하지 못했다. 나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치차처럼 맞물려 런속 들이대는 질문들에 그이께서는 즉석에서 단마디 명창으로, 때로는 해학적인 표현과 웃음으로 말씀 마디마디에 열백가지 깊은 의미를 담아 속사포와 같이 빠른 언변술로 듣는 사람모두가 대번에 속이 후련하게 하시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안심할수 없었다.

한경석은 아직 자기의 《시한탄》을 선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은 사정없이 흐르고 있는데...

《두달전에 북과 남은 6.15 공동선언에서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단합해서 통일의 문을 열데 대하여 전 세계앞에서 확약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국가를 세우고 문명을 펼쳐 온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조선민족이 그래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끼리 통일을 이루지 못한단말ियो.

남남끼리도 아닌데말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남의 강요에 의해 갈라졌던 부부가 다시 만날 때에도 단계적으로 재화합한답니까? 서로 만나서 포옹하고 오해를 풀면 되는거지 일부 사람들처럼 그 무슨 <상호주의>요 뭐요 하는 보따리 장사군같은 피이적은 론거를 들고 나와 문제를 까다롭게 해서는 백년이 가도 평화통일이 안됩니다!》

그이의 허심탄회한 어조는 안타까움과 절박함에 무척 갈린 음성이었다.

《우선 남의 잔치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참견하는 불쾌한자들이 없어야지 그랬다간 그 자들의 통락물이 되어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다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고 또다시 노예가 되어 남부녀대하고 유대민족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말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국방위원장님!》

《만고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정적이고 재빠른 장군님의 격하신 말투와 그이의 섬세한 표정가짐, 그리고 매 말씀 마디마디를 그루박는듯한 민첩한 손세는 그대로 그이의 말씀이 추호의 의문도 없는 진리임을 강조하는듯싶었다.

온 오찬회장이 떠나갈듯 우리들은 간단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불쑥 한경석이 일어섰다.

《저, 국방위원장님!》 하고 그는 쭉뚝쭉뚝 머리카락이 일어서는듯 부자연하게 한손으로 옆머리를 문다지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허리굽히며 원손을 가져다낸다. 마치 가슴에서 그 무엇을 꺼내려는것처럼.

나는 속이 철렁했다. 짜장 한경석이 어제밤의 그 모의인터뷰를 현실로 전환시키려는것인가?! 흥기처럼 빠르게 나온 그의 울대뼈가 급격히 수직으로 오르내린다.

《통일은 언제쯤 됩니까?》

모두들 긴장해졌다.

그분께서는 그것은 우리가 마음먹은데 따라 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좌중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통일은 북의 의지와 결심여하에 따라 간단말인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하여 그분의 말씀이 울렸다.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과 또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이 단합하여 기어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품고 일떠설 때 바로 그날이 통일이 되는 날일것입니다.》

《!》

그분께서 표현하신 《우리》란 곧 전체 조선민족이였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장선생들이 일일천추로 통일을 갈망하는 남녘겨레들의 마음을 안고 평양으로 왔다고 고맙게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통일애국에 불라는 선생들의 그 대용단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전에 우뢰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능숙한 회화술로 시종 장내의 심금을 틀어 쥐신 그분의 기지있고 명쾌하신 그 대답은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크나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분이 즉석에서 하시는 말씀 마디마디는 우리들이 어쩔새없이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렇듯 아름답고 고상하고 환희에 넘친 사랑의 언어였다.

그분께서는 태연하신 낯빛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와 힘을 믿습니다.

믿을것은 우리 민족뿐이며 다른 나라 친구와는

다릅니다. 그러자면 덮어 놓을것은 덮어 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비로소 용기를 얻은듯 방송공동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 관용을 베풀어 줄데 대한 소망을 정중히 아뢰었다.

《용서고 뭐고가 없습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민족의 통일위업실현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따져 묻지 않을것이며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어제날의 실언도 불문에 불일것입니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대환호속에 또다시 터져 나오는 박수갈채!

림기응변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진정에 겨웠고 소박하다고 하기엔 너무도 탁월한 철리가 비낀 명언이라 할가.

그분의 숭고한 사랑의 경륜을 이 순간에 다 보는듯싶었다.

(아, 하느님의 박애보다도 더 큰 사랑과 포용력으로 죄많은 우리들을 품안아 주시는분, 이런 분이시기에 북의 민중이 그리도 흠모하며 어버이로 모시고 떠받드는것을 나는?!...)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새로운 신화와 전설의 목격자로 되고 있는 나의 심장은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신비와 무아경에 도취되었다.

(어제날의 실언도 불문에 불일것이다!)

나는 그이의 말씀과 억양을 노래처럼 따라 외었다.

역시 말이 문제였다.

남조선의 정치인들에게도 또 우리 언론인들에게도 그리고 분쟁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대소민족들에게도!

북의 한 일군이 장군님께 회의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려 드리었다.

《회의는 좀 기다리라고 하시오. 남녘동포들과 만나는것이 회의하는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뭐니 뭐니해도 민족의 통일보다 우리에게 더 긴급한 중대사가 어디 있겠소.》라고 말씀하신 장군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사장들에게 술을 부으라고 하시었다. 오찬은 이제 시작된듯 싶었다.

《사장선생들은 자신들의 기본활동수단인 언어가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서 큰 역할을 놀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하고 나는 학창시절에 생각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의 사명, 그 본래의 의미는 사랑과 화목, 단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싸우기 위해 생겨난것이라면 인간은 아직도 류인원으로 남아 있었거나 혹은 야수가 되어 서로 물고 뜯으며 사멸되화되어가는 가련한 존재로 되었을겁니다.》

잠시 동안을 두셨던 장군님께서 《나는 언론이 시대의 나팔수이고 량심의 거울이라는 극히 일반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리용하는 말

의 본태를 놓고 또 현시기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비극을 놓고봐도 응당 이땅의 참된 언론인들은 대결이 아니라 민족의 단합을,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를 위해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번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 그 무엇인가 섬광처럼 나의 뇌리를 쳤다.

(아, 말의 본태!)

《국가간의 대화라는것도 바로 증오와 대결이 아니라 화목과 리해를 목표로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조미대화를 제기하고 실현시킨 것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였습시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적의의 감정을 가지고서는 설사 대화를 한다해도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적의와 악에는 주먹이, 오직 정의의 무쇠주먹만이 유일한 처방입니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억세게 틀어 쥐신 주먹을 내보이시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증오, 악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북남언론기관들이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것은 6.15북남공동선언에 못지 않는 중대한 역사적사변이며 분별 50여년만에 북남이 공동으로 말의 본태를 찾고 통일언론의 탑을 쌓은 의의있는 장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나의 눈앞에는 바벨탑의 처참한 폐허가 찰나적으로 련상되었다.

바로 그것이였다!

나는 그분의 접견을 받은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대화들을 곰곰히 되새겨 보았다. 나에게는 다름아닌 말의 본태가 오늘에 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진행처럼 생각되었다. 더우기 평양상봉 전 기간에 그분의 언행을 목격한 남조선과 세계언론계에서

《**김정일**령도자는 보통대화하듯 세상만사에 대해 즉흥적이라고 할만치 자유분방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줄 아는분입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갈마들을 어찌할수 없었다.

여기 평양으로 오기전 김포비행장 귀빈실에서 보았던 《바벨탑》과 비행기안에서 인간의 말에 그토록 혐오를 느꼈던 일이 정지된 화면처럼 순간순간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곤 했다.

그렇다. 나는 끝내 하늘끝에 닿는 인생의 바벨탑을 쌓았다.

그 탑의 정점에서 나는 비로소 오늘에야 인간이 나는 최초의 대화를 찾았다. 하늘의 목소리처럼 신비하게 거룩하게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 그것은 말을 할줄 아는 인간으로 태어나 나자신을 자각한이래 지금껏 괴롭혀 온 인생숙제에 대한 명답이였다.

오랜 세월 나의 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던 의문의 구름이 점차 벗겨지기 시작했다.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오던 원시인들이 항시적

으로 받던 맹수들의 위협과 자연의 횡포에 도전하면서 리용하였던 그들의 첫 교제수단인 몸짓과 손짓의 의미는 무엇이였으며 뒤이어 발견한 언어-그들이 한 첫 말은 무엇이였을까?

공동생활에서 단결과 협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전제로 한다. 하다면?...인간이 한 첫말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 일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의 귀전에는 이 거룩한 사랑의 말이 웅글게 메아리치며 들려왔다.

아마 그 말이 인간이 인간에게 한 최초의 첫말이리라!

그이의 론리에 이끌려 나는 지도 모르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한 자신을 의식하였다.

울줄밖에 모르는 젖먹이 갓난 아이와도 같은 나에게 비로소 말이, 인간의 참된 사랑의 말이 탄생하였음을.

《말의 본태를 찾은 우리 민족은 단군의 후손으로서 하나가 되어 자주적으로 살려는 민족의 본태대로 기어이 삼천리 강토우에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입니다. 머지않아 맞게 될 21세기는 우리 조선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들의 맨 앞장에서 자기의 존엄과 무궁무진한 능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발양하는 위대한 세기로 될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분의 선언이었다.

나는 장내를 둘러보았다. 한사람 한사람 여겨 보았다.

한경석도 변혜령도 3시간전의 그들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보여왔다.

무던히도 선량하고 믿음직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었다.

아, 무슨 힘이 그들을 정화시켜 주었는가. 나는 여기 평양에서, 사랑의 말이 충만된 이땅에서 오늘에야 처음으로 이루지 못한 첫사랑과 깨어진 우정에 대한 가슴아픈 후회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황혼무렵에 닥쳐온 너무도 때늦은 후회였다. 억장성이 무너지는듯한 허무감이 나의 온 심신을 휩쌌다. 하지만 인생에는 윤달이 없지 않는가.

이때 장군님께서 앞의 오찬탁에 앉아 있는 나를 손짓하시며 《프로레스팅사장, 여기로 나오시오.》 하고 부르시었다.

모두의 눈길이 나에게 모아졌다.

드디어 운명의 시각은 닥쳐 오고야 말았다.

나는 뛴뛴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며 운명의 부름에 이끌려 한걸음 두걸음 걸어나갔다. 자신이 내뿔었던 증오와 거짓과 악의 말들을 락업처럼 밟으며, 자신의 인생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며 스펙트릭 걸음을 옮기는 나는 갓 말을 배운 최초의 인간으로 현세의 하느님앞에 다가서는듯 싶었다.

《소도 한마리, 닭도 한마리라고 이 오찬회에서 또 큰 신문사나 방송공사에만 특권을 주면 안되지요. 크나 작으나 다같은 사장들인데 선생이 종소언론사를 대표해서 나의 이 술을 받으시오.》

장군님께서 《백두산들쭉술》을 잔가득 나에게 부어주시며 권하시었다. 두손으로 조심히 술잔을 받아 들었다.

나의 얼굴은 죄의식과 걱정으로 하여 더욱 조각처럼 굳어지는듯 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정사장은 기자생활을 몇년 하였습니까?》 하고 물어주시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나는 《거의 30년이 됩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올렸다.

《그러면 그 80%는 반북선전을 해 왔겠구만.》

질책도 타매도 아닌 천하의 모든것을 한손에 넣은 위인의 큰 도량으로 가볍게 웃으며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아마 나만이 아닌 모든 언론사장들이 허무해 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을것이다.

취죽은듯 장내엔 숨소리 하나 들려 오지 않았다. 피로운순간이었다. 그 순간은 천년이나 되는듯 끝없이 길게만, 길게만 느껴지는 고통의 천년같은 순간이었다.

이때 그 무슨 집에 이끌렸는지 나는 버쩍 얼굴을 들었다.

《국방위원장님앞에서 제 오늘 이 술을 속죄의 술로 알고 마시겠습니다.》

전혀 내 목소리 같지 않았다.

《만나자바람에 속죄부터 하겠다니 정사장은 뭐가 혼돈한것 같구만. 나를 로마법왕으로 말이요.》

그분께서는 진정 놀라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었다.

《일없소, 정사장. 북을 적으로 보았다면야 반대하는게 응당한게지. 사내답지 않게 뭘 그리도 웅졸하게 생각하오. 과거보다도 래일이, 말보다도 실천행동이 더 중요한게요. 자, 어서 술을 마시오!》

그분께서는 술잔을 든 나의 팔을 가볍게 들어 올려 주시었다.

맑은 술이 찰랑찰랑 흔들렸다.

가슴이 뭉클, 눈곱이 찌릿해 났다.

인간의 아름다운 언어를 욕되게 한 나의 온 심신에 엄습해 오는 자책과 후회, 타매의 밀물!

《장군님, 장군님앞에서 오늘 이 정선무 속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에야 똑똑히 알았습니다. 어이하여 북의 민중이, 아니 온 겨레, 온 세계가 령도자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가를.

북조선으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평생을 웨쳐대던 이 정선무는 령도자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남으로 가는 력사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제 혼신을 강그리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믿어주시시오.》

무상의 희열속에 용용히 뛴뛴의 나는 심장은

이렇게 참회하고 있었다.

나는 승자앞에 무릎꿇고 있는 적수도, 패자도 아니었다.

나는 다만 불초불효한 이 나라의 한 자식일뿐이었다.

갈증난 사람이 정신없이 물을 들이키듯 잔에서 입을 떼지 않은채 그렇게 꿀꺽꿀꺽 술을 마셨다.

이때 《장군님!》하고 변혜령이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의 손에도 술이 찰랑이는 커다란 잔이 들려있었다.

《국방위원장님, 저도 이 술을, 속죄의 술을 마시겠습니까!》

《장군님, 저도 마시겠습니다.》

한경석도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의 모습이 거인처럼 인상깊게 안겨왔다.

《장군님, 저에게도 다시한번 술을 주십시오!》

나는 대답해 줬다. 아니, 무례해 줬는지도 모른다.

그분께서는 대단히 만족해 하셨다.

우리 셋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 받으며 서로서로들 잔을 찼었다.

그 소리는 우리 개개인의 증오의 말이 붕괴되는 소리였고 헛된 인생의 붕괴를 찬미하는 아름다운 음악이었고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불신과 적의, 반목의 근원이 송두리채 붕괴되어 울리는 장엄한 대교향악이었다.

나는 만취하도록 마시고 싶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실컷 취하고 싶었다. 넓어진 인생과 수많은 평생을 나의 온몸을 활활 불 태워 주는 이 술로 깨끗이 씻고 정화할수만 있다면, 천지의 물로 만든 이 《백두산들쭉술》로!

그분이 부어주시는 술을 세번째로 마시고 나는 자리로 돌아 왔다. 그러나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거뿔했다. 진정을 모르는 나의 마음은 끝없이 그분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장군님, 이세상의 많은 인간들은 오늘은 이런 말을 하는 <나>가 되고 래일은 또 전혀 다른 <나>가 되어 자신과도 싸우고 타인과도 다투며 다른 민족과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본태를 잊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름다운것은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름답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직 인류는 따뜻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말을 잊었기에 인간탄생이래 수백만년에 이르는 오늘까지도 행복의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장군님은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그리고 말의 본태를 외곡해 온 우리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말, 거룩한 하늘의 말을 주고 계십니다. 장군님은 우리들을 <열마리의 패지>로가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할줄 아는 인간으로 대해 주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분이십니다! 언어와 피줄, 풍습

이 같다고 하여도 말의 본태를 저버리면 한 형제도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수 있다고 우리모두가 스스로 깨닫게 하여주시는 당신은 품고계시는 속마음도 표현하시는데 말씀도 보여주시는 행동도 오직 사랑, 그 하나로 통일된 유일한 위인이십니다.

인간의 말의 본태를 순결하게 지니고 계시는 당신을 닮아야 민족이 통일되고 인류가 통일됨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의 내면독백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광복이래로 줄곧 단군민족의 본태대로 분열된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심혈을 쏟아 부었고 사상도 정치도 《하나》로 실현해온 북조선을, 비전향장기수들처럼 《하나》밖에 모르는 궁지높은 인민이 주어진 북조선을, 하나에 하나를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일찌기 유년시절부터 체득하신 **김정일**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북조선을 숭배 《둘》만을 고집하며 추구해 온 남조선은 절대로 당해내지 못할것이다.

《통일의 그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는 통일언론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대의 선도자이고 정의로운 투사로서의 언론인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다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날 오찬의 마지막에 들은 장군님의 육성이었다. 내가 찾던 인간의 말, 민족의 참된 언어는 장군님의 그 숭고한 인간애, 민족애의 말씀이었다.

나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 내렸다.

나는 그 눈물을 정히 손바닥에 받아 들었다. 그런 눈물로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던 야수의 때를 한점한점 벗겨 나갔으며 또 지금 이 시각에도 씻고 있는것이 아닐가?!

나는 자신이 그렇게 취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음을 전연 의식하지 못했다.

숙소로 돌아와 아이들처럼 배를 드러내놓고 실컷 만잠을 자고 깨어나니 입안이 꿀맛 같았다. 나는 해가 설핏해 진 대동강변으로 나갔다. 어디선가 땀땀-하고 매미가 운다. 나는 버드나무우를 올라다 보았다. 무엇이 살아 꿈틀했다. 한마리의 매미가 허울을 벗고 있었다.

(매미야, 너는 비록 남들보다 늦긴 했어도 성스런 이땅에서 끝내 모든 번뇌와 고뇌에서 해탈하여 태어났구나!) 나는 순진한 소년이 되어 유보도에 떨어진 매미허물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이건 나, 이건 변혜령, 이건 한경석, 또 이건... 하며 보물처럼 줍어 들었다. 이 저녁에도 마음은 그분께로 달려간다. 아, 정녕 잊을수 없는 한 여름날의 대화였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미래의 대화였고 하느님과 언어를 모르던 최초의 인간들과의 대화였으며 《하나》와 《둘》의 대화였다.

문득 그분과의 대화는 오늘날만이 아닌 우리가 평양에 도착한 그 첫날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님의 품에 안겨 인간의 첫 말을 배우는 아기로 다시 태어난듯싶은 부활의 뜻 깊은 하루였다.

환희로운 령감에 사로잡힌 나의 귀전에는 따-따-따 통일의 나팔수가 부르는 랑랑한 진격의 나팔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와 함께 거대한 대돌이, 력사의 대돌이 보여 온다. 그 대돌우로 《통일 언론대표단》으로 성장한 58명 사장들이 올라선다.

그들의 모습은 모두 늙고 뚱뚱하고 이마가 벗어지고 안경을 낀 두눈을 희번뜩이고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사장들의 우습강스럽고 부조화된 모습이다. 허나 오를 때와는 달리 그 력사의 대돌우에 올라선 아니 통일의 한 덩대우에 올라선 그

들의 모습은 하나하나가 젊고 아름답게 보여 온다.

그들속에 서있는 나도 변혜령도 한경석도.

《**김정일** 장군님은 정말 멋있는분일세. 대범하신 인품이나 용모에서뿐아니라 한마디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도 모두다 멋이 있어!》하고 걱정을 터뜨리던 한경석의 말이 끝없는 공명을 일으키며 사방에서 메아리쳐 온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증오와 대결의 말이 붕괴된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으로는 백두산의 해돋이가 밝아오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그 빛을 받아 지구에 가을빛으로 더욱 풍만하고 아름다와질 통일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 눈보라속에 흐르는 불빛

문동식

1

울부짖는 눈보라속에  
깊어 깊어 가는 엄동의 이 밤  
내 눈에 보이는 한점의 불빛  
험한 령 눈 덮인 숲사이로  
언뜻언뜻 비쳐지며 달리는 불빛  
한순간 가파로운 절벽에 비끼고  
또다시 오불꼬불 비탈길에 굽이치고  
잠시 얼음 덮인 강물에 어리고...  
길은 눈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눈발속에 흘러 가는 불빛은  
이 밤도 고지의 병사들을 찾아  
눈 덮인 전연길 이어 가시는  
**김정일** 장군님의 야전차의 불빛

2

하늘땅은 넓고 넓어도  
그 불빛은 어디서나 다 보여  
어머니들은 전등불 낮추 드리우고  
포근한 햇숨을 버선에 누벼가고  
딸들은 아끼는 털실을 풀어  
부드럽고 폭신한 장갑을 떠가고...  
누구나 마음속으로 속삭이는것은  
-너만은 너만은 기어이 날아 가  
우리 장군님의 언몸을 녹여다오  
그 소원 불타는 집집의 불빛은  
장군님 그리움에 한 밤을 지새우는  
순결한 인민의 열애의 빛발  
그 빛을 안고 어둠을 태우며  
먼 전연길 달리는 야전차의 불빛

3

금시 불빛을 삼켜 버릴듯  
눈보라는 야수같이 기승을 부리고...  
하지만 이 밤 내 가슴 치는 소리  
짹-쿠궁-  
어데선가 얼음장 터지는 소리  
장군님과 인민의 사랑의 열풍에  
제국주의 피수들의 죄악의 마천루가  
눈석이 얼음처럼 무너져 내리는듯  
짹-쿠궁- 그 소리속에  
서서히 어둠의 장막이 걷히는  
우리 장군님의 엄혹한 전연길은  
야전차 전조등 뜨거운 불빛이  
새날의 노을로 피어 나는 길

4

최전연 천리에 아침해 솟는다  
장군님 야전차의 밝은 불빛이  
태양에 이어져 해빛으로 내리거니  
기나긴 겨울 밤 얼음을 녹이며  
인민을 지켜내신 장군님의 자애와  
장군님과 함께 달린 인민의 순정이  
하나의 불덩이로 뚫어 솟는 이 아침  
장군님은 고지의 붉은 노을속에  
인민을 마음속에 불러 보시고  
인민은 파사로운 해빛속에  
최전연에 계시는 장군님 모습인듯  
솟아 오른 아침해를 가슴에 안거니  
오 불멸의 태양은 사랑의 광원으로  
세월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라라

## 꿈의 선률과 영웅송배

-북의 국립교향악단 연주회를 보고-

김예성(남조선)

가슴에 너무도 강한 충격을 받아 가며 감동과 환희에 휩싸였던 그 시기, 북녜형제들의 교향악을 듣고저 KBS 홀이며 《서울의 전당》들에 달려 갔던 우리들의 가슴에 가득 넘쳐 난 생각은 무엇이었나.

그래! 저건 분명 꿈의 하모니(조화된 선률)야. 아름다울수밖에 없는, 장엄할수밖에 없는 꿈의 음악!

오로지 《일사불란》과 《회일》이라는 편집적인 이미지(표상)로써 형제들을 불신해 왔던 아집의 관념을 강타하며 우리를 어두운 혼몽에서 밝은 현실에 끌어 낸 눈 부신 빛의 음악!

그것은 의심할수 없는 정직한 아름다움이였다. 나무랄수도 외면할수도 없는 다정한 선과정이 그 정직함에 실려 우리의 언 가슴에 해별처럼 와닿았던것이다.

우린 돌연히 눈을 떴고 불현듯 귀를 열었다. 그 꿈의 하모니속에서 잃었던 자신의 정체와 목소리를 찾았을 때, 우리는 환희란 도대체 어떤 감정인가를 비로소 알수 있었다.

그래, 우린 이렇듯 고상하고 우아한 꿈을 지닌 민족의 산아들이였구나!

그들의 음악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제국의 변경에서 그의 포만한 《문명》에 위축되어 아메리카문화의 번두리를 어둡게 서성거리던 우리들, 라흐마니노프 드비씨의 선률에 압도되어 서방문명에 대한 이른바 《의식의 한계》를 고민해왔던 우리에게 그들의 음악은 민족주체의 당당한 소리를 갖고 세계를 향해 일어 서자는 진정한 용기에의 호소로 울려왔다.

또한 누구도 격하시킬수 없

는 그 하모니의 장엄성이 우리에게 영원과 순간의 철저한 가치를 가르쳤다. 장장 흘러 온 민족사는 이게 반만년이요, 그 피줄이 상처 입은 시간은 불과 50여년이라는 력사적사실, 순간의 단절이 아무리 엄혹하고 파괴적인것이였다 할지라도 영원으로 향한 5천년의 장구한 시간을 결코 거부할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그들의 음악은 증명했던것이다.

-여러분은 우리의 노래가 귀에 선것입니까? 우리의 선률과 우리의 리듬이 정말로 《이색적》인가요? 그래 우린 모두 피줄과 마음을 통해 운명 지어진 하나일수밖에 없는 한동아리의 한 겨레가 아닙니까?!-

두볼 가득히 넘치던 청중들의 뜨거운 눈물은 그들의 이런 물음앞에 달리는 선택할수 없는 진실한 공정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음악적언어는 우리의 의식을 비루스처럼 잠식해 왔던 온갖 《지혜》, 온갖 《철학》의 허접쓰레기들을 확 불살라 던지고 우리가 한피줄 나눈 형제의 손을 잡고 통일의 환희로 가는 길을 가리킨 계시였다.

그들의 음악은 분명 근엄, 성실, 용감, 자비했던 우리 민족의 력사적혼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민족의 혼을 준엄과 영원의 길목으로 이끌어 가려는 시도와 노력이 그들의 음악속에 약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음악속엔 민족사의 모든 불행과 수난에 보내는 력사적종언의 단호한 메세지가 있었고 기어이 《서러움 떨쳐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는 비장한 운명예의 용감한 승인과 강인한 투쟁예의 갈구 및 빛나는 승리에의 확신이 넘치고 있었다.

그들의 하모니는 강력한 힘

이였다.

우리가 이때껏 알지 못했고 또한 알고저 하는 시도나 노력도 없었던 그러한 힘예의 지향과 전취가 그 음악세계의 핵이였다.

요컨대 그것은 예술정신의 력사를 살펴 볼 때, 하나의 충격적인 혁명이라 이를수밖에 없는, 종래의 유럽식교향악에 대한 장한 도전과 우리 민족식 예술의 비범한 탄생인 저 《조선식교향악》이다!

북녜형제들은 서양악기위주의 오케스트라(관현악)명역에 기존의 《타부》를 깨고 우리 민족의 국악기들을 대담히 들여 놓았다. 그들은 클라식(고전적)교향악의 《전통선률》에 민족의 음색과 민족의 선률을 혁신적으로 결합조화시켜 전혀 새로운 우리 민족식의 아름답고 장쾌한 교향악을 창조해 냈던것이다.

이는 이미 어떤 개량의 단계를 넘어 혁명으로서의 중대한 의미를 안고 있다.

《더욱 아름다운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규칙도 깨뜨릴수 있다.》

예술행위에서의 정신의 립장에 관한 베토벤적인 이 견해가 세계예술의 력사에 가장 완벽히 실행된 례가 바로 이같은 경우라 하겠다.

새남의 흥겨운 가락에서, 저대의 구성진 음률에서, 해금들의 웅건한 협화음에서 우리는 그 특이한 하모니가 주는 예술적감미나 흥취에 앞서 민족색채의 장려한 미속에 내재된 민족문화정신의 강력한 힘을 자부할수 있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확인할때 그는 스스로 격동하며 세상을 자신 있게 둘러 본다. 그 면모에서 진정한 미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서 새로운 꿈을 발견할 때 인간은 환골탈태의 신비를 체험하며 지상의 자질구레한 빙속으로부터 하늘의 별이나 태양 같은 비상한 영광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우리는 복讖형제의 하모니를 통해 그 감격을 누려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찾을 말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슴에 귀중히 가꾸어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이어야 할가?

우리는 지금 이런 꿈의 하모니를 보내준 고마운이에 대한 감사의 말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고무하고 용기를 준 크나큰이에 대한 보은의 념을 가꾸어야 한다.

너무도 감동하고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환희로와서 연주홀을 향해 눈물속의 미소를 보내는 청중들이여, 당신들은 아시는가?!

이토록 아름답고 힘찬 민족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신분이 바로 **김정일** 장군님이시란것을, 백두산의 번개와 우뢰소리로 천지의 폭풍과 눈보라로 그 위

인적형상이 각인되었던 비범한 총대의 령장! 바로 그분의 서정에서 탄생된 민족의 예술이란 사실을!

또 한번 이렇게 우리는 **김정일** 장군님을 알게 되었다.

《음악의 아름다움이란 신께서 그 모습을 음성속에 나타낸 것이다.》고 한 바하의 말을 상기한 사람들은 확실히 복讖오케스트라의 저 장엄한 하모니속에 우리의 민족적영웅이 나타나신것이라고 말할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각 《참된 위인-영웅속엔 철학자, 립법자, 시인, 예술가가 다 들어 있다.》고 주장한 그 누군가의 이야기도 열렬히 공경한다. 이제 우리도 것처럼 영웅승배론자로 된 것이다. 우리가 경모해온

**김정일** 장군님의 지대한 존재속에는 저 6.15 북남공동선언을 력사의 장에 펼쳐여 놓은 위대한 립법자가 있었고, 인간존엄 최대의 자주사상을 인류앞에 제시한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으며, 이처럼 우리에게 민족의 혼을 심어주고 정신을 양양시켜 준 위대한 예술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 꿈의 하모니속엔 세계최상의 문명을 이 민족이 쟁취하기를, 최상의 미를 지닌 천사의 집단으로 이 민족이 승화되길 념원하시는 그분의 희망과 의지가 있다.

-조국이여! 나의 민족이여!

력사의 한을 떨쳐 비리고 광명한 래일, 승리하는 래일로 가자!-

그분의 크나큰 심장이 보내는 이 혈연의 호소를 우리는 웅대한 꿈의 하모니에서 들었다.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조국의 풍요한 미래를 보이는 그 황홀한 꿈의 심포니(교향곡)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영웅이 보낸 꿈의 하모니속에 나타난 통일강성대국의 모습을, 아름답게 조화되고 아름답게 성장한 내 나라의 참모습을 보았다.

아! 위대한 꿈의 하모니여! 고결한 위인의 아름다운 정신이여!

부디 영광을 받으시라!

## 그 이

### 럼형미

그이를 태양에 비긴다면  
태양은 그이를 닮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제 한몸 다 불 태워  
강산을 따듯이 비쳐 주건만  
그날아래 꽃들은 연약하고 창백합니다  
아 그이를 어이 태양에 비기리까  
수천만 인민의 마음속에 한점 피로도 깃들세라  
밤이나 낮이나 사랑의 큰 심장 불 태우는 그이를  
어이 한낮에만 뜨는 태양에 비기리까

그이를 하늘에 비긴다면  
하늘은 그이를 닮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넓은 그 옷자락에  
수억만 별들을 품고 있대도  
그 별은 구름속에 가리우는 별입니다  
아, 그이를 어이 하늘에 비기리까  
한생을 그이에게 맡긴 이 나라 충성의 별무리  
붉은기에 싸안아 운명을 지켜 주고 빛내 주는

그이를  
어이 심장 없는 저 하늘에 비기리까

그이를 바다에 비긴다면  
바다는 그이를 닮지 못했습니다  
찰싹찰싹 기슭을 애무하는 은물결 부드럽고  
때로 노호한듯 솟구치는 폭풍 한없이 장쾌하여도  
그것은 향방 없는 바람이 일으키는것입니다  
아, 그이를 어이 저 바다에 비기리까  
세상의 눈바람 비바람 한손에 길들여  
인민 위한 행복의 봄바람만 터뜨리는 그이를  
어이 신념 없는 저 바다에 비기리까

아, **김정일**동지!  
떨어 저선 누구도 못 사는 우리 아버지  
그이를 진정 그이를  
이 세상 그 무엇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 나의 2월

김휘조

2월은 고운 꽃 피고 피는 때  
해 밝은 창마다 축원의 꽃들이  
2월은 즐거운 이야기도 많은 때  
집집마다 끝 없는 장군님이야기

그래서 그이의 탄생일을 맞는 2월은  
꽃의 2월

봄아지랑이처럼 기쁨이 피는 2월  
아늑히 행복에 젖는 꽃들과 함께 또  
부푸는 맹세에 이 가슴 뿜어라

걸어 온 나날을 그이앞에 총화하고  
걸어 갈 나날을 그이앞에 다짐하는  
이마음 흰눈처럼 깨끗해 지고  
불 타는 맹세에 이가슴 뿜어라

천리전연 솟구친 산발들이여  
그이의 옷자락이 스쳐 간 푸른 물굽이  
발전소의 동음 높은 강기슭들과  
솟구쳐 올라 타래쳐 올라 나를 부르는듯  
흰 연기 뿜는 공장들과 체철소들이여

강성대국으로 도약하는 그 높은 숨결은  
세상의 광풍을 총대로 눌러 짓고  
인민 위해 눈바람을 헤쳐 오신 장군님  
장군님 발자국에서 펼쳐 진것 아니더냐

산문시

아, 봄빛을 뿌리는 어버이 그 마음 따라  
들에는 움이 트고 푸른 잎 돋고  
새거리 창문들은 활짝 열리고...  
차창가에 저무는 해를 다 지우시며  
인민을 위한 일밖에 그이 더 모르시니

나도 그이의 한 전사  
무엇을 더 바라랴 그이를 위한 일밖에  
이 마음 어디서나 그이 뜻을 꽃피우는  
푸른 소나무 되리라 곧은 참대 되리라  
2월을 맞을 때면 가슴에 차는 생각  
올해도 2월을 맞으니 오직 이 생각  
그이 떠난 목숨이 이땅에 없고  
그이는 우리의 밝은 세상이시니

2월은  
온 인류가 그이를 우러르는 2월은  
이 가슴 더더욱 열정으로 불타는 때  
그이 위해 더운땀 흘리고 흘리리라  
그이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리라

가슴에 맹세가 끓는 2월이여라  
영원히 복된 이 땅을 위해  
영원히 번영할 이 땅을 위해  
2월은, 나의 2월은

## 방목길 백오십리

량덕모

물소리 세찬 세골천 골개따라 큰골 작은골  
동골을 지나 천의산 봉이봉이 황봉산 줄기줄기  
룡환선으로 이어 진 방목길 백오십리, 이 길로  
우리 장군님 다녀 가셨다오 가파롭고 굽이 많은  
길, 돌아 드는 굽이마다 보시오 푸르른 풀판  
흐르는 흰 염소떼 동화의 그림 같은  
분장합숙이며 살림집홀들...

사뭇 만족하시여 저기 젓가공실도 돌아 보셨다오  
그 옆의 목욕탕 리발실에도 들리셨다오  
합격이라고, 최우등이라고, 세계적이라고 그이  
사진도 찍어주시며 칭찬하셨다오 풀뿌리 씹으며  
천고수림 헤쳐야 했던 그 간고한 날의 수고가

눈에 밝히시여 달아 오른 야전차를 몰아몰아  
그이 다 돌아보신 사랑의 방목길

이 길을 걸으면 앞이 환하다오, 오늘에 땀  
흘리며 바라는 래일이 보인다고 그래서 《래일구》  
라 부르는 청년염소목장, 구름처럼 희망이  
부푸는 백오십리, 시련의 철령을 넘어넘어  
고난의 명문고개 넘어넘어 장군님 열어 주신  
만리 행복이 뻗은 길-푸른 신호등처럼 온 나라  
풀판이 안겨 오는 길 인민의 기쁨이 뭉게뭉게  
피어 흐르는 이 길을 힘차게 걸어걸어 우리는  
간다오! 세상에서 으뜸가는 강성대국 살기 좋은  
락원으로.

## 작가들이여! 라남의 봉화따라 심장에 불을 달자

벽이 올리면 강산이 올린다.  
《위대한 장군님 지퍼 주신  
라남의 봉화 따라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다그치자!》

이 하나의 지향, 하나의 열망,  
하나의 의지로 날이 밝고 밤  
이 새는 오늘의 선군시대.

쇠를 끊는 용해장과 수천척  
지하막장, 발전소건설장과 토지  
정리 전투장, 대규모기계생산기  
지와 협동벌, 이 땅 그 어디 가  
보아도 새 세기의 위대한 봉화,  
라남의 숨결과 정신에 호응하  
여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조  
국의 숨결이 들려 오고 인민의  
모습이 안겨온다.

라남의 봉화가 료원의 불길  
로 거세차게 타오른 오늘의 현  
실은 붓대를 틀어 쥔 우리 작  
가들의 심장에도 창작적흥분과  
열정을 지퍼 주었다.

문학은 시대와 현실의 반영  
이다.

우리 작가들앞에는 선군시대  
혁명적폭풍의 봉화로 새 세기  
를 개척해 가는 오늘의 시대,  
위대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시  
대정신을 호흡하고 자기의 창  
조물에 구현하여 시대가 맥박  
치게 해야 할 가장 책임적이고  
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  
다.

우리가 틀어 잡은 혁명의 붓  
대는 어제 그 그랬지만 오늘  
도 오직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  
대중을 고무하는 붓대, 경애하  
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  
을 실현하는 사상적무기로 되  
어야 한다. 그러자면 붓대를 틀  
어 쥔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라  
남의 봉화가 활활 타올라야 한  
다.

라남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  
을 맞추고 라남의 정신에 불을  
적시여 라남의 속도로 창작의  
붓끝을 달릴 때 문학작품은  
방사포와도 같은 위력으로 시  
대를 격동시킬수 있고 천만의  
심장을 한순간에 틀어 쥔수 있  
다.

라남의 봉화 따라 혁명의 붓

대를 더 억세게 틀어 잡고 필  
봉을 달릴 때 온 나라를 부글  
부글 끓게 할수 있으며 장군님  
의 위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도  
앞당길수 있다. 만일 우리 작  
가들이 새 세기의 장엄한 진군  
을 순간이나마 외면하여 붓대  
가 흔들린다면, 하여 작품에 시  
대를 담지 못한다면 작가로서  
죽은 목숨과 같은것이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 지  
퍼주신 라남의 봉화는 우리 작  
가들의 심장에 무한대의 사상  
정신적량식을 안겨 주었고 무  
한한 창작적열정과 지혜를 만  
탄창하게 하였다.

라남의 봉화로 심장을 끓이  
고있는 우리 작가들모두는 197  
0년대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던 때의 그 기세로 문학  
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  
으킬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다.

우리에게는 지난 시기 당이  
말겨 준 창작전투과제를 무조  
건 수행한 풍부한 창작경험과  
혁명적창작기풍이 있다. 더우기  
1970년대 경애하는 장군님께  
서 울려 주신 문학예술혁명의  
위대한 포성속에 우리 식 수령  
형상문학을 창조한 빛나는 경  
험도 있고 네차례에 걸치는 큰  
형식작품 100편 창작과제를  
시대의 명작으로 앞당겨 수행  
한 창작기풍이 있다. 이런 창작  
기풍을 이어 20세기 마지막년  
대에 창작에서 강계정신, 성장  
과 락원의 봉화를 지퍼 올려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숭배심을  
안고 창작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그 과정에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  
한 선군시대의 많은 서사시들,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  
도》 총서형식의 수령형상작품  
들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  
여났다. 그리고 장편기행런시  
《강성대국행진곡》, 시초 《강원  
땅의 새 노래》, 가사 《승리의  
길》, 《강성부흥아리랑》, 장편  
소설 《열망》, 《지금은 봄이다》  
와 같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성

과작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  
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의 참된 길동무로 되어  
주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  
도, 감정정서에 자기들의 숨결  
을 같이 하면서 들끓는 현실속  
에서 심장을 뜨겁게 가열시켜  
온 결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  
고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  
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라남땅에  
지퍼 주신 봉화는 전당, 전국,  
전민을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  
의 총 진격으로 부르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봉화이다. 그것  
은 또한 20세기 90년대 《고난  
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를 안  
아 온 강계정신, 성장의 봉화의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서의 발현이다.

혁명적폭풍의 시대에 사는  
우리 작가들은 라남의 봉화 따  
라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  
는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문학  
작품창작에 심장을 끓이고 있  
다. 현실은 말보다 실적을 요구  
한다.

우리가 다시한번 라남의 로  
동계급처럼 심장에 불을 달고  
비약의 나래를 펼쳐 작품창작  
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 온다면  
우리 주체문학은 선군혁명문  
학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  
추게 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라남의 봉화  
따라 수령숭배의 필봉을 억세  
게 틀어 잡고 21세기, 강성대  
국의 새시대를 혁명적폭풍의  
봉화로 개척해 나가시는 경애  
하는 장군님의 형상창조에 심  
장의 더운 피를 아낌없이 터쳐  
야 한다. 우리 수령형상문학작  
품이 20세기는 물론 21세기에  
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 업적을 결사옹위  
하는 선군혁명문학의 기본의  
기본이기에.

이 땅에 새 세기의 첫 봉화가 창조한 오늘의 자랑스런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겠는가 하는 오직 한가지 생각뿐이다. 하기에 제국주의 자들과의 사생결단의 대결속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 지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었고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시며 수천수만리 험한 전선길과 공장, 농장길을 쉬임없이 걷고 걸으시며 뜨거운 사랑의 건설을 창조하신다.

지난해 8월 19일 떠나면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 오시는 그 길로 라남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시고 최약의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당이 준 과제를 말보다 빛나는 실천으로 받들어 온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전국의 본보기로 내세워 주시고 온 나라에 혁명적대진군의 봉화가 타오르도록 하시었다.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새 세기 봉화의 불길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요일과 생신날마저 인민위해 깡그리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타오른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피 주신 라남의 봉화따라 꽃 피날 우리 조국의 래일은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을 심장깊이 새기며 현지지도 나날에 꽃 피는 자랑스런 현실을 구체적인 력사적 사실과 결부시켜 형상함으로써 언제나 새 세기의 진두에서 혁명의 진군로를 개척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창조자이심을 오늘의 시대적 높이에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수령님 유훈을 이 땅에 꽃 피우시기 위해 끊임없이 사색하시는 숭고한

내면세계, 위대한 사랑과 령도의 세계를 격이 높고 깊이있게 펼쳐 보여 주기 위한데 형상의 각광을 돌려야 한다. 또한 현지지도과정에 꽃 피는 장군님과 인민사이의 혼연일체의 모습과 선군령도의 생활력을 감동 깊은 예술적형상속에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라남의 숨결과 정신이 맥박치는 문학작품창작으로 당을 받들어 나가자면 다음으로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종자와 시대의 전형창조에 창작적열정을 바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새 세기 대진군의 앞장에 내세워 주신 라남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전형창조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오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에는 세기를 이어 결사관철의 전통을 계승한 미더운 로동계급, 라남의 로동계급이 서있다. 라남로동계급들은 제국주의의 악랄한 봉쇄로 인한 자재난,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당과 수령이 준 과업앞에서는 말이 아니라 심장을 내대는 사람들이었고 무슨 과업을 하나 맡겨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새맛이 나게 건설하는 사람들이었고 당이 결심하면 죽으나 사나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어이 해내는 심장을 펴 펼 끓일줄 아는 선군시대 참다운 혁명가들이다. 그래서 오랜 공업력사를 가진 나라들에서나 만들어 낼수 있다는 현대적기설비를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지혜로 만들어 낼수 있었다.

이들의 형상창조에서 중요한것은 최첨단과학기술을 동반한 그들의 투쟁과정을 장편소설 《열망》에서처럼 기쁘지고 진실한 생활화폭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다시한번 그들의 가슴속에 고쳐치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 그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을 문학형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피 주신 라남의 봉화는 혁명의 년대를 이어 계승한 충성의 봉화이며 현시기

강성대국으로 떠밀어 주는 위력한 추동력이라는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형상창조와 함께 언제나 그들곁에 있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에 대한 형상을 3위1체의 관계속에서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한모습도 밝혀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함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도식적인 틀을 마스고 새 세기에 맞는 진취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소유한 과학자의 전형도 창조해야 한다.

문학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보다 높고 새로운 내용과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요구한다.

최근에 단편소설, 실화문학, 운문소설, 환상소설, 수필 등 짧은 형식의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왔으나 그중에는 시대와 인민의 기억속에 남아 있지 못한 작품들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열정이 뜨겁지 못한것과 관계된다.

우리 현실속엔 우리가 갖고 처하는 참신하고 독특한 종자도 시대의 주인공도 있으며 따라서 현실에 뛰어 들면 작품의 구성과 형상묘리도 환히 무르익게 된다.

작가들이 라남의 봉화 따라 심장에 불을 지피 올릴 때 우리가 점령 못할 형상요새란 없다.

올해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비롯하여 뜻 깊은 명절들로 이어 진 류달리 감회깊은 해이다. 그러므로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실력을 갖추어 작가적숙련을 쌓아 나갈 때 뜻깊은 올해를 시대의 명작창조의 해로 빛내일수 있다.

작가들이여, 이 땅에 타오르는 라남의 봉화 따라 1970년대 문학의 대전성기를 맞이하던 그때처럼 선군시대의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 우리 문학이 언제나 고무적기치가 되게 하자. 그길에 깨끗하고 불 타는 심장을 바쳐 가자.

## 선군혁명문학령도의 성스러운 자욱을 더듬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20세기를 잘 장식하였습니다. 5,000년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 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이루는 선군혁명문학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선군혁명문학은 우리 인민이 역사에 류례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벌리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새형의 문학이다.

우리 문학은 20세기 마지막년대에 아직 인류문학이 대상해 보지 못한 가장 준엄하고 격동적인 시기를 체험하였다.

우리 인민은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이겨 내고 일떠서야 했고 사면팔방으로 덩벼드는 제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의 압살책동과 맞서 싸우며 참기 어려운 경제적인난관을 뚫고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려야 했다.

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 아니면 제국주의노예로 되느냐를 판가리하는 이 결사전에서 우리 인민은 승리하였으며 폭풍 사납고 수난 많은 20세기를 사회주의승리의 세기로 빛나게 장식하였다.

이것은 천출명장으로서의 특출한 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가 가져온 최대의 승리이며 고귀한 전취물이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

여 군사는 물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인간도 사회도 투쟁과 생활도 새롭게 일신한 선군시대라는 완전한 하나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특전을 누렸다. 하여 선군혁명문학의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게 되었다.

선군혁명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는 문학이며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개화발전하는 위대한 령도자의 문학이다.

우리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결사수호, 강성대국건설을 소리쳐 부르며 피눈물의 바다, 격전의 사선천리를 영웅적으로 돌파해 온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혁명실록에서 장군이 올린 혁명의 퇴성을 시대정신으로, 장군이 짚어 간 시대의 발자국마다에서 장군이 호흡한 심장의 숨결로 탄생한 주체사실주의문학의 높은 단계이다.

20세기 마지막 6년사에 아로 새겨진 선군혁명문학령도에는 1,000여편의 작품지도를 비롯하여 410여차에 770여건에 달하는 문학운동에 대한 성스러운 령도의 자욱이 뜻 깊게 깃들여 있다. 이 놀라운 수자는 잊을수 없는 격동의 6년 전 기간 우리 문학이 거의 매일이다싶이 위대한 령도의 자애로운 품에 안기는 최상최대의 행운을 지녔다는것을 실증해 준다.

선군혁명문학은 창조와 변혁의 새 세기, 21세기에도 시대를 향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

## 선군혁명문학의 시원을 열어 놓으신 주체 84(1995)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가갑시다.

1995. 1. 1  
**김정일**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는 새해 첫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체 인민들에게 신년 친필서한을 보내주시고 정각 9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주체83(1994)년 신년사를 실황목화로 내보내도록 하시여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워 하는 우리 인민의 소원을 풀어 주시였다. 그리고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의 공동사설을 내보내어 아버지수령님을 변함없이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새해의 진군길을 다그쳐 나가도록 전체 인민들을 불러 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아침 아버지수령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신 그 길로 잊을수 없는 다박솔초소를 찾으시였다.

조선이 장차 어느 길로 나가며 어떤 정치를 펼 것인가를 두고 세계가 떠들던 때 우리 장군님께서 찾으신 사연 깊은 다박솔초소길, 그것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대대손손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업적을 100% 계승하고 100% 고수해 나갈것이라는 장군님의 드림 없는 정치철학, 정치신념의 상징이었다.

여기로부터 선군정치의 전면적인 력사가 시작되고 선군혁명문학의 시원이 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선군혁명문학이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무궁토록 칭송하는 수령영

생문학으로 첫 걸음을 떼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해에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를 여러차례 지도해 주시고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으로 되도록 하여 주시였으며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높이 들자 붉은기》를 비롯하여 백수십여편의 작품을 지도하여 주시고 문학사업에 대한 수많은 가르치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한해의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처럼 어려운 난국을 이겨 내고 끝까지 붉은기를 지켜 낸 《고난의 행군》과 함께 리정표를 세운 선군혁명문학은 모진 피눈물의 사선천리를 완강하게 헤쳐 나가게 하는 시대의 냇이었다.

## 명작창작강행군으로 불러 일으키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로부터 문학예술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발하여 우리 인민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 일으키며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레없이 준엄한 《고난의 행군》과 함께 첫 걸음을 땀 선군혁명문학은 시작에서부터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체험하게 하였다.

우리의 거리와 마을은 불에 타고 포연에 끼슬지 않았어도 우리의 옷자락은 총탄에 찢기고 피에 젖지 않았어도 우리 인민은 총포성 없는 가릴 처절한 전쟁을 치르어야 했다.

원수들은 고립압살의 포위환을 더욱 옥죄였고 커다란 경제적인난관이 휩쓸었다. 엄혹한 그 세월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것처럼 아픈 상처를 남긴 때는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말기고 가신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뚫고 일떠 서도록 할것인가.

천만가지 생각을 다 해보시며 전선길을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류다른 정회가 안겨 옴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그렇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량만에 넘치는 명작을 안겨 주자,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 있는 붉은기정신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혁명적인 생활이 철저히 구현된 명작은 수백만톤의 쌀보다도 더 큰 힘으로 인민들을 불러 일으킬것이다.

명작창작전투에로.

이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문학에 대한 령도는 우리 작가들을 명작창작전투에로 이끌어 주신 숭고한 자욱으로 아로 새겨 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85(1996)년 4월 26일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발표하시여 우리 작가들에게 명작창작의 보검을 안겨 주시였으며 작가들 속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온갖 은정 어린 사랑의 조치를 다 취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지도에 의하여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가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되었으며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을 따라 명작창작전투는 더욱 힘있게 계속되였다.

## 순결한 량심의 필봉으로 버려 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하루를 살아도 인민군인들이 지니고 있는 리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살고 시 한줄, 소설 한페이지를 써도 만사람의 량심에 불을 지필수 있도록 진심이 통하게 써야 합니다. 작가들의 필봉은 말 그대로 순결한 량심의 필봉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가리싸움, 《고난의 행군》은 더욱 간고하게 계속되였다. 그렇게도 많이 피눈물을 흘린 일이 없고 그렇게도 많이 굶어 보고 얻어 본 일이 없는 우리 인민이였다.

너무도 준엄한 현실은 우리 작가들속에서 일시나마 창작적부진을 가져 오며 사나운 겨울을 피하여 《동면》하려는 현상을 나타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클수록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하고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설설 끓이며 고난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때에 시대정신과 량심의 대변자로, 투쟁과 위훈의 고무자로 되여야 할 작가들의 창작태도에서 나타난 이 현상은 매우 상스럽지 못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인민군대의 혁명적예술인들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혁명군가로 만사람의 심장에 투쟁의 불을 달아 주듯이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선군혁명문학의 필봉을 억세게 틀어 쥐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감회도 새로운 주체86(1997)년 4월 초, 우리 작가들은 전국작가협의회를 가지고 혁명적군인정신, 총폭탄정신이 투철히 반영된 명작들을 창작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 갈 심장의 맹세를 다졌다.

우리 작가들은 신들메를 조이고 배낭을 메고 《고난의 행군》이 진행되는 격동적이고 엄혹한 현실에 들어 가 사람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부르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작품을 창작하였다.

《고난의 행군》이 절정에 이른 주체86(1997)년의 선군혁명문학령도는 우리 작가들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순결한 량심으로 창작하도록 이끌어 주고 우리의 필봉을 버려 준 가장 자애롭고 뜨거운 어버이스승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정화였다.

## 최대의 믿음을 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식인들은 과학과 기술, 지식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 혁명의 중요한 담당자입니다.》

선군혁명문학창조의 전투대오-우리 작가들은 주체87(1998)년 새해벽두에 위대한 령도자의 최대의 믿음과 고무를 받는 특전을 누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화국창건 50돐이 되는 뜻 깊은 이해에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새해 첫 아침 송년시 《눈이 내린다》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작가들이 령도자와 함께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당과 수령을 보위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쇄소리나는 좋은 글을 쓰고 있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해벽두에 시 《어머니》,

서사시 《백두산》, 리수복영웅의 시가 가지는 비상한 감화력에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혁명적인 문학작품의 생활력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돌이켜 보면 장군님께서서는 서정시 《어머니》에 대해서는 10여차, 서사시 《백두산》에 대해서는 20여차, 리수복의 시에 대해서는 8차에 걸쳐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시대정신을 잘 반영한 좋은 작품이라고 뜻 깊은 말씀을 주시고 사회적으로 통달하는 분위기를 세우도록 가르쳐 주시였다.

바로 작품에 대한 이러한 사랑과 은정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해에 오래동안 묻혀 있었던 한 작가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시고 작가들을 위하여 최대의 대우를 안받침하는 특별휴양을 조직해 주시는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그리고 한 작가의 건강을 넘려하시여 나라가 것처럼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때에도



많은 자금을 들여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 기대를 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에 오른 우리 선군혁명문학은 공화국창건 5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으로 더욱 흥성거렸고 우리 작가대오는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굳게 다져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령도자를 따르며 선군혁명문학창조의 길을 탐구개척해 나가는 우리 작가들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령도자의 믿음이 뜨겁게 고동치며 창작적사색과 열정을 불 태워 주었다.

## 선군혁명문학의 앙양으로 빛나는 주체 88(1999)년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 주체88(1999)년, 이해에 우리 문학은 만고절세의 위인의 탁월한 령도를 따라 구보로 달리는 격동하는 시대와 숨결을 같이 하며 전례 없는 명작창작으로 선군혁명문학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해의 우리 선군혁명문학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문학의 모든 형태마다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드높이 노래하며 위대한 령도자의 문학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선군령도의 거룩한 자욱이 어린 뜻 깊은 최전연초소길과 강성대국건설의 구보행군길마다에서 시대의 명작을 탄생시켜 그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8(1999)년 1월 2일 송년시 《잊을수 없어야 1998년이여》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나의 의도를 시에 잘 담았다고, 마치 나와 한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 쓴것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의 발자욱을 걸음걸음 따르며 천하제일명장의 슬기와 담력, 용맹과 의지, 위인의 비범한 예지, 숭고한 뜻을 온넋

으로 심장으로 감수하며 기름기어린 창작의 붓을 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령을 넘으시여 천리 전선길을 가시면 서정시 《철령》과 시초 《영웅찬가》가, 장군님께서 토지정리건설장과 청년영웅도로 건설장을 찾으시면 시초 《강원땅의 새 노래》와 기행연시초 《백리청춘로반우에서》가 명작으로 태어났으며 장군님께서 칠보산을 찾으시면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이 우리 식 풍경시의 본보기로 그 모습을 뚜렷이 하였다.

끊임 없는 선군령도로 날과 시간을 쪼개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해에 210여편의 작품을 지도해 주시고 명작으로 완성시켜 주시였으며 선군혁명문학발전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거듭 주시었다.

20세기 90년대의 마지막해의 선군혁명문학령도는 우리 작가와 문학이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 료레없이 뜨겁게 안긴 사랑과 믿음, 숭고한 의지로 엮여 저 있다.

## 선군혁명문학을 빛나게 장식한 주체 89(2000)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격동적인 사변들이 많았지만 특히 2000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제일 격동적인 사변들이 집대성된 해입니다. 2000년은 우리가 세계에 소문을 낸 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고난의 행군》에서 격전의 혈전만리를 불사신처럼 달려 민족사적, 세계사적승리를 이룩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함께 선군혁명문학은 20세기 령마루에 궁지높이 올라섰다.

세계제국주의렬강들과 맞서 조국을 수호한 위

대한 기적의 창조자, 인류의 자주와 평화를 지켜낸 20세기의 유일한 승리자, 유일한 영웅민족으로 위풍당당히 올라 선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기치가 되여 선군혁명문학은 장구한 인류문학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붉은기수호문학으로 그 면모와 위용을 과시하였다.

격동의 20세기 마지막 6년사에 우리 문학은 위대한 령도의 손길 따라 놀라운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문학의 모든 형태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였다.

주체문학운동이 힘있게 벌어 저 주요기념일들을 계기로 두차례의 문학축전이 성대히 진행되었

으며 제4차 큰 형식의 작품 100편창작전투가 전례없는 양양된 분위기속에서 성과적으로 수행되었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선군정치를 펴나가는 천출명장의 위대성이 최상의 경지에서 형상되고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새로운 성격들이 출현하여 선군혁명문학의 문제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선군정치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된 2000년의 선군혁명문학령도는 우리 문학이 한세기를 마감 짓고 형상의 위력을 한껏 떨치게 한 탁월하고 비범한 위대한 스승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었다.

선군정치와 선군혁명문학,

우리 문학은 영원히 위대한 령장의 선군정치를 형상으로 힘 있게 보좌하며 새 세기의 진군을 다그쳐 나갈것이다.

## 백두산에서

(총련) 김학렬

조종의 메부리  
천산성악 백두산이여  
내 오늘 여기에 올라  
그 신비로움에 넋을 잃노라

첼첼충암 아아한 절벽엔  
영원히 고요가 깃든듯  
엄엄하고

해그림자 비낀 천지는  
물이랑마다 보석진주를 튕기는듯  
아름다와라

어디선가 한줄기 바람이 일어  
하늘땅을 구름에 잠그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순간에 그 자태를 드러내는  
천변만화의 조화여

흰 구름을 자락으로 두르고  
거연히 천하를 굽어 보는 향도봉은  
어쩌면 우리 장군님 모습 같을가

아, 어디선가  
세상을 깨치는듯  
갑자기 천심을 뒤흔드는 소리  
따웅-

나는 들었노라

분명히 들었노라  
백두산호랑이 호기찬 소리  
따-웅

저 소리에  
한나산이 메아리치고  
하늘아래 천만메부리들 호응하더라

내 바라 보는  
천지처럼 푸른 하늘에도  
가득 차 있구나

산악 같은 담력  
청천 같은 높은 지략  
유유태연하시고

부드러운 인정미를 지니신  
천하제일의 위인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아, 우리 장군님  
이렇듯 높은 곳에 서시여  
백두산장군의 전설 같은 힘으로  
내 나라를 빛내이고 계시는구나  
통일조선의 창창한 앞길을 굽어 보고 계시는구나

온 세상을 거느리시고  
**김정일**세기를 새겨 가고 계시는구나



## 2월은 봄, 봄의 고향...

-노래 《2월은 봄입니다》를 들으며-

최희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구체적인 생동한 정서를 통하여 깊은 사상을 노래한 이런 가사라야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된 참다운 가사라고 말할수 있다.》**

그 어디를 둘러 보아도 아직은 백설-꽃 한송이  
아니 된 계절에 저 백두산하늘아래 소백수의 유  
정한 물소리는 이 나라 강산에 예순번째로 2월의  
봄이 왔다고 밀영의 고향집 들창문을 서둘러 두  
드리고, 신생하는 봄의 숨결로 설레는 내 마음의  
푸른 창가에 사연 깊은 노래 조용히 깃들여라-

이깎술엔 서리꽃이 반짝이여도  
들창가엔 봄빛이 따스합니다  
백두밀영 고향집 뜨락에서  
이 가슴에 안아 보는 2월은 봄입니다

붉은 기발 날리는 저 지붕밑에  
이 땅의 새봄이 꽃 뿔습니다  
내 나라에 창창히 열린 미래를  
뜨겁게 안아 보는 2월은 봄입니다  
...

《2월은 봄입니다》!

마음속에 젖어 드는 노래의 선율을 듣노라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추억 깊은 말씀이 뜨겁게 되  
새겨 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언제인가 이 노래를 들  
으시며 항일무장투쟁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정숙어머님과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함께 찍  
으신 사진이 생각난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뜨거운 추억을 불러 오는 1941년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부대를 친솔하시고 적구로 떠나  
게 되시였다. 출발준비를 다 끝내신 수령님앞에  
서 대원들이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예를 지니고 싶다는 청을 드렸을 때 그 청을  
흔연히 받아 들이신 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과 함께  
찍으시고 김정숙동지와도 함께 찍으시였다.

참으로 간절한 소망이 담긴 사진이였다. 위대  
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사진 뒤면에 이렇게 쓰시였  
다.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아, 짧은 그 친필속에 얼마나 깊고 원대한 뜻  
이 깃들어 있는것인가!

조국광복의 봄을 위하여, 인류의 영원한 봄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의 김정숙어머님께  
서 벌써 몇번째나 타향에서 봄을 맞으셨던가! 백  
두의 하늘아래 창창히 열릴 조선의 미래, 인류의  
봄, 영원한 세기의 봄을 위하여 만고풍상을 헤  
치시며 타향에서 맞으시던 봄...

아- 한편의 소박한 노래를 들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처럼 뜻 깊은 추억속에 계시줄이야  
시인인들 어찌 알았으랴! 이름 없던 시인이여  
그대에게 이같은 영광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것  
인가! 시인으로서의 나의 깨달음은 무엇이었던가.

우리 시인들의 사색의 세계-그것은 위대한 장군  
님의 깊고도 깊은 사색의 바다, 높고도 높은 사  
색의 하늘을 따라 날으는것이다.

《2월은 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환희  
의 계절-영광의 2월을 노래했던가. 그 봄노래들  
에도 자기의 뜻이 있었고, 피와 열이 있었고, 사  
랑과 정이 있었다. 하지만 노래 《2월은 봄입니  
다》(차명숙작사)의 가사에서처럼 2월은 봄이라는,  
봄의 고향이라는 깊은 뜻을 담지는 못하였다.

나는 그 의미를 찾고저 봄하늘에 날으는 시인의  
사색의 나라에 내나름의 생각을 얹어 보았다.-

흘러간 세기의 봄하늘아래에서 꿈 많던 시절  
시인은 하많은 봄의 노래를 들었으리-만물이 소  
생하는 계절의 봄노래, 청춘이 꽃 피는 인생의  
봄노래, 행복이 꽃 피는 삶의 봄노래...

때로는 어느 한 책갈피를 번지며 나라 없던 시  
절 조선의 가난한 시인들이 빼앗긴 들에는 오지  
않던 봄을 두고 가슴치며 부르던 울분의 봄노래  
와 모진 비바람에 피지도 못하고 스러지는 가냘  
픈 진달래를 노래하느니 차라리 불되고 울리라던  
서글픈 봄노래도 들었으리-

눈물젖은 그 노래들을 가슴 아프게 들어 온 시  
인이였기에 그는 꽃 피는 행복의 봄노래와 그 행  
복을 가꾸어 준 은혜로운 태양의 노래도 적지 않  
게 불렀다.

하지만 불렀어도 다함이 없고 지었어도 그 봄  
의 뜻을 못다 밝혀 낸 시인이였다. 그러면 새 세  
기-21세기를 맞이한 이 환희롭고 희망찬 시대에  
시인이 불려야 할 봄의 노래는 과연 어떤 의미

를 담아야 하는가? 가슴 벅차 오르는 시대적사명감, 가슴가득 안겨 진 무거운 형상과제-

나는 시인의 시점에 서보았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 빛나는 봄하늘- 그 아득한 공간을 날르는 시인의 사색의 나래를 타고 내 곁에 보는 무변광활한 대양과 대륙-

인류가 생겨, 력사가 흘러 수수천만년동안 오고가는 자연의 봄은 있었어도 현세기에 이르기까지 아직 인간의 참된 삶과 자유가 꽃 피는 전 인류의, 전 세계의 봄은 오지를 않았다.

하지만 왔다-내 나라 강산엔 반세기전부터 꽃피던 봄이 새 세기에도 무르익고 있다. 간고처절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이 몰아 온 《압살》의 광풍을 쳐물리치고 엄혹한 시련의 눈보라를 헤치고 넘어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아 오신 강성대국의 새봄이 왔다.

돌이켜 보면 저 멀리 흘러 간 세월-4월의 봄하늘에 만경대의 혈통을 이어 민족의 태양이 솟아 광복의 봄을 꽃 피우더니 백두천지의 정기를 안고 2월의 하늘에 백두의 태양이 솟아 창창히 열린 조선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가꾸어 가고 있다. 하거니 오늘 동란하는 세계의 하늘 아래 세월의 눈바람은 사나와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 뿌리는 광휘로운 빛발아래 인류가 갈망하고 세계가 기다려 마중하는 봄, 자주화의 봄을 부르며 내 나라, 내 조국강산엔 21세기의 장쾌한 봄눈석이 소리쳐 흐르지 않는가! 그렇다. 전 인류에게, 전 세계에 영원한 세기의 봄을 주는 백두의 태양-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올린 조선의 2월이여, 2월이여! 너는 봄이다, 력사의 봄이다, 세기의 봄이다!

시인이여, 그대는 《2월은 봄》임을 이렇게 찾았다. 나도 봄의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달았다.

이것이 우리 시인들이 생활의 사상적의미를 찾아 모색하는 창작적환상과 시적형상을 발견하는 탐색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적환상과 사색의 나래를 펼치고 시인은 자기 시상을 무르익히기 위해 백두밀영의 고향집뜨락에 들어 선 것이다.

시인은 거기서 무엇을 느꼈던가- 그것은 지난 20세기의 위대한 태양의 광열과 그 빛과 열을 안은 위대한 해발이 여기 밀영의 고향집에서 안아 가꾼 2월의 봄을 생각한 것이다.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조선의 미래를 가꾸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불요불굴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그려 보았으며,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였다.

이 나라에 광복의 봄을 안아 온 위대한 태양의 빛발과 이 세상에 인류의 봄, 새 세기의 봄을

안고 온 력사의 그 2월을 가슴 뜨겁게 안아 본 시인은 드디어 붓을 들어 《2월은 봄》임을 노래 하였거니.

이깁잖엔 서리꽃이 피어도 들창가엔 봄빛이 따스하다고 하였으니 그 《봄빛》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서리꽃이 피고 아직 눈바람은 차도 일찌기 찾아 온 봄의 정기를 느낀다는 수사학적표현이 아닐 것이다. 서리꽃 핀 계절이 따스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봄빛》은 무엇을 뜻한 것이며 무엇을 두고 느끼는 주정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과 그 해발을 안으시고 우리의 김정숙어머님께서 광복의 새봄을 가꾸시던 열렬한 애국의 피와 열이며, 조선의 미래를 안아 키우시며 쏘아 부은 따듯한 사랑과 정과 다함없었던 지성을 가슴 뜨겁게 느끼는 시인의 강렬한 주정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애국의 피와 열, 따사로운 사랑과 지성이 아직도 들창가에 고이 깃들여 《봄빛》으로 느꼈으니 서리꽃핀 2월이었어도, 백두밀영고향집뜨락가에서 시인이 한가슴에 안아 보는 2월은 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시인들이 생활현상을 관찰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데서 현상으로부터 본질에로 파고드는 창작적탐색과정이라고 보며 평범한 생활현상에 새롭고 깊은 사상적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색이 깃들고 여운이 남고 많은 것을 련상케 하는 시가작품의 창작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노래의 2절가사에서 붉은 기발 날리는 저 지붕아래서 이 땅의 새봄이 꽃 피었으니 내 나라에 창창히 열린 미래를 뜨겁게 안아 보는 2월은 봄이라고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인민의 영원한 봄의 고향에  
다함 없는 축원이 물결칩니다  
백두의 태양을 길이 받들어  
무궁토록 빛내여 갈 2월은 봄입니다

《봄의 고향》, 인민의 영원한 봄의 고향이라는 특색 있는 표현에는 전인민적감정이 차분히 깔려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향집에 우리 인민, 전 인류의 축원의 마음 물결쳐 온다거나, 백두의 태양을 길이 받들어 가리라는 시적표현은 수없이 많았으나 오늘 우리 인민이 마음속에 소중히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은 《봄의 고향》이라는 표현이 특색 있음으로 하여 전반적시형상을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하였기때문이다.

《봄의 고향》이라는 시적표현은 2월의 봄이나 백두밀영의 고향집에 대한 수많은 시와 가사들에서는 전혀 띄어 진적이 없는것으로써 새롭게 발견된 표현이다.

《봄의 고향》이란 물론 인민의 영원한 봄이 꽃 피난 백두밀영고향집을 말한다.

광복의 봄을 가꾸어 온 곳이며, 조선의 미래-백두의 태양이 솟아 오른곳, 바로 이 력사적인 혁명의 성지에서 인류의 영원한 봄이 꽃 피났기에 《인민의 영원한 봄의 고향》으로 된것이다. 특히 이 표현속에는 우에서 말한 그 모든 봄을 안고 온 2월의 봄-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뜻 깊은 력사적인 계절이기에 《봄의 고향》으로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결국 《봄의 고향》이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이라는 뜻에 이르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의 고향집을 우러르며 《봄의 고향》이라 한것은 완전히 새롭고도 독특한 형상적발견이다. 여기에 《봄의 고향》이라는 표현이 특색이 있다고 하는 그 본질적의미가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이 가사가 높은 예술형상적가치를 가지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특색 있고 가치 있는 예술형상적발견은 자기 시대의 생활에 깊이 파고 드는 작가의 심오한 철학적사색이 가져다 준 귀중한 결실이다.

21세기-새 세기를 맞으며 주체시가문학사에 새겨 진 이 노래는 그 사상예술적 완벽성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명작으로 우리 당의 영원한 기억속에, 우리 인민의 기쁨속에, 우리 시인들의 자랑속에 세월을 두고두고 전해 가며 영원히 불리워질것이다.

×

《2월은 봄》이며 《봄의 고향》이라는 그 의미를 찾고저 내 창작적환상과 사색의 나라를 펴고 시세계의 하늘을 날으며 생각하고 깨달은것은 무엇인가?

다시금 말하거니와 그것은 한편의 시와 가사를 써도 우리 시인들의 사색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원대한 뜻과 높고도 깊은 사색의 세계에 날아 올라야 한다는것이다.

거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시를 써내는 비결이 있으며 그이께서 기억하시고 추억하실수 있는 특색 있는 시를 발견해 내는 열쇠가 있으며 인민이 사랑하는 시대의 명작을 낳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요 모든 시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였다.

다른 하나는 시인들이 저마끔 그 누구도 본랄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완전히 자기것인 새롭고 특색 있는 시와 시적표현을 발견하는데 뉘을 태우고 피를 태워야 한다는것이다.

《2월은 봄》이라는 시의 발견과 《봄의 고향》이라는 명표현에서 깊은 시사를 받아야 한다.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수련과 숙달로써 작가적 재기와 원숙한 작가적면모를 갖추고 뚜렷한 작가적초상을 나타낼 때 너나없이 우리 시인들은 명실공히 우리 당의 미더운 작가로 될것이다.

우리의 주체시가문학의 화원에 한떨기 아름다운 《시의 꽃》으로 피여 그윽한 《시의 향기》를 풍기는 노래 《2월은 봄입니다》의 의미를 다시 다시 되새겨보며 시인들이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자.

위대한 태양이 가꾸어 준 사랑의 꽃-《2월은 봄입니다》의 곁에 나란히 피는 노래의 꽃을, 시의 꽃을 더욱 활짝 피워 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성품과 취미

장군님의 좌우명;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의 태양이시고 장군님은 태양의 전사.

장군님의 기질; 공격형.

장군님의 창조목표와 리상; 하나를 창조해도 기념비적인것을 창조하는것.

장군님의 기본사색방법; 립체적인 사색.

장군님의 기쁨; 인민의 기쁨.

장군님 제일 사랑하시는것; 혁명적신념.

장군님 제일 사랑하시는 인간; 신념이 굳세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 의지가 꺾이지 않고 굽어 들지 않는 인간.

장군님 제일 경멸하시는 인간; 신념이 없는 인간, 의지가 나약하고 겁사리 꺾이는 인간.

장군님 사랑하시는 미; 소박성과 순결성.

장군님 제일 좋아 하시는 색과 기발; 붉은색과 붉은기.

장군님 사랑하시는 노래; 철확성이 있는 노래.

장군님 좋아 하시는 계절; 백두산의 설경이 펼쳐지는 겨울.

장군님의 특이한 취미; 말타기를 좋아 하시고 말을 타셔도 쏜살같이 달리시면서 날아가는 목표를 사격하는것.

## 삼지연에서

최영화

### 백두산바람을 맞고 싶어

그리워  
백두고향집이  
무척 그리워

일흔다섯에 내  
걸음걸음 늙음을 묻으며 오르는  
그리움의 길 백두산길

인생 황혼이 더 질기전  
한번 다시 더 한번  
백두산바람을 맞고 싶어

비록 머리는 희였어도  
넋은 청청 푸르려  
가는 길에 푸르름만 서리네

### 붓나무거리에서

붓나무 붓나무  
부를수록 그 이름 사랑스럽고  
볼수록 그 모습 정이 드는  
아, 붓나무

뽕죽지붕이 울긋불긋한 사랑의 집들이  
떨기떨기 피여 난 꽃들처럼 아름다운  
수림속의 거리, 10리 넓은 도로에  
하야니 설레는 붓나무가로수들의 숲

그 이름, 이름 되어  
그 모습, 길이 되어  
삼지연땅에 새로 솟아 난  
《붓나무거리》

마치 은혜를 보는듯  
하늘의 은혜는 견우직녀 전설로 흐르지만  
삼지연 은혜는 《이민위천》전설로 설레여라  
아, 백두산사람들을 위한 장군님은정이어!

### 이깔나무 붓나무

백두산에서 태어나  
백두밀림에서 자라  
정이 깊어 진 두 나무  
이깔나무 붓나무

성산의 땅이 좋아  
밀림의 물이 좋아  
이깔나무몸매 미끈한 미남 되였네  
붓나무몸매 아름다운 미녀 되였네

한쌍의 이 미남미녀  
키워 준 은혜 하도 고마워

그 미를 백두땅  
삼지연 새 거리 풍치에 바치였네

이깔나무는  
별장 같은 새 주택 정원수가 되어  
붓나무는  
넓게 열린 새 거리 가로수가 되어

함께 한껏 설레이는 두 나무  
이깔나무의 그 청신한 미와  
붓나무의 그 순결한 미는  
한쌍의 사랑의 미모라네

## 살아 있는 인간의 초상

홍현양

생활은 말없이 흘러 가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속에 잊혀 지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진하게 그려져 있는것을 종종 찾아 보게 된다. 특히 뜻 깊은 2월을 맞은 이즈음에 와서 우리 주체문학건설에 이바지한, 소문없이 수많은 후비를 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때문에 생활의 길동무처럼 항상 우리곁에 있어 주는것일까?

일생의 거의 전부를 조선작가동맹 기관지들을 편집출판하는 사업에 바치고 20세기를 돌이켜 보는 새 세기의 오늘날에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찾아와 준다.

작가는 지면과 떨어져 살수 없으며 그것이 숙명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나는 스무살을 갓 넘긴 젊은 나이에부터 우리 나라의 이름 있는 작가들은 물론 1950년대부터 문학대렬에 들어 선 사람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과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

체험에 의하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겸손하고 사심이 없으며 고지식한것이 특징이다.

작가들의 활무대이며 운명공동체라고 말할수 있는 지면을 맡아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물들의 초상을 각이하게 가지고 있다.

그가 오랜 작가이건 새로 자라난 작가이건 관계없이 지면앞에서는 거짓을 숨길수 없을뿐 아니라 작가수업을 얼마만큼 하였는가 하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게 되어 있는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바와 같이 작가는 혁명가이며 인민대중의 랑심의 대변자이다.

깨끗한 랑심과 자기 수양이 없이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높으신 뜻에 오를수 없는것이 작가이다.

작가라며는 자기의 세계와 개성이 있어야 하며 한편의 서정시, 한편의 수기를 내놓아도 민족과 인류앞에 주는 자기의 몫이 있어야 한다.

자기의 몫은 작가의 넓이며 사람들을 투쟁으로 선도하는 작가의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명실공히 말없이 받들어 대지에 씨앗을 뿌려 가듯 우리 문학운동의 거대한 대지우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작가의 숨결을 피처럼 넣어 준 그런 사람은 참된 인간의 모습으

로 영원히 남아 있다.

대끝에서 대가 자란다고 작가의 넓이 심어지어 다음 대의 작가가 성장한다.

제것이 있는 작가만이 다음 대의 작가를 키울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작가들가운데 시인 김순석에 대한 생각이 새 세기에 들어선 지금에도 더욱 뜨겁게 갈마드는것을 어쩔수가 없다.

시인 김순석은 평양문학대학과 그후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에서 다년간 교편을 잡고 우리들에게 시문학 강의를 해주었다.

열정적이고 다정다감한 시인은 자기의 서정시처럼 마음씨 또한 순결하고 티없이 깨끗하였다.

태줄 묻은 곳은 함경북도 라남땅, 임진왜란의 처절한 칼부림속에 피와 눈물의 대하가 흘러 넘친 하늘밑에서 20세기 20년대에 나라 없는 설움을 안고 천성적인 절름발이로 첫 걸음을 땀 김순석은 한 많은 세상에 눈물로 인생길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 전반에 강물처럼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질은 정서적색같은 이와 같은 천성적인 운명에 바탕을 두고 있는것 같다.

시인 김순석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서정시인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김소월이 망국노의 설움과 짓밟힌 민족의 존엄을 안고 몸부림친 서정시인이었다면 김순석은 해방된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에서 서정의 바다를 터친 당의 가수였다.

그가 주체37(1948)년 12월에 창작한 서정시 《산나무》와 주체39(1950)년에 발표한 서정시 《공장지구의 별빛아래에서》를 보면 시인으로서 그의 얼굴이 뚜렷이 살아 있는것이다.

그후 주체44(1955)년 5월에 묶어 내놓은 시집 《찌플리쓰의 등잔불》도 물론 외국방문과정에 창작한것이지만 시인의 개성적특징이 명백히 그려진 작품들이었다.

해방후 서정시선집에 들어 가 있는 김순석의 시 《벽동계선장》을 보면 마치 한쪽의 풍경화를 연상시킨다.

려객선이 들어 오는 계선장의 풍경을 음악적인 시적운율을 타고 정서적으로 밝게 펼쳐 보이는 시적화폭은 매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깊은 산간벽지의 이름 없는 계선장에서 려객선을 타고와 내리는 각이한 사람들을 그려 주고 있지만 그 생활화폭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진하게 비껴 있다.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 누구나 마음껏 일하며 공부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한편의 서정가요처럼 노래된것이다.

시인 김순석의 가슴속에 이처럼 풍만한 정서가 샘처럼 늘 솟구치고 있었기때문에 《자기 감정의 그릇》, 《서정의 그릇》을 시인마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 대학시절 졸업논문 변론장에서 있던 일이었다.

그때 우리 학급을 담임했던 김순석은 나의 졸업작품 5편에 대해서 우점과 약점을 지적해 주면서 서정시 《나의 집》의 감정세계를 주도적으로 틀어쥐고 앞으로 개성을 형성시켜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서정시 《나의 집》의 기본 사상감정은 부모 잃은 고아의 눈물을 씻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에 보답하려는 소박한 세계가 노래된것이었다.

이 감정은 나의 체험을 그대로 형상한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동무는 이 감정을 항상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고여 있던 고아의 눈물에 붓을 적서 가지고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을 노래한다면 시인으로서의 개성이 형성되리라고 보아지오.

이 문제를 참작하는것이 좋겠소.》

대학문을 나서는 마당에서 시인 김순석이 하여준 이 말은 지금도 귀가에 쟁쟁히 들려 온다.

남의 글을 보며 개성의 꽃을 형성시켜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 천태만상인것처럼 글의 정서적인 색깔도 다양하고 감정 또한 미묘하기 그지없는것이 다.

그 미묘한것들가운데서 하나를 명백히 짚어 주는 능력은 제것이 있는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재간이라고 생각한다.

시인의것은 시인만이 줄수 있다.

시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정의 그릇》을 형성시키는 방법론을 실천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글을 다루고 창작하는데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에로 달려 올수가 있었다.

그는 시인으로서뿐아니라 교육자로서도 자기 제자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세대가 없이는 우리 세대가 있을수 없으며 우리 세대가 없이는 다음 세대가 있을수 없습니다.》**

인간생활에서 세대는 부단히 교체되기마련이다.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 준 정신적재부가 있기때문에 력사는 전진하고 발전한다.

시인 김순석은 우리보다 전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는 전 세대 교육자로서 또 시인으로서 우리에게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배워 주었고 솔선 모임을 보여 주었다.

그는 우리의 대학졸업작품창작을 위한 생활체험지를 마음의 고향 만경대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강선제강소(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로 잡았다.

오늘도 그 당시 시인 김순석과 같이 제강소 강철직장과 강선의 백양나무아래서 찍은 사진을 보면 저절로 《선생님, 상처가 좀 어떻습니까?》라는 물음이 불쑥 튀어 나오곤 한다.

시인은 대답이 없다.

그러나 사진속에 찍힌 그의 얼굴 아래턱 부위에는 외상치료를 받고 하얀 가재천을 네모 반듯하게 접어 붙인 자리가 지금도 인상적으로 눈길을 끌고있다.

그는 그날의 모습 그대로 서있는것이다.

한쪽 발을 불편하게 절면서 외상치료까지 받은 몸이었지만 우리들의 졸업작품을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게 완성시키기 위하여 만경대 고향집과 만경봉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체득시키기 위하여 애썼을뿐 아니라 야외의자에 앉아 중풍난단 사람처럼 손을 떨면서도 권고들을 한자 두자 깐깐하게 교열하며 정서를 묻혀 주고 형상의 옷을 입혀 주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강선에 내려가 실습을 하던 때였다.

어느날 점심시간이 되여 우리가 시인에게 시간을 물어 본적이 있었는데 그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문을 알수 없어 하는 우리들에게 시인은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김동무가 만경대에 보충 취재하러 가겠다고 돌아 오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내 시계를 채워보냈소.》

강선에서 만경대까지는 결코 먼 길이 아니다.

제자의 취재를 보장해 주고 돌아 올 시간까지 드림없이 맞추어 준 시인의 이 한 토막 일화에서 바닥을 들여다 볼수 없는 인간의 깊고 뜨거운 정을 엿볼수 있었다.

그 정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적서 주고 있다.

시인의 그 시계는 시간만 맞춰 주고 있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넓이고 개성인 서정시의 정서를 오늘도 끝없이 퍼올려 주고 있다.

이렇듯 불 같은 심장이 불 같은 노래를 냈고 이렇듯 사랑과 인정으로 가득찬 심장만이 서정시의 정서를 낳을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심장을 지닌 인간이었기때문에 시인 김순석은 제자들의 작품을 신문과 잡지, 방송에 내보내는 일이라면 자기가 직접 원고들을 들고 편집부의 문턱에 불이 일도록 다녔다.

오죽이나 극성이었으면 김순석이 출판사나 신문사에 나타나면 편집부에 있던 사람들이 《여보게, 저기 바이론이 또 나타났네》라고 통삼아 말들을 했겠는가!

아마 김순석이 자기 서정시 몇편을 내겠다고 오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것이다.

절룩절룩하는 걸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작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하여 힘든줄 모르고 찾아오는 시인이었기때문에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바이론을 련상했을것이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동맹과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다음해라고 기억된다.

시인 김순석의 졸업실습 지도를 받은 구희철, 동기춘, 안상원을 비롯한 그해 졸업생들이 창작한 계급교양주제의 시초가 《문학신문》에 발표되어 사람들속에서 감탄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그때 그 시초가 발표된 《문학신문》을 받아 읽으면서 매 시편에 절절하게 관통되어 흘러넘치는 시적정서와 함께 짙은 향토적색채를 보고 시인 김순석의 숨결도 같이 감수할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가지었다.

꽃은 가지에 피어 나지만 그 송이마다 즙을 주고 달디단 향기를 담백 안기여 주는 뿌리를 떠나 열매를 생각할수 없다.

시인 김순석은 그 꽃과 열매의 뿌리와 같았다.

시간은 정지를 모르고 달린다.

사람의 심정도 그 시간을 따라 쉬임없이 뛰고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남겼는가 하고 묻는다면 시인 김순석은 자기의 서정시와 함께 우리 문학의 후비를 키우는데 한몫을 남기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는 《자기 감정의 그릇》, 《서정의 그릇》을 강그리 기울여 우리 문학의 후비들이 자라는 토양을 풍만하게 적셔 준 시인의 한사람이다.

그만큼 그는 자기 작품에 대한 요구성도 비할바 없이 높이 세워 놓고 창작한 시인이었다.

내가 시인 김순석에게 서정시를 청탁해서 그것을 잡지에 편집할데 대한 분공을 받고 어느날 그의 집을 찾아 가서 문은 두드렸을 때는 저녁무렵이었다.

시인과 마주 앉아 작품의 주제와 편집부의 요구를 이야기해 주고 한주일후에 원고를 받으러 오겠다고 일정을 그었다.

그런데 한주일 후에 내놓은 작품을 보니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인 김순석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독특한

정서적색깔이 살아 있지 못하였던것이다.

나의 의견을 듣고 난 시인은 아무 말없이 원고를 다시 받아 집어 넣으면서 이틀후에 만나자고 하였다.

약속된 날자에 또 찾아 갔으나 그는 원고를 끝내 내놓지 않았다.

나는 시인에게 사정하да싶이 간청하였다.

《편집공정이 다 됐는데 우리 잡지를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잡지는 잡지이고... 시인의 녀이 없는 글을 내서 뭘 하겠소. 그거야 종이장에 불과하지...》

빈 손으로 돌아와 김순석의 원고를 계획대로 편집하지 못한 탓으로 나는 호 총화때 눈물이 찢끔 나올 정도로 호된 비판을 받았다.

그때의 야속하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신을 채찍질 하며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의 작품에 스스로 《사형》을 언도한 시인의 그 모진 고통에 비한다면 나의 야속한 마음이 그보다 더 아플수는 없는것이다.

오랜 날 오랜 세월 편집출판사업을 하면서 이런 인격의 소유자는 드물게 보아 왔다.

시인은 그후 교편을 놓고 대학에서 나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다가 그만 불치의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림종이 가까이와 음을 느낀 시인은 최후의 그 시각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고 싶어 우리들을 찾았다.

나는 그 당시 복부 중수술을 받고 병원 침대에 붙잡혀 있던 몸이여서 마음은 불같이 달려 갔으나 시인의 곁에 발걸음은 가닿지 못하였다.

자리에 움짱 못하고 누워 있던 시인은 병문안을 온 제자들에게 자기의 머리를 빗어 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사랑과 정을 불같이 쏟아 주던 시인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빗어 주는 그 모진 아픔과 슬픔을 어찌 흐르는 눈물로 다 가서 낼수 있었으랴.

자기의 머리를 다 빗어 준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시인은 기적같이 일어나 담벽에 등을 대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향해 정중히 앉았다고 한다.

말없이 두분의 인자하신 영상을 우러르던 시인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제자들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인은 이렇게 갔으나 그의 노래는 남았다.

그는 사심없이 살았으며 그가 심고 가꾼 무성한 《산나무》들이 우리 주체문학 대오에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가 키운 사랑하는 제자들의 글속에, 마음속에 그 시인은 오늘도 산 인간의 초상으로 남아 있다.

## 시대와 함께 숨 쉬는 작가가 되고자

### 《김일성상》 계관인 김문창

어떻게 씌여진 작품이 시대와 함께 남는가? 그에 대해 여러가지로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이 작품이 담고 있는 심오한 사회적문제성이라고 생각한다. 명작들은 레외 없이 모두가 당대의 사회본질을 담아 해결을 바라하는 심원한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하고 그것으로 하여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사회적문제성은 작품의 생명력이며 그것은 곧 작가의 생명력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하다면 작품의 심오한 사회적문제성은 어떻게 담보되는가? 사회주의현실을 취급한 작품인 경우 그것은 당의 의도를 얼마나 민감하게 또 심오하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하여 작품이 수령의 뜻과 바라시는 의도를 얼마나 폭 넓고 깊이 대변하고 있는가에 따라 사회적문제성의 무게가 결정된다고 본다.

나는 장편소설 《열망》 창작을 통하여 그것을 심장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편소설 《열망》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의 첫 봉화를 지펴 주신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들의 《고난의 행군》 시기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작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며 강성대국의 새 시대를 열어 주시였다.

바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도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굽이치고있었다.

내가 기업소에 내려 갔을 때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는 자못 앙양되어 있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어느 직장에 가나 《자력갱생기지》를 꾸리고 없거나 부족한것을 자체로 만들어 해결하면서 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었다. 주강직장에서만도 전극을 자체로 만들어 쓰며 필요한 부원료들을 찾아 내어 전기로를 돌리고 단조직장에서는 새로운 가열로를 창안도입하여 석탄을 40%이상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었다. 이밖에도 가공직장들에서는 각종 공구와 연마석은 물론 벨트까지 자체로 만들어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사실상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였다. 중앙과 도에서 내려 온 일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고 신문과 방송에서도 기업소의 생산성과를 널리 소개하였다.

나 자신도 그들의 투쟁열의에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한결 같은 일본새와 투쟁기풍을 작품에 담아야 할 문제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들속에 깊이 침투함에 따라 저도 모르게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공구강을 자체로 생산해 쓰거나 가열로를 개조하여 수많은 석탄을 절약하거나 천리밖에서 실어 오던 부원료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는것 등은 공감미 갔으나 일부 《자력갱생기지》들에 대해서는 은연중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실례로 전극생산만 하여도 기업소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고 있었지만 생산공정이 랍후하고 전극의 질이 낮아 강철 톤당 전극소비가준을 4배나 초과하고 있었다. 더우기 용해과정에 자주 사고가 발생하여 쇠물의 질을 떨어뜨렸을뿐아니라 때로 위험을 동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였다.

《어찌겠습니까. <흰쌀밥>대신 <강낭밥>을 먹으면서라도 전기로를 돌려야지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쇠물을 뽑아서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불굴의 투지는 참으로 존경할만 한것이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산을 계속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수 있지 않는가, 생산원가를 초과하고 낭비를 초래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의가 있으며 확대재생산에 지장을 주게 될것이 아닌가. 그때가지고서야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경제강국을 앞당겨 건설해 나갈수 있겠는가. 자력갱생은 마땅히 수익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어야지 당면하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으로 해서는 나라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리득을 주겠는가. 하기에 답습이 아니라 창조적인것으로 그것도 세계적수준에서 해야 경제강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생각이 깊어 갈수록 선뜻 붓을 들수 없었다. 작품에 자칫 잘못 형상하였다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는 시대의 지향에 저촉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



려가 앞섰던탓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 기업소 일꾼들이 기업관리를 간지게 짜고 들데 대해 가르치시면서 지금 공장, 기업소 지배인이나 당비서들도 하루에 정전이 몇번 되는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도 제품을 만드는데 생산원가를 얼마나 낮추었는가, 수익성을 얼마나 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수익성이 없는 제품은 생산하지 말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제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족점들을 속속들이 헤아려 보시고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아 안은 나는 저절로 배짱이 생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의도를 어떻게 작품에 형상하겠는가 하는 높은 목표만 떠오를뿐 나는 창작에서 조금도 주저되는것이 없었다.

하여 나는 장편소설 《열망》에서 오늘의 자력갱생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세계적수준에서, 그것도 자기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적인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실리를 내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사회적문제성으로 제기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이 그 실현을 위해 어떤 열망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 주려 하였다.

작품이 텔레비죤편속극으로까지 각색되어 방영된 후에 나는 많은 당일군, 경제지도일군들을 비롯하여 여러 계층의 독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작가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어떻게

그처럼 일찌기 알고 소설에 제기할수 있었습니까. 정말 그 선견지명이 놀랍습니다.》

《우리 지배인이나 기사장들이 어떻게 기업관리를 짜고 들어야 하겠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소설에서처럼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3위1체가 보장되면 못해낼 일이 없지요.》

나에게는 남다른 창작적재능이 없다. 더우기 그 어떤 선견지명은 생각할수 없다. 있다면 오래 동안 현실속에 들어가 로동자들과 이웃하여 살면서 쌓아 온 현실체험뿐이다. 그러한 내가 어떻게 되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민들이 공감하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사회적문제성을 작품에 심고 현실 그대로 전개해 나간데 비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명실공히 위대한 장군님의 작가들이다.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높은 뜻을 대변하는 작품을 창작하는데 우리의 사명과 본분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창작에서 근본을 이루는 핵이며 우리가 철두철미 지녀야 할 창작자세이고 신념이다.

나는 현재 창작중에 있는 새 장편소설에서도 장편소설 《열망》을 쓸 때와 같은 창작자세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서 시대적인 문제성을 찾아 작품에 심어 주고 풍만한 현실속에서 꽃을 피워 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겠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나는 다시금 가슴속 맹세를 가다듬는다.

## 불 라는 마음

차승수

어머니 젖줄기처럼  
그대 은정 마시며 자라난 이몸  
은혜로운 햇빛처럼  
그대 사랑 감싸 안고 성장한 이몸

입은 은혜 깊으려  
첫 걸음 떼며는  
더 큰 믿음으로  
삶의 절정에 세워준 그대

심장의 끓는 피  
마지막 한방울 이몸에 남겨둔채  
내 만일 고동을 멈춘다면  
그대앞에 어이 눈 감을수 있으랴

땀땀이  
후련히  
미소를 남기며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앓으나 서나  
초불로 타고 싶은 이 마음  
자나깨나  
초불로 타고르나니

이 가슴에 고동치는 숨결  
마지막 호흡까지  
그대의 온기로 더해지고 싶어  
그대의 빛으로 보태지고 싶어...

# 래양에 드리는 기도

김이석(남조선)

한 늙은 녀인이 제단우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험한 주름살들이 가득 얹힌 녀인의 얼굴과 마주 모아 든 두손에선 어두운 비애가 언뜻 느껴온다.

(!)

목사는 녀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의 장례를 방금 치르고 돌아 와 성상앞에선 신자!

안식교도인 이 녀인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아들의 령혼이 저승에서나마 참된 안식을 얻으라고 빌고 있는가?

불쌍한 아들의 운명에 어머니로서 줄수 없었던 행복을 하느님께 부탁하려는것인가?

녀인의 눈길은 어쩔지 공허하다. 그렇다. 목사의 마음 또한 공허하다!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제겐 이제 그 애 하나 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K 공단에서 일어 난 화재사고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들을 두고 가엾은 이 늙은 과부는 목사를 하느님처럼 올려다 보았었다.

《신께서... 아드님을 도울것입니다.》

목사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녀인의 아들은 공단측에서 응당 받아야 할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고 빈사상태를 헤매다가 끝내 눈 한번 다시 떠보지 못하고 죽었다.

목사는 지금 《신께서 도울것이다.》라고 녀인에게 했던 자기의 그 말, 교직일생 50여년간 그 많은 신자들앞에서 스스로 없이 외워 오던 그 말, 자신의 마음에도 스스로 일러 오던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무서운 의혹에 사로잡혀 있었다.

신은 과연 저 불쌍한 녀인의 아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다난한 세상의 모든 고뇌를 벗어 나 영원한 자신의 품으로 데려 간 은혜로써?

자비한 신은 어쩌서 아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삶을 달라고 빈 신자의 애절한 청원을 거절하였는가?

목사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때 기도실에 올리는 찬미가의 대목이 바야흐로 그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

평강의 왕 립하니

다 평안하여라  
분요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기도실의 둥근 천정을 감돌아 머리에 내리는 그 우미한 선물과 음향들이 목사에게 피로왔다. 크나큰 신의 존재와 그의 뜻이 언제인가는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령혼들에 복된 안식과 평온을 주리라던 이 노래, 희망과 믿음이 강렬한만큼 꿈처럼 아름답게 들리던 그 명상의 하모니(화성)들이 이 시각엔 한 없는 의혹과 번뇌를 불러 오고 있었다.

기도회가 끝나고 신자들이 돌아 갈 때 목사는 신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녀인에게 주려 했다. 녀인은 멍청하니 그것을 받아 쥐었으나 인차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이건 하나님께 바친 돈인데... 안됩지요. 목사님.》

녀인은 거절하며 돌아 섰다. 목사에게 녀인의 그 말이 어떤것에 대한 숨겨진 원망 혹은 비난으로 들려왔다.

《...》

우두커니 선 목사를 뒤에 남긴 녀인은 힘겹게 걸음을 옮겨 교회당앞의 골목길로 사라져 갔다. 녀인이 사라진 길쪽에서 늦겨울의 차갑고 메마른 바람이 불어 왔다.

교회당앞에 서 있는 오래 된 회양목이 거인의 슬픈 탄식인양 잎새를 술렁거리며 이미 죽어 버린 잎사귀들, 겨우내 용케도 매달려 있던 고엽들을 아지마다에서 털어 버린다. 락조를 받아 붉게 물들어 버린 잎새들을 뚫고 저물녘의 피빛 해살들이 조각조각 떨어 졌다. 목사는 나무밑에 묵묵히 서있었다...

목사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 섰을 때 앞에는 교회당의 젊은 집사가 서 있었다.

《목사님, <제일가구> 한성조사장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목사는 이제 비로소 오늘 밤 자기가 교구의 신자 한성조씨를 찾아 가야 한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한씨의 부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었다. 부인의 말에 의하면 한씨는 벌써 두주 일째 고주망태가 되어 인사불성인 상태라 했다. 당초에 술이란 절대 금지시하던 사람이 폭주를 했다는 사실이 피이하거나 별써 한달이나 교회

와 련계가 끊어 진 불민한 신자를 찾아야 할 성직자로서의 의무도 있는것이어서 그는 한씨의 부인에게 집으로 찾아 가겠다는 약속을 했던것이다.

손목사가 《제일가구》사장 한성조씨의 집이 있는 강남구를 향해 교회당을 떠날적엔 온 도시가 혼돈의 환락과 도취의 열광속에 막 빠져 들어 가는 밤이었다.

차가 없는 목사는 걸어서 갔는데 택시를 부르지도 않았다. 순회설교를 다닐 때도 그는 늘 걸어서 다녔다. 조부때부터 3대에 걸쳐 교직에 종사한 그의 집안은 《유족한 목사란 하나의 모순》이라는 빅포르 유고의 견해를 철저히 긍정한 사람들로서 언제나 청빈한 생활태도를 유지해 왔다. 허나 지금 같은 세월에 그 같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고결한것으로 찬양되는 일은 극히 적다. 일례로 최근 목사는 《권위와 부에 대한 집착, 그리고 교회의 도그마(독단)》라는 글을 여사여사한 잡지들에 기고하여 교회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는데, 사실 그는 그 일로 하여 교단의 일부 상층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사기까지 했던것이다.

손목사는 혼잡의 거리를 걸어 갔다.

사방에선 도락을 강요하는 자극적인 불빛들이 눈을 찌르며 짓쳐 들어 왔다. 디스코텍(무도장)의 번들거리는 유리문을 위태롭게 뒤흔들며 광적인 리듬이 날뛰고 있다. 차도우에서 바퀴들처럼 부산스레 뱅뱅이는 차량들, 인도우에서 서성거리는 인종들... 거리는 어디나 소음, 인적, 차량의 막다른 혼잡이다.

매연에 시달려 자연의 신비한 생기를 깡그리 잃어 버린 달이 검은 하늘 한가운데서 림종한 인간의 창백한 얼굴마냥 괴이쩍고도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도시에서 옛 시인들이 시정을 구하던 아름답고 깨끗한 달을 바란다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푸른 하늘이 이미 없어진 도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회색 하늘이 아닌 파아란 하늘을 찾아 주자!》

록색운동자들의 목 멘 고함소리는 자본의 거대한 공룡들과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한갓 피라미(작은 민물고기종류)들의 횡설수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무겁고 숨 막히고 어두운 하늘아래 울적한 자, 기고만장한 자, 떠드는 자 등-맹목하고 무자비한 무한경쟁에서 돌려 나와 어깨를 움츠린 실업자로부터 벌건 얼굴로 알콜냄새를 풍기며 무소불위의 방악무인한 폼(자세)으로 대도를 활보하는 쥐. 아이(G. I-미군병사)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가 홍수처럼 흐른다.

비참과 환락, 굴욕과 오만, 관능과 탐욕, 질서와 랭소, 경멸과 증오...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을

뿐더러 도저히 상치될수도 융합될수도 없는 각이한 《사상》들의 각종 비루스들이 속속들이 스미고 끓아 들어 거대한 종양을 앓고 있는 이 도시, 묵시록적인 종말을 향해 광란의 걸음, 최악의 행진을 하고 있는듯한 불길한 도시-서울이다!

서울이 과연 불길한 곳이라는 사실은 지판들의 풍수지리설에 귀를 강구지 않아도 리성계의 천도이래 이 도시가 기록해 온 상서롭지 못한 연혁을 알거나 지금 눈앞의 형태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쉽게 직감할수가 있다...

목사는 어떤 광경앞에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무뎠다.

《개전용》간판이 달린 체인스토어(개의 먹이나 용구를 파는 견쇄매점)의 화려한 문을 열고 나온 한 유한 마담이 번쩍거리는 미국산 신형 캐딜라크승용차에 밉크털의투로 감싼 날씬한 몸을 싣고 있다. 아이새도우(눈치장용화장품)를 진하게 칠한 녀인의 검푸른 눈시울이 상점불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부인의 허리를 감돌던 커다란 개가 차안의 폭신한 좌석우에 무릅없이 뛰어 드는데, 개의 목줄을 쥔 그 녀자의 통통한 주먹우에선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빛난다.

(?!)

목사의 뇌리를 아프게 스치는 의혹이 있다.

저 손이 평생 다른 누군가의 설움때문에 젖어 볼 일이 있을까?

언제 한번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용의가 있는 손일까?

목사의 눈앞에 또 하나의 손이 떠올랐다. 그것은 아들을 살릴만 한 돈을 구할수 없어 눈물만 닦던 늙은 신자 녀인의 마른 나무등걸 같은 두손이다.

《신은 하늘아래 높고 낮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그가 신자들앞에서 늘 외워 오던 그 신성한 말은 혼연한 기만이었던가?!

목사는 점점 비참한 생각에 빠져 들었다.

목사가 강남구 X×번지에 있는 한씨의 집에 당도했을 때 부인은 황황히 달려 나와 그를 맞이하였다. 한씨의 부인은 상당히 겁에 질려 있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 주인이 막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

아들에게 부축되어 나타난 한사장은 과연 녀이 나간 사람이였다. 강한 알콜기운이 다가서기도 전에 확 풍겨 왔다.

《한형.》

《무고... 하셨... 습니까. 목사...님.》

사장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참회... 받으려 오셨군요. 예- 해답지요. 지은

죄는… 마땅히…》

그는 목을 젓히고 천정을 한참 노려 보다가 고개를 다시 떨구더니 갑자기 꺾꺾 느껴 울기 시작했다.

《한형, 왜 이러시오?》

《목사님, 난… 나쁜 놈… 울시다. 하나님을 속여 온… 놈이에요.》

주저앉은 한씨는 허연 머리칼을 드리우고 물었다. 아들이 일으키려 했으나 그는 뿌리치며 고향을 질렀다.

《비켜! 비루한 목숨이다. 죽어 한푼 아까울게 없다 그 소리여… 살고 싶지 않다.…》

《…》

손목사는 끝내 한씨와 아무런 얘기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 왔다.

그는 그토록 정직하고 진실했던 신자 한사람이 무슨 연고로 그런 광태를 부리고 있는가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나 추측을 가질수가 없었다. 그저 오리무중일뿐이었다.

다만 그는 한씨가 내뱉은 그 한마디의 말, 《살고 싶지 않다》던 그 말을 곱씹어 외워 보고있었다.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은 한성조씨와 오랜 인연을 가진 손목사에게 실로 많은것을 생각해 해주는 말이다. 한성조씨는 목사와 처음 만났을 때(그것은 48년전이다!) 그런 말을 했었다. 목사앞에서 그가 그런 말을 한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교회당에 돌아 온 손목사는 기도실에 홀로 앉아 하많은 생각에 잠기었다.

제단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목사의 눈앞에 아득히 지나간 옛일들이 되살아 펼쳐진다. 그가 성상앞에서 홍안의 한 사내와 함께 서서 그 사내를 위한 첫 기도를 올리던 48년전의 그 일을 목사는 추억했다.

1951년 3월, 전쟁의 회오리가 전토를 휩쓸던 그때, 수원피난민수용소에 복음전도를 나갔던 스물두살의 젊은 집사 손영환은 수용소병사 한구석에 거적을 쓰고 누워 있는 한성조를 만났다. 스무살이 되나마나한 어린 류랑민의 매력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전쟁통에 그가 인가를 다 잃고 어린 누이동생 하나를 데리고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수원으로 오기전에 그 누이동생마저도 미군의 폭격에 잃어 버린 청년이라는 사실만을 얼터름히 알고 있을뿐이었다. 그의 고향은 삼척 어딘가라고 하였다. 목사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폐염에 걸려 방치된채로 거의 죽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들으니… 거기선 무슨 안식에 대한 얘길 하신다드군요.》

《나는 예수교 침례교회의 한 교파인 안식교에 몸을 둔 성직자입니다. 안식교는 주께서 내리시는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가져다 주려는 신앙이지요. 당신이 신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소만 나는 어차피 당신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만두세요. 전 하느님이라는걸 믿지도 않거니와… 또 난 죽은 담에두 편안치 못할 놈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신은 모두를 도우십니다.》

《제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빨리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

삶의 욕구가 한창 뿜어 나는 애어린 나이에 생을 포기하려 드는 가엾은 정상이 손영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설사 죽는다 쳐도 무덤에 흙 한줌 뿌려 줄 이가 없는 외로운 류랑자! 젊은 집사의 가슴엔 참기 어려운 연민이 끓어 올랐다.

항차 복음서 어느 구절에는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꿀수 있겠느냐》고 한 그리스도의 말도 있지 않는가.

한성조는 손영환의 집에서 지극한 구원을 받았다. 다시 살아난 한성조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할 때 영환은 그를 교회당에 데려 갔다.

실로 그는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령혼도 구했노라고 신앞에 땀뿜이 아뢰일수 있는 일을 한것이였다. 약관의 성직자는 그때 자신이 예수가 제자로 데려 갔던 씨몬이나 안드레처럼 《령혼을 낚는 어부》로 된것 같은 감격을 맛 보았다. 실제로 그는 제단앞에 선 한성조가 신앞에 서약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렸던것이다.

안식교도가 된 한성조가 그후 막벌이로 곤질기에 모은 돈을 가지고 가구업을 시작할 때도 손영환은 힘이 자라는것 그를 도와 주었다. 친구로서, 교우로서 한성조는 일후 50여년의 세월에 탈선하지 않는 성실한 신도의 길을 걸었다.

신은 그에게 정말로 은총을 내린듯 했다. 창업이래 30년만에 그의 가구제작사는 남조선전역의 가장 유명한 가구업체의 하나로 되었다. 전쟁에서 일가를 다 잃은 불운을 지닌 그에게 부를 줌으로써 운명의 불미한 결손을 보장해 주려 했는지?

가구제작가(한씨는 가구제작이 하나의 예술임을 자부하기도 했다.)로서의 그의 일생에서 백미를 이룬것은 얼마전에 그가 몇십만팔라의 가격을 가진 초호화판침대를 제작해 낸 일이었다. 신화적인 제작가로 전 유럽에 알려 진 이탈리아의 알페오 마르치니와 합작하여 만들어 낸 그 침대는 영국의 《기네스기록집》에 세계의 가장 훌륭하고 호화로우며 값 비싼 침대로 기록되고 그 증거가

수여되었다.

한성조씨의 이름이 알려 지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밀려 들었다. 플래시를 번쩍거리며 마이크를 들이대는 그들앞에서 한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집대의 이름은 <아가페(신의 사랑)>라고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와 안식의 참된 발견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엔 저의 작은 마음을 이날까지 신의 뜻대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제자가 계십니다. 손영환목사님께 박수를 보내주시시오.》

한성과 박수속에 늙은 목사는 눈시울을 붉혔다. 목사는 한씨의 가슴에 빛나는 자그마한 십자가를 감개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각 목사의 눈에는 적어도 한사람의 완벽한 신자가 보였다. 신에게 모든것을 의지하고 신의 구제를 받은 자 - 그가 바로 저 한성조란 인간이라고 목사는 생각했다. 한성조는 그가 평생을 바쳐 온 그리스도 정신의 실현의 산 증거였다. 한성조란 사람을 손영환목사의 분신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목사는 구태여 부정하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오늘의 한성조씨는 무엇인가? 신에 의해 령혼의 안식을 찾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어째서 저렇듯 번민하고 있는가. 무엇때문에?

목사는 최근 자기한테서 일어 난 《신에 대한 의혹》이 한씨한테서도 일어 난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지 않는가.

(?!)

그러나 이것은 무서운 생각이였다. 목사는 자신보다 한씨를 더욱 믿고 싶었다. 오히려 목사자신이 한씨에게 의지하고 싶어 지는 야릇한 심적 뉴대가 언젠가부터 형성되었다는것을 목사는 알고있었다. 만약 한씨의 정신생활에 어떤 이변이 생겼다면 그것은 곧 목사의 리념과 신임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될것이다.

목사는 날이 새도록 고뇌속에 잠겨 있었다.

목사가 다녀간후에도 한사장의 《광태》는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 집안식구들중 누군가는 정신병전문의사의 방조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회사직원들은 사장이 피이한 로망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을 수군거렸다. 그러나 목사가 다녀 간지 6일째 되는 날 부인은 한씨가 정장을 하고 자기 방에서 나오는것을 보았다.

《목사님, 왔다 가신지 며칠 됐어?》

《옛새째예요.》

자기를 의심스레 바라보는 가족일동의 시선 같은건 안중에 없이 한씨는 무거운 낮빛으로 집을 나섰다.

《어딜 가시지요?》

《교회당엘 다녀 오겠소.》

그것은 손목사에게 간다는것을 의미했다. 그에게 교회와 손목사를 하나로 생각하는 오랜 습관이 있어 늘 목사를 이름대신 《교회당》이란 말로 지칭하곤 했다. 그가 떠나자 부인은 얼마간 안도의 숨을 내쉬며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간 목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씨의 소식을 물어 왔던것이다.

목사를 찾아 가는 한성조씨는 일생 해온 생각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목사를 만나는 첫 순간에 한씨는 이 령감도 이제 퍼그나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주름이 많은 창백한 얼굴, 머리는 완전한 백발이다. 그 백발을 흔들며 주섬주섬 일어 나는 목사를 본 한씨의 가슴 한구석에 이름할수 없는 구슬픈 애수가 찌르르 흘러 들었다. 하긴 그들은 둘 다 칠십객의 늙은이들이 아닌가.

한씨는 목사앞에 죄지은 사람모양 온몸을 웅송 그리며 앉았다. 이제 그는 이 정직하고 선량한 늙은이에게 너무도 놀랍고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목사님, 제 친히 말씀 올릴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형을 기다렸지요.》

한씨는 목사에게 가져 온 책자 하나를 조심히 내밀었다. 그것은 연한 옥색의 표지장장에 《XX 문학》이라는 표제가 씌여 진 책자였다.

《북에서 발행하는 문예책자입니다.》

목사의 눈에 비낀 의혹을 일별하며 한씨는 책자의 어느 한 페이지를 펼쳐 목사앞에 놓았다.

《나의 인생은 행복이였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줄이 목사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건... 무엇인데요?》

《목사님... 이건... 제... 제 동생이 쓴 글입지요.》

《동생이라뇨?》

목사는 의아하여 한씨를 쳐다보다가 되물었다.

《동생이야 그때 수원군방에서 미군의 폭격에 잃었다고...》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거짓이였습니다지요. 전 그 애를 수원서가 아니라 북에서... 잃었었습니다지요. 그러구 이젠 제 동생이 옳습니다. 그... 이름을 보십시오.》

한씨는 떠들거리며 이마의 땀을 훔치였다. 목사는 펼쳐 진 책자페이지의 제목밑에서 《한류조》라는 필자명을 읽었으나 아직 영문을 알수 없어 머리를 저었다.

《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알수 없군요. 또 북에서 동생을 잃었다는건 무엇인지... 고향이야 삼척이 아니였든가요? 전쟁시기 북에라도 갔던 일이 있단 말씀인가요?》

《아니올시다.》

한씨는 비장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저의 고향은 본시 문천입니다. 목사님! 전 전란때 고향을 버리고 남으로 온… 여기서들 말하는 <리산자>의 한 사람입니다. 전 다만 지금껏 모든것을 숙여 왔을뿐입니다.》

《?》

손목사는 냇을 잃은듯 하였다. 그는 극도의 혼란에 직면했다. 목사는 의식조차 혼미해 지는 감을 느끼었다.…

《목사님!》

한씨의 겁이 난 부름에 목사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 나는 사람처럼 온몸을 떨었다. 그의 눈앞엔 초체하고 겁에 질린 한씨의 모양이 서서히 비껴왔다. 목사는 차츰 그를 뚫어지게 보았다. 목사의 두눈엔 아직 어떤 공포, 비슷한 놀람이 어려있었다.

《한형… 그게 정말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

가연은 목사는 힘이 진하여 의자등받이에 쓰러지다싶이 기대어 버렸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는 48년간이나 그를 숙여 온 사람의 슬픈 형체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아니, 목사는 그의 어깨너머로 우뚝이 보이는 한쪽의 회화를 응시하고 있었다.

벽에 붉은 비로도로 장식한 오랜 성화 《목부의 저녁》이 걸려있다.

…황혼이 짙은 들판, 양떼들이 목부의 주위에 모여 들어 걸음을 다우치고 있다. 새끼양 한마리를 품에 안은 목부-예수! 락조의 후광에 붉게 물든 그리스도의 얼굴엔 자애와 사려가 넘쳐흐른다.…

목사는 슬픈 목소리로 꿈속에서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한형은 저를 지금껏 숙여 왔단 말이지요?》

한씨는 목사앞에 꿇어 앉아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목사님!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신을 숙여온 죄는 하늘이 벌을 내리겠지요. 전 지금 하나님께 참회하러 온게 아닙니다. 손형! 나는 성직자에게가 아니라 나를 살려 주고 그 오랜 세월 나를 혈친처럼 생각해 주신 손형에게 모든 사연을 고백하려고 온겁니다.》

《…》

목사는 파리한 손을 내저으려 했으나 다시 부여잡는 한씨의 아귀 세고 뜨거운 손에 붙들려 가슴에 내리워 졌다. 한씨는 목사에게 모든것을 고백하였다.

…1950년 12월 인민군의 재진공에 의해 패주하던 미군은 문천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을 위력하여 이남으로 끌고 내려 갔다. 원폭공갈에 겁을 먹고 고향을 버린 운명의 수난자들속에 한성

조와 그의 열살잡이 누이동생도 있었다. 그들은 해방전에 량부모를 다 잃은 고아들이었다. 성조는 원자탄에 죽는다는 공포로 자기들을 5년간이나 친혈육처럼 키워 준 정 깊은 사람들과 고마운 민주제도를 버리고 리향을 하였다. 그런데 남으로 내려오던 피난민들은 고성근방에서 미군폭격기들의 폭격을 받았다. 거기서 한성조는 누이동생을 잃었다. 끼니를 얻으려 돌아 다니던 그가 뛰여 왔을때 앓는 동생이 들어 있던 빈 집이 소이탄을 맞고 활활 타고 있었다. 불 붙는 집에서 오빠를 부르며 애 타게 울부짖는 동생의 목소리가 간간히 울려나왔다. 성조는 사위를 둘러 보며 구원을 청했다.

《살려 주세요!》

누구도 그를 도와 주려 달려 오는 사람이 없었다. 미군폭격기들은 연방 폭탄을 던졌다. 혼비백산한 성조는 어디론가 정신없이 도망쳐 갔다. 등 뒤에서는 동생 류조의 애 끊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나는 동생을 불속에 버리고 짐승처럼 도망쳤습지요…》

한씨는 눈물을 찼찼 흘리고 있었다.

《동생을 제 손으로 죽였다는 카인과 제가 뭣이 다르겠습니까.

신앙? 안식교도?!… 그것은 결국 저지른 죄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나는 동생의 생각을 잊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앙에 매여 달리고… 돈에 미친듯이 집착했지요. 그것으로써 모든것을 잊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덧 없는 망상이었지요. 죄에 대한 형벌은 시지프의 무거운 바위처럼 영원히, 꿈이나 생시를 막론하고 나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 저 내리는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제단앞에 나설적마다 나는 무서웠으며… 돈을 벌어 이름이 떠들썩해 질 때가 내겐 가장 슬프고 피로운 날이었습니다. 동생을 내버리고 얻은 신앙! 혈육을 죽이고 버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천연스레 살아 왔을가요? 밤마다 눈앞에 나타나 저주와 원망에 우는 어린 동생애의 모습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

손목사는 지금 여적 들어 본적 없는 비상한 《참회》를 듣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한 신도가 성직자에게 역설적으로 주는 비범한 《설교》일 수도 있었다.

《…손자애가 들고 다니던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살아 있는 동생의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된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회개의 기회일가요? 목사님, 전 이 순간 오늘까지 외면하고 살아 왔던 또 다른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신에 대한 불경스런 외면이라

할지라도...》

한성조씨는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 갔다.

손목사는 책자 《××문학》의 수기를 밤이 세도록 읽고 또 읽었다. 밤이 지새고 미명이 시작된 무렵, 목사는 교회당 앞뜰에 서 있는 회양목 앞에 서있었다.

회양목은 새벽바람에 설렁거렸다. 겨울을 지나 보낸 회양의 푸른 잎새들은 봄의 접근을 확실하며 두려운 기쁨에 떨고 있다. 그것들은 분명 다시 시작될 환희론 양춘가질의 예감에 싸여 더없이 즐거워 하고 있는것이다.

(!)

목사는 잎새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저처럼 생에 대한 긍정과 찬미를 서슴없이 말할수 있는 인간은 행복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생의 복을 노래한, 한 생면부지 너인의 귀중한 글을 다시금 되새겨 보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이 세상천지에 친혈육 하나 없는 외로운 고아로 되었다.

그러나 나는 고아가 아니였다. 나의 조국은 뜨거운 요람속에 한 작은 소녀의 운명을 품어 주었다. 그때 나를 사경에서 구한 이들은 인민군병사들이였다. 나를 구하려고 불속에 들어 왔던 세명의 병사들중에서 한분은 희생되었다...

미국놈의 거짓말에 속아 고향과 조국을 버리고 남쪽으로 떠났던 오빠!

그 오빠의 손에 이끌려 정처없는 류량의 길을 타달타달 걸어 가던 철 없는 어린 소녀!

그 소녀가 오늘 이렇게 몇몇한 대학교수로, 대의원으로, 행복한 안해와 자랑스런 어머니가 되었다...

...오빠! 오빠 생각은 언제나 아물지 않는 일생의 상처이다. 만약 살아 계신다면 이 동생생각에 평생 가슴 태우며 살아 가실 오빠! 오빠는 자기가 버린 조국이 그의 혈육을 이렇듯 복된 인생으로 꽃 피우었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오빠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 쳐도 저세상에서나마 이 동생 류조의 행복한 모습을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가 자기의 조국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그 불행한 녀이 순간에 행복한 녀으로 부활할것이다...》

《...》

목사는 거의나 알고 있었다. 새로운 가치와 생의 진실을 안 한씨가 이제 더 《신》에 의지하지 않을것이라는 사실은.

《제가 령혼의 안식을 찾을 진정한 기회가 정말 다가온것 같습니다.》

떠나가면서 한씨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손목사는 나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석상처럼 서있다.

대기엔 새날의 푸른 빛이 차넘친다. 회양목은 또다시 바람을 안고 술렁거린다. 하많은 사연들... 지나간 세월의 그 많은 이야기들... 목사의 눈앞에 아슴푸레 먼 유년의 하얀 추억이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

소슬바람 불고 쪽빛하늘에선 가을의 해별이 눈부시다. 어린 아이가 교회당앞의 뜰안을 깡충깡충 뛰어 다닌다. 젊은 목사가 뜰안에 작은 회양나무모를 정성껏 심고 있다. 그는 아들의 생일 여섯돌을 축복하여 나무를 심는다.

《이제 영환이 어른됐을 땐 이 나무도 우뚝 클거야. 우리 영환인 그때 무엇이 되지?》

《나 아빠처럼 목사가 될거야. 하늘에 계신 하느님아부지시여,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보살피시와... 해해, 우습지?》

《어이구, 아주 잘하시는데요. 우리 작은 목사님!》

즐겁게 웃는 부친을 말뚱말뚱 쳐다보던 사내애는 머리를 갸웃하였다.

《근데 아빠, 하느님이 정말 저 하늘에 있어? 이렇게 텅 비였는데두...》

아이는 깡충 뛰며 작은 손을 휘저어 보인다. 그러면서 종알거렸다.

《내가 엄마한테 물었어. 엄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거야.>하겠지.》

《하늘에...》

목사는 정말 하늘을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그는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환아, 하나님이란 이 마음속에 계신단다.》

아이는 커다란 손이 없혀진 머리를 호기심에 넘쳐 쳐들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

애는 아빠의 넓은 가슴을 감박거리는 눈으로 올려다 보았다.

《...》

아빠는 더 대답을 하지 않고 아들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지금도 손목사는 마지막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다 보던 부친의 선량하고 정직한 눈길이 잊혀 지지 않는다.

그때 부친은 어쩌서 마지막 대답을 하지 못했는가.

나무가 술렁거렸다. 무수한 잎새들이 저마끔 이야기한다. 생명에 대하여, 생활에 대하여!

목사와 함께 65년간을 이 뜰안에서 살아 온 나무! 수목은 여적 싱싱하고 역세다. 해빛이 있는 이상 그의 생장론리는 신선하고 명백하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의 길은 어떤것이나. 요컨대 인간이란 곧 그의 정신을 의미함이요 그의 길은 정신의 길이다. 하여 인간이란 정신의 길을

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고명한 말도 있는 것이다. 인간이 나뭇의 싹을 지니고 신앙을 따르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인간이든 자기의 정신의 길에 세울 리정표라든가 좌표 같은 것이 없이는 살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그 싹, 신앙이 그의 길을 끝까지 이끌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라침판이 없는 수부마냥 혼란에 부딪친다. 그의 앞엔 방황과 허무의 어둠이 가로 놓인다. 이때 인간은 무엇을 할것인가? 인간은 필경 《빛을 찾아 몸부림을 치는것》이다.

《!》

목사는 이 순간 하나의 발견을 했다. 신이란 마음속에 산 실체로, 산 존재자로 모셔 지고 그 마음속에 생명의 은인으로 각인되어야만 참다운 것이 아닐가? 이는 혹시 65년전 마음속 신의 존재여부에 대한 참된 확신을 못 가졌던 부친이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른다.

눈을 부시게 찌르는 강렬한 광선을 느끼며 목사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아침의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늘도 땅도 모두 붉다. 교회당지붕에서 나뉘를 치며 날아 오른 비둘기들이 태양의 눈부신 광원속으로 날아 갔다. 무성한 잎사귀들마다 해살을 담뱃담은 회양목이 한 없는 사의와 걱정의 념에 북받쳐 쉽없이 설렁거린다.

목사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숭엄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엔 한성조씨와 아들을 잃은 늙은 과부며 그 술한 교구신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목사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 《제일가구》사장이며 안식교도인 한성조씨는 북조선을 방문했다. 그가 북에 고향을 둔 사람이였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논의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그가 보다 떠들썩해 진 기본리유는 그가 평양방문길에 오르면서 《기네스기록집》에 오른 유명한 《아가페》침대를 평양으로 가져 갔기때문이다. 공항으로 몰려 간

기자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결단하는 한씨의 심중을 알고 싶어 했을 때 그는 혼연히 대답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올리고저 합니다.》

경란의 목소리가 터져 오른 가운데 끈질긴 기자 하나는 직업의식을 발동하여 그 《거창한 행동》을 결단하게 된 동기를 또 물었다.

《그분은 저의 령혼을 구해 주신 하나님 같으신 분이기에문입니다!》

《!》

한씨는 선언하듯 정중히 말하고 더 주석을 달지 않았다.

한씨를 바래주려 비행장에 나간 목사는 그가 다 하지 않은 말을 죄다 알고 있었다.

죽은줄만 알던 동생을 살려 행복하게 키워 준 조국! 죄를 지은 몸에 그림던 고향에로의 꿈같은 귀향길을 넓게 열어 준 그의 품! 그런 품이야말로 그의 령혼을 구해 주고 그의 마음에 복된 안식을 찾아 준 진정한 신의 품이 아닌가!

한씨가 탄 평양행 비행기는 서쪽하늘가로 사라져 갔다. 목사는 그 시각 운명적인 날의 아침에 교회당앞의 회양나무결에서 떠오르는 새날의 태양을 바라보며 올리던 기도를 다시금 상기했다.

《저 하늘의 태양보다 더 위대하고 자비롭고 파사로운 지상의 인간태양이시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아이들, 모든 생명을 책임지신 위대한 존재자이시여!

21세기의 기도를 삼가 드리웁니다. 십자가의 수난이래 2,000여년간, 예수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선량하고 정직한 생명들에 가져다주시옵소서.

오로지 당신께 의지하고 단신을 믿으며 당신을 따르는 생명들에 불멸의 약속을 주시옵기를!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께 무한의 영광을!...》

그것은 목사가 교직일생에 처음으로, 태양을 향해 드린 기도였다.

## 인간애가 불 라는 위인찬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화신!  
인민에 대한 가장 충실한 복무자!  
인덕을 겸비한 위인!

특이한 동지애의 소유자!  
인정이 많은 지도자!  
의리심이 깊은 위대한 인간!



## 밀 림 외 1 편

김명익

아득히 숲의 바다, 눈보라 인다  
태고의 원시림속에서  
답사자들 무엇을 찾느냐?  
그만 길을 잃었나?

울울창창한 수림  
인간의 숨결은 천년전이나 있었는지  
고적의 세월도  
예선 흐르다 진대나무아래 찾아 들었으리

우우- 백설의 폭풍우  
어디선가 울리는 웨침소리, 찾았다아!-  
《3대통운 만세!》 굴발이 력력한 거목들  
서로서로 답사자들 부둥켜 안는데

보아라 여기 천고밀림에서  
이 나라 력사가 열려 아니 흘렀더냐  
빨찌산의 그 자취 없었다면  
오늘날 사람들 인생길을 잃었으리!  
반만년을 잃었으리!

## 아 들

전승의 축포가 울랐다  
어느덧 불 탄 구름나무에선  
새 아지 푸르고 매미울음에  
파아란 하늘도 흔들리는가 싶어  
전선에서 돌아 오는 제대병사  
병상의 지팡이를 던지며  
그립던 향촌으로 들어 서누나  
《아버지!-》  
이때라 한 사내에  
방공호학교 트랙에서 뛰쳐 온다  
오, 열살잡이 아들이 아니냐  
전장의 사나인  
이 세상을 다 그러안는양  
아들을 얼싸안는데

《어머닌 저게 누워 있어요...》  
아들애 손에서는 떨어 저 내렸다  
누런 기총탄 탄피가 푸른 봉분에  
아들에게선 또 하나 탄피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누운 지구우에  
아, 우린 이 전쟁에서  
너무도 많은것을 잃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두번을 이겼거니  
이 강토를 지키고  
그리고 아들을 지켜 내지 않았느냐  
  
병사는 군모에 흐느러지게 들꽃을 담아  
갓 푸른 봉분앞에 놓으려니  
그것은 피의 백화이런가!

## 주체 90(2001)년 조선문학축전상 당선작품

### △ 소설부문

- 단편소설 《해 저무는 백사장에서》 김유권
- " 《후사경》 정영종
- " 《돈지갑》 강귀미
- " 《별- 하나》 석유균
- " 《물길 백리, 꿈길 만리》 (총련)강태성

### - 운문소설 《지리산의 메아리》 강일주

### △ 시부문

- 서정시 《눈 내리는 칠보산에서》 최영화
- 서정시 《아픈 인생길》 오영재
- " 《병사와 시》 박호범

- 시초 《기다리는 땅》 리영삼
- 련시 《전야의 사랑가》 김정곤
- 서정시 《어머니의 첫밤에》 박경심
- " 《첫봄》 박상민
- " 《관문점》 (총련)강명숙

### △ 평론부문

- 평론 《포옹이 뜨거우면 심장은 사랑한다》 최길상
- " 《고향속의 조국- 조국속의 고향을 응시하며》 김성우
- "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제와 녀성형상》 (중국)김영금

## 선군혁명시가문학에 내려치는 웃음의 정서

김성우

백두광명성대장군께서 사엽하시는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대진군의 종대속에는 위력 있는 《북대포》군단도 서있다.

그 《대호》는 선군혁명문학.

그 《군기》는 태양이다.

이 대오속에 우리 시가문학은 그 기수로 기준종대로 되고 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강성대국의 새 시대를 펼쳐 가는 21세기의 격동적인 현실속에서 우리의 위력한 《북대포》가 내뿜는 선군시가의 기본정서는 무엇으로 되어야 할것인가.

나는 감히 그것을 웃음이라고 말한다.

선군이란 말만 해도 총대부터 생각하기 마련이다.

예로부터 위력의 대명사로 불리어 온 그 총대가 새 세기의 첫 폐지에 적어 놓은 선군시가의 기본정서가 웃음이라면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백두산총대바람이 안아 온 선군시가문학에 흘러 넘치는 웃음의 철학을 안다면 그 웃음의 정서야말로 가장 숭고하고 가장 힘차게 가장 뜨겁다는것을 인정하게 될것이다.

새 세기가 낳은 시대의 걸작인 가요 《강성부흥아리랑》(윤두근작)은 21세기 선군혁명시가문학의 기본정서를 뚜렷이 구현하고 있다.

무릉도원 꽃피가니 홍이로다 아리랑  
제 힘으로 세워 가니 멋이로다 아리랑  
장군님의 손길 따라 주체강국 내려친다  
아리아리아리랑 스리스리스리랑  
강성부흥아리랑

여기에는 우리 식 웃음의 철학이 선명히 담겨 있다.

고난이 다 가서 쫓기에 웃는 웃음이 아니다. 넘어야 할 시련의 고비, 꺾어야 할 곡절의 굽이들을 몰라 웃는 천진한 웃음, 위안의 웃음도 아니다. 우리의 웃음은 위대한 장군님 계시기에 주

체강국은 반드시 일떠선다는 불패의 신념을 안고 제 힘으로 무릉도원을 꽃 피우는 홍이며 멋인것이다.

수령을 믿고 제힘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흥, 이런 멋을 느낄수 있으며 고난에 발을 잠그고서도 이처럼 밝게 웃으며 아리랑을 부를수 있다.

7년전 선군혁명시가문학이 그 출발선에 있을 때 그 정서는 비장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애의 바다, 고립과 암살의 광풍이 휩쓰는 그 기술에서 그 무엇으로도 달랠길 없는 한 없는 그리움의 대하에 실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김만영작)가 태어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다시 일떠선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부르는 혁명군가 《높이 들자 붉은기》(송찬웅작),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김정훈작)가 메아리쳐왔다.

그 힘찬 운률, 그 열정적인 형상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는 비장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시인들은 잊지 않았다. 그 잊을수 없는 주체84(1995)년 설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박술초소를 찾으시였을 때 울며 안기는 병사들에게 안겨 주신것은 환한 웃음이 아니었던가. 어버이수령님과 작별하는 가슴 터지는 영결의 연도에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가 마중했던 태양상의 환한 웃음...

그 웃음과 꼭 같은 21세기 태양의 웃음...

너무도 많은 당부, 많은 생각이 얹힌 그 웃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 나섰고 선군의 새 역사를 창조하였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총대를 높이 들었고 그 웃음을 빛내기 위해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를 뜨겁게 지피었다.

마침내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하고 20세기의 령마루에 올라 섰을 때 우리 시인들은 사색깊은 눈길로 한해가 천년 같던 나날의 추억을 더듬으며 가사 《우리는 잊지 않으리》(윤두근작), 《승리의 길》(차영도작), 서사시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백의선, 류동호작)를 썼다. 그것은 위대한 령장의 품에 안겨 만시름을 잊고 오직 래일을 낙관하는 힘찬 정서의 흐름이었다.

드디어 21세기에 들어 선 선군혁명시가문학은 태양의 웃음이 넘실거리는 《강성부흥아리랑》을 내놓은것이다.

선군혁명시가문학에 차고 넘치는 웃음의 정서

는 장편기행시 《강성대국행진곡》(김만영작)의 제 2편인 《격류하라, 강성부흥대하여》에서 보다 심오히 구현되고 있다. 이 작품은 고난을 이기고 웃음을 안아 온 선군혁명의 위대한 령장에 대한 다함 없는 송가이다.

이 송가의 종자는 강성대국대하우에 실린 장군의 웃음이다. 성천강의 발전소들, 래일구의 염소떼, 금진강의 언제를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지으시는 웃음이 이 작품의 기본정서이다.

그 웃음은 봄빛 같아  
한 겨울의 언 몸도 다 녹고  
그 웃음은 정이 가득 넘쳐  
부모에게 말 못하는 가슴속 사연도  
다 터놓게 되거니

지친 사람에게는 새힘을 주고  
실망한 사람에게는 광명을 주고  
비에 애 잠긴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며  
동지의 세계를 이루는 만유인력의 그 웃음  
은 세상이 반하는 매혹적인 그 웃음

하여  
고난과 시련을 헤쳐 가는  
조국과 인민의 얼굴에 웃음을 주고  
강성대국건설에  
거세찬 활력을 주거니

그 웃음을 남기시며 가고 가시는  
그이의 자옥자옥은  
인간대화원을 펼치는 봄의 자옥!

시에서는 장군의 웃음이 비졌던 그 길들에 얼마나 험난한 시련이 놓여있었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 《밤도 없이 낮도 없이/ 비에 젖고 눈에 얼며/ 자신을 다 바쳐/ 풍찬로숙하시는 길》에서 그 모든 고난의 눈석이는 시작되고 강성대국의 대하가 굵이쳐 흐르고 그 위에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가 실리게 되었다는것을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다.

웃음은 최후의 웃음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말 그대로 그것은 마지막에야 웃는 승리자의 웃음이다. 그렇다면 아직은 많은것이 앞에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군혁명시가문학이 위인송배의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로 엮는 웃음이 문학으로 될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시가문학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정서를 그대로 구현하는데 있다.

원래 선군혁명문학의 본질은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정서를 구현한 문학이라는데 있

다.

시가문학은 그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정서를 가장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선군혁명문학의 정수로 된다. 시대를 이끄는 령도자의 정서를 그대로 구현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령도자의 심장과 한피줄기로 련결되어 함께 숨쉬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운명을 같이 하는 시인들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시인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올라 섰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시인들이 삼가 올린 시작품들을 보시면서 나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 쓴것 같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야말로 혁명의 령도자가 선군시문학의 창조자들에게 주실수 있는 최상의 평가이고 믿음이었다.

21세기태양의 정서가 바로 필승의 웃음이었다

그 태양의 품에 안겨 강성대국건설의 출발선에서 벌써 그 결승선을 내딛고선 인민의 정서가 또한 웃음이 있다.

령도자를 믿는 인민은 최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웃고 최후까지 웃을수 있다.

이 철학의 진수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숭배이며 믿음이다.

하기에 서정시 《웃음은 우리의것이다》(전승일작)에서 시인은 이렇게 읊었다.

아 우리의 웃음은 장군님입니다  
천리 또 천리 백두대지를 뚫으시며  
감자농사혁명을 선언하실 때  
눈물과 웃음과  
불을 안은 만세가 터져 오르지 않았더나

우리의 웃음은 장군님이사라는 이 명표현속에 우리 식 웃음의 본질이 단마디로 집약되어 있다.

참된 웃음은 신념이 안겨 주는 웃음이다. 그 신념은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며 배짱이다. 이리하여 선군혁명시가문학에 넘치는 웃음의 정서는 가장 숭고한 위인숭배의 감정과 융합되어 있다.

선군혁명시가문학에 굵이치는 웃음의 정서를 옹바로 이해하려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주체곡속에 깃들어 있던 그리움의 정서를 음미해 보아야 한다.

운명의 하늘, 운명의 태양에 대한 숭배와 그리움은 오늘 우리 인민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주도적감정으로 되고있다. 그 어떤 주제, 그 어떤 소재의 시들을 보아도 위인에 대한 그리움은 그 바탕에 놓여 있고 그 줍으로 배여 있으며 그 생명으로 빛 뿌리고 있다.

문제는 이 그리움이야말로 선군시대에 차넘치는 웃음의 정서를 더 밝게, 더 힘차게, 더 뜨겁게 채색해 주는 뿔수 없는 한부분으로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잠시도 잠 재울길 없구나  
이 가슴속에 깃들어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고  
순결한 녀이 되어  
전호가에 넘쳐 나는 그리움을

이렇게 시작된 서정시 《병사의 그리움》(주광일)에서는 《장군님과 정을 맺고 뜻을 나누는/ 장군님의 병사는/ 이 그리움으로 신념의 성새를 쌓고/ 이 그리움으로 승리의 길을 연다》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쌓는 신념의 성새, 그 그리움으로 열어 놓은 승리의 길위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장 긍지 높고 환희로운 웃음이 꽃 피는것이니 선군시대 주체시가문학에 차넘치는 웃음의 정서는 바로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결정인것이다.

믿음이 있을 때 그리움은 웃음을 낳는다.

믿음이 없을 때 그리움은 눈물을 낳는다. 절대  
의 믿음에 토대한 행복한 그리움-이것이 선군시  
대에 넘치는 독특한 웃음의 정서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5만여리 로씨야  
편방방문의 길에 오르시였을 때 인민은 먼길 가  
신 어버이를 그리며 말그대로 하루를 백날 맞잡  
이로 살았다. 이 나날 창작된 수많은 시편들에서  
우리는 인류의 태양을 어버이로 모신 가장 행  
복한 그리움의 정서를 감득한다.

이 가슴속에  
자애로운 그 영상이 자리 잡고 있어  
해빛 같은 그 미소가 가득차 있어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어버이  
장군님 이국땅에 가계신 나날은  
우리 그리움의 정을 맺고 산 나날이었습니

-서정시 《그리웠습니다 장군님》(김은숙작)중  
에서-

그처럼 심각했던  
고난의 년대를 넘어  
강성부흥의 새 세기를 열어 오신  
그 담대한 보폭으로  
인류열광의 한복판을 걸어 오신  
그 찬란한 자욱

그 자욱자욱에  
후더워 오는 가슴을 엮나니  
해빛을 따라

해빛에 살던  
이 가슴에서  
기쁨의 노래는 굽이쳐 흐르는가

-서정시 《태양의 길》(박호범작)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 안게 되는것은 자기 령도  
자와 이런 그리움의 정을 맺고 사는 인민은 얼마  
나 행복한가 하는것이다. 그리움이 곧 행복으로  
되고 그것이 곧 창조의 불길로 되어 나날을 가득  
채우는 이 시대를 우리 어찌 긍지 높은 웃음속에  
축복하지 않을것인가. 먼 길 떠난 친어버이를 그  
리듯 자기 령도자를 손꼽아 기다리며 만리대공을  
날아오는 한가닥의 전파에도 기쁨에 울고 감격에  
웃는 이런 인민과 함께 우리 시인들의 붓대가 어  
찌 웃음을 떠나 다른 정서를 알것인가.

물론 이 그리움의 정서에는 눈물도 있다. 하지  
만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던가.

머나먼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바쳐 진 병사들의 노래로 씌여 진 시초  
《세계는 웨친다》(신병강작)에는 그 어느 시편에나  
그리움에 울고 감격에 울던 병사들의 후더운 눈  
물이 얼룩져 있다. 그러나 그 눈물도 궁극은 웃  
음이었다. 눈물로 웃을줄 안 이런 병사들, 이런  
인민은 강한 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전세기초에 사회주의문학  
의 가치를 맨 먼저 쳐들었던 어느 한 나라에서의  
시가문학의 운명을 두고 생각하게 된다.

아직은 붉은기가 내리워 지지 않았던 그때, 아  
직은 그네들의 식탁에 《대용식료품》은 커녕 닭  
알지짐과 빠다가 떨어지지 않았던 그때 그들의  
시가는 왜 점점 웃음을 잃고 어두워져 갔던가.  
그 나라 시단의 중진이라고 하던 한 시인은 자기  
들이 자고 있는사이 비애에 잠긴 눈길로 그리도  
조용히 말없이 떠나간 어머니들을 노래하였다.  
불 꺼진 방안에서 강아지와 함께 검은 유리창에  
코를 대이고 오지 않는 애인을 기다리며 울고 싶  
어 지는 심정을 노래하였다. 그 떠나 간 어머니  
는 누구였으며 오지 않는 애인은 누구였던가. 그  
때 성실한 사람들, 온기 있는 심장을 가진 사  
람들은 리해하였다.

가버린것도 오지 않는것도 그네들의 운명의 품  
이었던 수령이었고 당이었고 사회주의였고 인간  
다운 삶이었다.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생명을 바  
치고 싶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애인에 대한  
그리움은 눈물에 젖고 한숨에 싸여 있었다.

참된 수령을 모시지 못할 때 시가문학은 생명  
과 함께 웃음을 잃어 버린다. 불 꺼진 난로가에  
웃음이 있을수 없는 법이다.

우리의 웃음은 단순히 생활락천적인 웃음이 아  
니다. 그것은 선군의 총대가 내뿜는 열풍이며 불  
이다. 태양의 웃음이 안겨 준 불씨를 안고 전사

들의 총대에선 번개가 일고 강성대국건설의 일터  
마다에도 불길이 솟구친다. 웃음이 지핀 불의 정  
서는 장군님의 발자국을 삼가 짊어 오성산에 올  
랐던 시인들의 노래에도 넘치고 라남의 봉화를  
우러러 목메이던 시인들의 웨침에도 넘친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며  
후대들에게 강성부흥의 조국을 넘겨 주려  
두주먹을 부르짖고 일어 선 그 신념  
우리 앞에 시련이 아무리 겹쌓인대도  
기어이 이 땅 이 하늘아래  
우리 손으로 부흥강국을 일떠 세울  
그 투지  
그 락관이  
이 불길에서 타고 있어라

-시 《조선의 불》(김만영작)중에서-

바로 이 구절에는 새 세기의 첫 봉화로 높이  
솟은 라남의 불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일반화가  
깃들어 있다.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라남의 불은  
/ 이 세상 가장 밝고 뜨거운/ 조선의 불/ 거세차  
게 타오르며 역사를 이끄는/ 장군의 불/ 최고사령  
관의 장엄한 불》이다. 이 불의 원천은 바로 《래  
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  
며》 가는 그 락관에 있으니 이 불에도 역시 위대  
한 장군의 신념이 낳은 그 불패의 웃음이 어려  
있는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그 불에서 백두산장군의 웃음을  
본다. 웃음의 불길이기때 그것은 그처럼 아름답  
고 힘차다. 이 웃음의 불길이 우리의 심장에 온  
기를 주고 우리의 생활에 다감한 정서를 준다.  
그래서 21세기 선군혁명시가문학에는 라남의 봉  
화를 든 남편을 반기는 안해의 정다운 미소도 비  
끼며 장군님의 품에 안겨 인생의 봄을 되찾은 비  
전향장기수들의 행복한 격정도 어린다.

몰랐어요  
언제 한번 웃투정 밥투정 없고  
까다로운 공대도 바란적 없어  
그저 무던하다고만 생각했던 당신이  
그토록 귀중한 남편인줄을

아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 깊이  
다름아닌 로동계급 당신이 간직 되어 있는줄을  
내 또한 그 행복한 로동계급의  
행복한 안해인줄을!

-시 《몰랐어요》(렴형미작)중에서-

이것은 고난의 령기가 어렸던 우리 삶의 구들  
에 장군의 웃음이 지핀 불의 온기이다. 그 우에  
서리는 부드러운 사랑의 입김이다. 이리하여 선  
군혁명시가에 넘치는 웃음의 정서는 또한 가장  
인간적인, 가장 생활적인 정의 문학을 낳는다.

우리의 장군님 품은  
인민을 품어 주는 정의 하늘

-시 《축원》(채규작)중에서-

태양의 웃음이 해빛으로 넘치는 이 정의 하늘  
아래 자유로운 날개를 편 우리 시가문학이 깃들  
지 못할 생활이란 없다. 그것은 우리 삶의 터전  
인 국토를 가꿔 가는 성실한 마음을 그린 시초  
《나의 국토》(정동찬작)에도 있고 제 고향 이삭에  
대한 사랑을 속삭이는 제대군인의 정서를 담은  
련시 《전야의 사랑가》(김정곤작)에도 있으며 아  
기 앞에서 첫 엄마의 애정을 펼쳐 놓은 시초 《아  
기 앞에서》(박경심작)에도 있다.

네 눈동자는 내 마음의 하늘이란다  
바라고 싶구나 그 하늘엔  
언제나 해 비치고 별이 총총하기를  
꽃향기 넘치고 고운 새 날으기를  
다만 검은 구름은 한조각도 떠돌지 않기를

-시 《아기야 너의 눈동자속에...》(박경심작)중  
에서-

이 시에는 선군시가에 고유한 웃음의 정서가  
얼마나 그윽하게 흐르고 있는가. 백두산총대의  
노래인 선군시가문학이 이렇듯 정에 넘치고 사랑  
에 겨운것임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시초 《아기 앞에서》에는 총이란 말이 없다.  
혁명이란 말도 없다. 다만 티 없는 아기의 웃음  
과 팔을 벌려 아기를 부르는 정다운 엄마의 웃음  
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품을 선군문  
학작품이라고 부른다. 왜냐면 이것은 백두산장군  
의 총대에 떠받들린 요람속의 웃음이기때문이다.  
총대로 개척하는 선군정치의 결실이 바로 저 아  
기의 웃음이기때문이다.

선군혁명시가에 차넘치는 웃음의 정서는 참된  
사랑이다. 동지의 의리로 하고 배신 없는 총대로  
하는 진실한 사랑이다.

사랑중의 사랑은 혁명의 령도자와 전사 사이에  
맺어지는 동지의 사랑이다. 하기에 동지의 세계  
에서 피어나는 웃음이 가장 밝고 뜨거웁다.

새 세기의 선군시가문학에서 통일의 불사조들  
인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시들이 큰 자리를 차  
지한다. 지옥에서 락원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운명의 전환을 이룩한 이 영웅들의 정서를 노래

한 수많은 시편들도 그 기본정서는 아버지사랑의  
빛에 휩싸인 비길데 없는 행복이며 웃음이다.

언제나 그대는  
그 빛을 향해 서있었다  
오직 진심만이 웃으며 향할수 있는  
빛이 오는 그쪽

단 한줄기라도  
거짓이 낀 마음으로는  
감히 향할수 없는 그쪽

아, 그대는  
태양이 없는 어두운 감방에서  
언제나 해빛에 몸을 씻으며  
한생을 산  
태양의 아들이었노라

-시 《빛》(오영재작)중에서-

런시 《아쉬워도 보람 있는 삶》에 속한 모든

## 상식

# 급속히 발전하게 될 생명과학

국제인간게놈계획의 과학자들이 지난해 2월 12일 인간게놈도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인간유전자변이도를 그려 낼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생명과학연구에서 인간게놈도작성사업 다음가는 또 하나의 중대한 연구항목으로서 유전자도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것이다.

인간게놈에는 인간의 생명과 로쇠, 질병, 죽음과 관련된 유전정보가 거의 다 들어 있으므로 이것을 해독하면 질병진단과 약물제조, 치료방법개발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것이다.

주체79(1990)년에 국제인간게놈계획이 발족되어 미국, 일본, 도이칠란드, 프랑스, 영국, 중국 6개 나라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망라되었다.

과학자들은 주체89(2000)년 6월 26일 인간게놈 《작업틀거리》 도를 공개한데 이어 주체90(2001)년 2월 12일에는 또다시 인간게놈도와 그에 대한 초보적인 분석결과를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게놈은 31억 6,470만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 졌으며 도합 3만~3만 5,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것은 300여만가지의 이른바 《모노누클레오티드다태성》을 발견한것이다.

유전자는 유전물질인 DNA(데핵산)에 유전정보가 들어 있는 단편이며 DNA의 기본단위는 4가지 뉴클레오티드이다. 바로 이 뉴클레오티드가

시들은 이 태양의 아들이 간직한 가장 순결한 웃음, 강직한 웃음에 대한 찬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선군시대 주체시가문학에서 태양의 해발로 빛나는 웃음의 정서는 다양하게 구현된다.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세찬 불길로, 때로는 다감한 정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되든지간에 그 정서가 과도쳐 가는곳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웃음은 장군님이다!

×

그렇다.

21세기 태양의 정서를 구현한 선군혁명시가문학은 웃음의 문학, 불의 문학, 정의 문학이다. 선군의 총대가 꽃 피운 밝고 뜨겁고 부드러운 웃음의 《폭탄》은 핵탄보다도 강한것이다. 그것을 채운 《북대포》의 위력은 무한하다.

그 사수는 위대한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이다!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일정한 유전정보를 나타내는것이다.

각이한 인간들의 동일한 물들체와 같은 위치의 뉴클레오티드서열에서 절대다수의 뉴클레오티드의 배열순서는 같지만 한곳의 뉴클레오티드만은 배열순서가 서로 다른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모노누클레오티드다태성》이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모노누클레오티드다태성》, 다시말하여 유전자에서의 미세한 차이가 매개 인간들의 차이를 가져 온다고 지적하였다.

인간게놈도에 대한 연구는 인간유전자의 공통성을 밝혀 내는데 치중하였기때문에 인간과 인간사이의 유전자에 의한 차이, 다시 말하여 유전자변이에 대해서는 별로 밝혀 내지 못하였다.

만일 인간의 유전물질속의 매개 《모노누클레오티드다태성》을 찾아 낸다면 능히 모든 유전자변이를 확정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 사업이 바로 인간유전자변이도작성이다. 인간게놈도작성이 성공한것으로 하여 인간유전자변이도작성의 조건도 이미 성숙되었다.

전문가들은 인체의 변이유전자에 대한 《대수색》이 질병발생의 근원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분자수준으로 끌어 올릴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각종 질병진단 및 예방, 새로운 약물개발에 보다 유력한 《무기》를 제공해 줄것이다.

## 설천봉풍경

전인광

## 통신초소

푸른 물결 출렁이는 바다가에 해발 1,000여미터의 아아한 높이로 치솟아 수많은 산봉우리들을 거느리고 거연히 서 있는 설천봉. 사철 눈과 비, 구름과 안개가 떠날줄 모르는 이 최전연고지는 멀리서 보면 망망대해를 헤쳐 가는 거대한 군함같이 보인다. 그 군함의 사령탑과도 같은 주봉꼭대기에 하나의 자그마한 집이 있다.

밤이면 아득한 하늘가에 동화의 세계를 속삭이는 작은 별빛처럼 아스름히 보여 오고 낮이면 흰 백설로 덮인 고지우에 까만 점으로 유난히 눈길을 끄는 초소, 산비탈을 파내고 잠풍하게 들어 앉은데다 앞에 높은 방풍벽을 쌓아 눈이 조금만 와도 자그마한 이 초소는 그 속에 폭 잠겨 버린다. 급한 경사지에 들어 았다보니 운동장도 만들 수 없어 열발자국 되나마나한 마당을 만들고 그 한끝에 투사훈련만 할수 있는 룡구관 한개가 서 있다. 그 기둥에는 또 골짜기로 날아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매단 배구공이 늘쌍 매달려 있다. 처마밑에 큰 못을 박아 기와 첫 머리에 구부러 고정시킨것이니 남향으로 낸 두개의 창문에 든든한 덧문을 매단것이나 처마밑으로 드리운 한발씩 되는 종류석 같은 고드름들이 전부 바다쪽으로 기발처럼 날리며 달려 있는것이 이 고지가 얼마나 바람에 심하게 부대끼는가를 첫눈에 알게 해준다. 거치른 산악의 지세에 맞게 짓다보니 병실의 바깥은 모든것이 투박하고 데설긋다. 하지만 안에 들어 가면 누구나 놀람을 금치 못한다. 눈같이 흰 벽이며 유리알같이 알른거리는 바닥, 다섯의 침구류가 깨끗하게 정돈된 침실, 전기밥가마와 텔레비존이 그쁘히 갖추어 저 있고 전기온돌의 훈김이 훈훈하게 풍겨오는 초소안은 병사들이 사는 병실이라고 믿기 어려울만큼 산뜻하고 정갈하다. 이 초소에서 다섯명의 병사들이 통신중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도 작고 소문없는 초소다 보니 설천봉에 이런 초소가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은 새년도 훈련진입을 이틀 앞둔 새날의 미명. 지동치듯 불어 치는 사나운 눈보라속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훈련명령관철에 펼쳐나선 설천봉은 온 부대가 눈코 뜰새없이 붐비고 있다. 초소도 마찬가지다. 김형철분대장은 훈련 첫날 한건의 통신두절사고도 있게 해서는 안된다

고 아침 일찍 김두진중급병사와 함께 6중대방향을 따라 끊어진 선보수를 나갔다. 초소에는 지금 부분대장 박진호와 금년도 입대한 신입병사들인 동세웅과 김철호가 남아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밖에서는 간밤부터 불어 치는 《내기바람》이 온 설천봉을 할퀴고 쥐여 뜯고 내지르며 천지간에 가득차서 양양거린다. 이런 날이면 감도가 말할수 없이 떨어 진다.

교환대와 마주 앉는 동세웅은 련속 불 일듯 떨어 지는 가입자를 련결하기에 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삼마봉!》 수화기속에서 탁하게 쉰 목소리가 북 치듯 고막을 징 울린다.

《삼마봉 듣습니다.》 세웅은 껌싸게 접속두를 쏴으며 전환키를 제긴다.

《오, 세웅동무요? 나 2중대 사관장인데...》

주먹코의 벌썬 웃는 얼굴이 눈앞에 마주 온다.

《거 부대직일관동지 있지. 빨리 좀...》

《알았습니다.》

세웅은 껌싸게 직일관실을 련결한다.

《직일관동지! 고지밀 삭도상차장에서 2중대 사관장동지 전화합니다.》

《부대직일관 전화 받습니다.》

《아니? 공필대위동지가?...》

사관장의 속대사가 그대로 증폭기에 공명되어 나오는 바람에 세웅은 싱긋 웃는다. 자연조건이 너무 엄혹하여 때없이 통신선이 끊어지다 보니 이 중계초소에는 통화감시증폭기를 달아 교한수는 시종 통화정형을 지켜보며 임무를 수행한다.

사관장은 화닥 놀랜 기색이다. 리공필대위는 부대적으로 엄격하기로 소문난 지휘관인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그 앞에선 규정적요구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행동도 저어한다.

《왜 그러오, 사관장동무!》

《저, 대위동지, 우리 중대야 물자를 삭도로 올려 놓고도 초소까지 또 30리 눈길로 날라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3중대친구들이 물자를 먼저 가져다 놓았다구 순서대로 올리자는겁니다. 아, 급한 순서로 보면야...》

규률과 질서에 들어 서서는 빈틈이 없는 공필대위의 성격을 잘 아는 사관장은 처음부터 사정하는 투다.

《사관장동무! 삭도분대장을 바꾸오.》

공필대위는 긴 말 없다.

《분대장동무요? 2중대 후방물자가 어떤것들이

요?… 음. 동문 모든 물자수송은 초소근무를 수행하는 2중대 물자운반이 항상 우선이라는 삭도 운영질서를 몰라서 이런 전화를 하게 만드는데요?》

《저… 사실은 3중대에서 신고 온 돼지들이 다 산놈들이다 보니 어찌나 소동을 피우는지 너무 복잡해서… 알았습니다. 2중대 물자부터 올리겠습니다.》

삭도분대장이 전화를 놓기 바쁘게 다시 표시기가 떨어 진다. 접속두를 쫓으니 2중대장이 또 직입관을 찾는다.

세웅은 《편결합니다.》 소리치며 제격 접속두를 쫓고 전환키를 제긴다.

《공필대위동지십니까? 2중대장 송경수 전화합니다. 예! 방금 매바위골초소의 보고에 의하면 건봉산너머에서 밤새껏 들려 오던 적들의 발동기소리가 4시 40분경에 멎었습니다. 그리고 삼지봉초소에서 바위에 붙은 산양을 오인하고 하마트면 오발할뻔 했습니다. 예, 눈보라가 심한건 사실이지만… 예, 올해 입대한 신대원입니다. 예, 지형지물식별이 아직… 철수하면 대책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고지밀에서 사관장동무의 연락이 왔기에 물자운반조를 조직해 삭도하차장으로 출발시켰습니다.》 《엇그제 온 눈이 아직 많이 쌓였는데 준비들을 잘 시켜 보냈겠지?》

《예.》

《알겠소. 각 초소들, 특히 매바위골방향에서 감시근무를 더욱 강화하고 정황이 생기면 즉시 보고하오.》

통화가 끝나자 리공필대위는 문득 생각난듯 세웅을 찾는다.

《삼마봉! 오, 세웅동무요? 수고하누만.》

《안녕하십니까? 대위동지!》

《그래 선보수 나간 분대장에게선 소식이 있소?》

《예, 방금전에 받았습니다. 이제 2중대를 떠나 단선된 부분을 찾으며 6중대에 도착하겠답니다. 그리고 오후에 군의소선로를 따라 나가겠답니다.》

《세웅동무! 지금 훈련시작을 앞두고 류동이 많고 훈련기재와 후방물자수송으로 온 부대가 붐비고 있소. 이런 때일수록 근무를 책임적으로 서야 돼. 알겠지?》

《알았습니다. 대위동지!》

《음… 그래 요즘 힘들지 않아?》

이렇게 다시금 묻는 공필의 어조엔 잔등에 손을 얹고 건네는 말처럼 친근감이 폭 젖어 있다. 그 말뼉의 숨은 뜻을 느끼는 세웅은 가슴이 뭉클하다.

《대위동지! 걱정 마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위동진 휴식 안 내려 잡니까?》

《새 훈련 시작이 방금인데 그럴 시간이 있나?》

《명선이 어머니가 무척 기다릴텐데… 엇그제 고지밀에 내려 갔을 때 들려 보니 영선이까 이제 제법 엄마, 아빠 하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 벌써? … 그 참…》

공필은 더 말이 없다. 아마 돌이 갓 지난 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그려 보는 모양이다.

그런차에 표시기가 또 잘각 떨어 진다.

《아, 삼마봉이요? 나 3중대 4관장인데 거 5중대 좀 찾소.》

《세웅이 어서 편결하라구.》

공필은 근무수행에 바쁜 세웅의 형편을 짐작한듯 전화를 끊는다. 5중대 사관장이 나왔다고 알려자 3중대 사관장은 상대가 대꾸할새도 없이 돌아댄다.

《준결동무! 거 정말 찌찌하게 그러누만. 가두배 추 50키로그램이 뭐라구. 새 훈련시작날 특식 좀 차리자니 다 있는데 딱 만두에 들어 갈 생생한 양배추가 없어서 부탁한건데…》

《아, 사관장동무! 날새도 얼어 떨어 진다는 설천봉꼭대기서 생생한 양배추라는게 겨울에 딸기만큼이나 귀물이란걸 몰라서 그러니까? 없습시다. 며칠전 정비장지붕이 통채로 날아 나던 그 바람때 아끼던 우리 발 양배추가 절반나마 뿔혀 날려 갔다니가요.》

《정말 이러긴가. 김장무우 2톤을 공짜로 밭에서 그냥 떠넘겨 줬던게 아 동무 얼굴 고와서 준 줄 알아?》

《아, 그때 그거야…》

그제야 문득 생각난듯 5중대 사관장은 말을 얼버무리더니 껄껄 웃으며 분위기를 바꾼다.

《예라, 맘 쓴다. 헌데 거 우리한테 생양배추가 있다는 소린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끼, 이 능구렁이. 애초에 줄 생각을 하면서도 괜히 느긋느긋 비위를 굽는걸 모르는줄 알아.》

《하하. 아 김명철영웅의 녀이 갖든 이 설천봉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우리들이 탄 주머니차고 동지들을 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며칠전에 닥쳤던 바람에 우리 발이 술한 손실을 본건 사실입니다.》

## 《내기바람》

세웅은 창박을 내다 보았다. 어제밤부터 다시 들이 닥친 《내기바람》은 아침을 맞으며 더욱 광포하게 기승을 부린다. 바람의 소음으로 온 고지가 웅 웅 울고 눈보라의 장막으로 밝은 사위를 가려보기 힘들다. 일단 터지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온 고지가 바람의 소용돌이에 휘몰려 정신을



못차린다는 설천봉에 특유한 무섭고 지독한 광풍이다. 휘유-휘유- 숨 가쁘게 뿜어대는 휘파람소리 같은 날카로운 소음이 방안까지 새여 들어 귀가 멍멍하다. 총알처럼 가로 비껴 나는 돌풍은 마치 창과 칼에 상처 입은 수천수만의 말뚝이 한꺼번에 아우성치고 울부짖으며 내달아 오는듯 기르마재쪽에서 설천봉주봉으로 휩쓸어 간다. 이 《내기바람》은 어찌나 기승스러운지 주먹같은 돌들이 산경사지를 굴러 올라 가고 바깥에 잘못 내다 놓으면 밥국통이며 놉버치들이 한순간에 공중떠서 연처럼 둥둥 날아 골짜기로 처박힌다. 의지할데가 없으면 사람도 한순간에 날려 간다. 어느 해 봄인가는 바깥 마른 강대들이 이들 사흘 몸을 비벼대다 불까지 일어 난 일이 있다 한다. 이 바람에 기와지붕들이 통채로 벗겨지는 일이 드문하여 설천봉병실들은 레외없이 처마에 못을 박아 기와 첫머리를 고정시키고 무거운 돌들을 올려 놓는다.

머칠전 바람때에도 판자를 깔고 석도금판 지붕을 갓 씌워 놓은 정비장의 100미터나 되는 지붕이 움썽움썽하다가 한순간의 질풍에 하늘로 서서히 곤두서는 경악을 하여 바라보던 병사들이 입을 다물새없이 반대편 경사지로 무너져 내렸다.

상상만 해도 머리칼이 곤두서는 광경이다. 구분대에서는 비상회의를 열고 전체 구분대가 총 동원되어 단시일내에 정비장을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했다. 엄혹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매일같이 뜻밖의 재난이 겹치는 설천봉에선 구분대호상간 협력정신이 특별하다. 어느 구분대, 어느 초소에서 어떤 위훈을 세웠다가나 뜻밖의 사고가 생겼다면 온 설천봉이 관심하고 도와 나선다.

왜 그렇지 않으랴 소대의 혁명동지들을 위해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은 김명철영웅의 넋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설천봉임에랴. 김명철영웅의 령전에서 부대지휘관이 눈물을 머금고 하던 불 같은 말은 지금도 설천봉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가슴에 력력히 남아 있다.

《동무들! 전군이 하나의 동지가 되자고 하신 장군님의 그 말씀을 지켜 동지를 위해 한몫 서슴없이 바친 영웅의 그 넋을 잊지 맙시다. 우리 설천봉의 모든 지휘관, 병사들이 하나의 동지가 되고 성벽이 되어 장군님 맡겨 주신 이 설천봉을 굳건히 지켜 갑시다.》

영웅의 넋은 고지병사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운 불로 간직되었다. 그 불은 밤마다 우등불이 되어 공사장에 활활 타올랐다. 포중대를 돕자! 새 훈련 시작점으로 정비장을 복구하자! 방송차가 왕왕 울렸다. 구분대마다 있는 예비자재를 다 털어가지고 저저마다 달려 왔다. 이런 지원속에 3일만에 정비장을 다시 짓고 방풍벽까지 높이 쌓아 놓았던 것이다.

5중대도 그때의 바람때 자연랭동했던 양배추를 절반나마 잃어 버렸다.

세웅은 초소에 배치되어 특유한 고지부업농사를 직접 해보게 되었는데 양배추농사도 그중의 하나였다. 별방에서 양배추를 수확하는 7~8월에 설천봉에서는 부대후방부에서 금방 싹을 틔워 올려온 양배추모들을 가을남새와 함께 부업밭에 심는다. 가을이 되어 배추, 무우의 수확이 끝나도 이 양배추들만은 눈이 내릴 때까지 그냥 둔다. 그러면 그 우에 눈이 쌓이면 양배추는 밭에 섰채로 자연랭동된다. 그것을 식당근무가 끼때마다 밭으로 나가 눈을 헤치고 생생한것을 따내서는 기름에 지르르 볶아 내거나 얼벌벌하면서 단물이 스르르 도는 생채를 무쳐 식탁에 푸짐히 올리는것이다. 그런데 정작 《내기바람》이 터지면 그렇게 길넉게 쌓였던 눈도 불과 한두시간안에 구름 같은 눈타래로 곤두서서 반대편 골짜기로 다 날아 가버리고 언 땅이 누렇게 드러난 밭에는 실한 무르팍같은 등실등실한 양배추들만이 남는다. 세찬 바람속에 홀랑 눈옷을 벗고 나앉은 양배추는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아 가다 끝내 뿌리가 끊기여 뜨며 굴며 경사지를 바라올라 가 그 역시 반대편 골짜기로 돌맹이처럼 날아가 버린다.

입대하여 처음 고지에 올랐던 지난 여름, 주먹같은 돌들이 경사지를 굴러 올라 가는 그 무서운 바람을 처음 겪어 보고 우리 나라에 이런 고장도 있었는가고 경악을 했던 기억이 세웅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니 통신선들이 무사할리 만무하다. 아무리 버팀목과 버팀줄로 견인하고 버티여도 바람이 터지면 그 드세찬 광풍에 전주들이 통채로 나가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또 보통 눈이 온다 하면 허리 넘게 쏟아 지다 보니 선에 엉켜 붙은 진눈이 점차 팔뚝처럼 굵어져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툭툭 끊어 저 나간다...

아직 새벽어둠이 짙은 근무실 창문밖을 내다보는 세웅의 눈앞에는 형철분대장과 분대원들이 눈덮인 벼랑을 미끄러지고 흠뻑 젖은 진눈이 키를 넘게 쌓여 있는 골짜기를 헤치며 한치한치 걷는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다.

《세웅동무! 근무 잘 서라구.》

떠날 때 파묵한 형철분대장은 세웅의 어깨를 툭 치며 이런 당부속에 벌썬 웃었다. 아직 군대살이 몸에 붙지 못한, 키만 성큼하고 애리애리한 평양출신 전사를 바라보던 분대장의 그 눈빛, 그 눈엔 어딘가 걱정과 우려의 빛이 비껴 있었다. 하긴 분대장동지가 걱정을 할만도 하지 뭐.

세웅은 입술을 꼭 깨문다.

머칠전 야간근무때 세웅의 실수로 2중대 전연 초소에서 올라 오는 적정보고가 10분이나 늦게

참모부에 보고되었던것이다.

《세웅이! 10분이면 하나의 전투정황이 끝나는 시간이란걸 몰라? 세웅인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초소에 섰는지 아직도 심장으로 느끼는것 같지않아.》

평소에 과묵하던 김형철분대장이 가슴 아프게 질책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그대로 남아있는듯 싶다.

《세웅이! 위훈이란게 병사가 선 위치에 따라가는걸가?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어느 초소에서든 진심으로 조국을 받드는 그런 량심, 그 량심에서 출발한 성실성에서 시작되고 열매 맺는게 아니겠나?》

조용한 그 말마디가 그때 왜 것처럼 세웅의 가슴을 찢었던가. 신입병사훈련을 마치고 전연근무를 서는 구분대를 열렬히 탄원했던 세웅은 이 통신초소로 배치되었을 때 실망이 이만저만 크지 않았다. 매일같이 교환대에 마주 앉아 교대로 근무를 수행하는 통신중계초소의 일은 단조롭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그 단조로운 근무의 나날속에 세웅은 차츰 이 작은 중계초소가 결코 그가 생각했던것처럼 범박한 《녀성적인 초소》가 아니라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마주한 교환대를 통해 온 부대가 명령과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뛰고 달리며 시각마다 위훈과 영예를 창조하고 있었다. 유기체를 살아 있게 하는 혈액, 신경...

새 훈련시작을 앞두고 오늘도 그가 마주만 이 교환대를 통해 얼마나 벅찬 부대의 하루일과가 설계되고 조직되고 진행되고 있는가. 공필동지나 분대장동지가 다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분발할테다. 세웅은 속으로 이런 결심을 새롭게 다진다.

## 부분대장 박진호

식당칸 문이 벌럭 열리는 바람에 세웅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세웅동무!》

흰 밥알이 한웅큼 붙어 김이 문문 나는 밥주걱을 든채로 진호부분대장이 땀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을 들이 밀고 눈을 깜빡한다. 부분대장의 그 모습이 우스워 세웅은 절로 웃음이 나왔다.

《왜 그래? 오 이거.》

당돌했던 진호는 그냥 들고 있던 밥주걱을 내려다 보며 제사 우스웠는지 따라 웃는다.

입대전에 어느 해안도시 과외체육학교의 레스링소조원이었다는 진호는 한꺼번에 분대원 다섯을 다 따지고 일어 설만큼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다. 그는 매일 아침 레스링선수들이 한다는 독특한 근육운동과 랭수마찰, 눈마찰로 몸을 단련한

다. 거기에 성격 또한 불같이 열정적이고 시시한 잔것은 훌쩍훌쩍 건너 뛰며 짙어 가는 징검돌처럼 크고 성큼성큼하다.

세웅과 철호가 초소에 배치된 때 고지에서 그들을 인솔하러 내려 왔던것이 박진호였다. 통신초소로 배치된 바람에 잔뜩 풀이 죽었던 세웅은 《자, 동무들! 저쪽으로!》하고 고지로 올라 가는 길옆으로 끌고 가는 진호를 철호와 함께 영문 모르고 따라 갔었다. 눈망울이 어글어글하고 뜨거운 단김을 훌쩍 내부는 하사는 《내 글쎄 그럴줄 알았다니.》하고 메고 온 전투가방에서 종이꾸레미를 꺼내서는 넉적한 바위우에 퍼놓았다.

《여기 훈련소에 물어 보니 글쎄 아침 일찍 동무들을 넘겨 받게 되니 그리 알고 내려 오라는거야. 하지만 보라구. 발표가 끝나구두 피복, 량식 다 수속하고 소지품 탈래 인사들 나눌래 잠간사 이 점심때가 됐잖아. 그래서 내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 요기 좀 하고 올리 채자!》하면서 꾸레미를 풀었는데 펼쳐 놓고 보니 주먹밥과 고기볶음이었다.

《이거 내 우리 초소 아래끝안에서 옹노를 놓아 잡은 메돼지고인데 맛 좀 보라구.》하며 큼직한 고기점을 하나 집더니 《아!》하고 입을 벌리라고 했다. 세웅과 철호의 입에 한점씩 넣어 주고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곱게 받아 먹는 그 양이 우스운지 제 먼저 웃음을 터뜨렸고 그들도 눈물이 찢끔 나게 따라 웃었다.

《앞으로 날 그저 친형이라고 생각하면 돼.》하고 호방하게 웃는 그를 세웅은 감심해서 바라보았다. 허식과 틀이 없고 첫 대면에 사람마음을 푸근하게 잡아 끄는 그런 인간이었다.

초소에 올라 와 너무 험한 산세에 입을 못 두르는 두 병사에게 진호는 고지에 사는 요령부터 하나하나 배워 주었다.

《우선 주의할게 식당근무 설 때야. 물이 80도에서 끓기때문에 밥술에 물을 손바닥두께 하나 더 두어야 해. 그리고 때로 임무를 받고 고지밀에 내려 갈 일이 있는데 저 샷갯봉을 지날 때쯤 귀에서 웅 소리가 날 때가 종종 있거든 그렇다구 놀라지 말라구. 그저 역시 단숨에 1000미터고지에서 바다기슭으로 떨어지다보니 기압관계에서 오는 생리적현상이니까. 예 그리구...》

툭 찌힌 눈섭밑에 불을 뿜듯 세찬 빛이 느껴지는 눈망울을 디룩거리며 진호는 병실앞 계단에 세웅과 철호를 나란히 앉혀 놓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제일 주의할게 바람과 눈인데 바람이 불 때는 절대로 승인 없는 병실밖에 못 나간다, 나갈 때는 밤이든 낮이든 꼭 나를 동행하고 움직일것, 그리고 여긴 눈이 오면 나무웃초리나 전주우의 애자들이 다 문힐 정도로 퍼붓는데 눈거죽이 해

빛에 녹았다가 다시 얼어 붙은 그 우로 다닐 때 제일 주의해야 돼. 처음 한발작 미끄러지기 시작 한게 골짜기로 날아 떨어 저 큰 사고를 내는 결과를 초래하거든. 그러니 눈이 온 뒤에 움직일 때도 역시 나를 꼭 찾는다.》 하며 그밤에도 며칠을 두고 선검열 나갈 때 설피와 사갈을 신는 법, 눈무지에 빠졌을 때 나오는 법 등을 하나하나 배워 주었다. 그리고는 끈끈이서방처럼 딱 붙어서 하나하나 반복동작으로 숙련시켰다.

이따금 과묵한 김형철분대장이 그의 교육과정을 옆에서 말없이 지켜 보곤 했는데 진호는 얼굴을 백 문대며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분대장동지가 나를 신대원때 배워 준 그 요령 그대로요. 그렇지요? 분대장동지!》 하고 분대장을 돌아보며 응수를 바라곤 했다. 그럴 때면 형철분대장은 소리없이 웃는다.

어느날은 진호가 그들앞에서 병사생활에 대한 일가견의 리론을 풀었는데 세웅은 그의 말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

《병사생활은 왜 좋은가. 예, 고향과 성격도 취미도 성장과정도 모두 각각인 청년들이 한데 모여 꼭 같은 규률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개개의 특징이 대변에 헛되게 알려지거든. 이 세웅동무처럼 키는 꺾두룩하니 큰데 기계체조를 잘 못해 애들 먹는가 하면 공부를 잘하다 보니 리론문제에선 막히는게 없구. 하지만 철호동무처럼 또 영 대중앙에 나가 말 한마디 뻔줄 모르는 발표력이 부족한 병사도 있구, 또 맹세나 결의는 좋은데 실천이 따라 못서는 병사, 뛰고 달리는것을 좋아하는데 공부는 죽기로 싫어 하는 병사... 정말 각각이거든. 마치 갓 묶어 놓은 장작단속에서 이리저리 빼어 지는 장작개비처럼 눈에 걸리는 병사들이 입대초기엔 많다 이거지. 그 모두를 분대, 소대, 중대라는 광주리가 담고 있단 말이요. 엄격한 규률과 짜인 일과속에서 또 이를 악물고 넘겨야 하는 강행군의 극한점과 매일같이 진행되는 정치상학토론과정에 차츰 그 부족점들이 극복되고 장점들이 살아 나 말 많던 병사는 말이 적어지는 대신 실천이 무게있어 지고 대중앙에 나서기 싫어 하던 병사도 발을 구르며 출판에 뛰어 들고 행군길 한복판에서 동무들! 항일혁명선열들이 걸었던 백두의 행군길을 생각하자, 앞으로! 하고 선동연설까지 하게 되지. 거기에 중대별 예술소조 공연이 진행되니 싫건 좋건 약기 하나는 무조건 배워야 하고... 이런 과정에 제대될쯤 되면 매 병사가 당이 준 어떤 과업도 감당해 갈 사회의 역군, 우리 장군님을 혁명의 일선에서 옹호보위하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기수로 준비되거든. 그 아들이 고향의 부모님을 척 찾아 가면 아니 이게 입대할 때 투정질밖에 모르던 내 아들 박진호가 맞는단 말이나 하고 깜짝 놀란다 이거지. 그래

서 인민군대는 주체형의 새 인간을 키우고 완성하는 학교라는거요.》

박진호는 이렇게 뜨겁고 살뜰한 사관이였다....

세웅은 문득 얼마전 진호부분대장과 함께 선로 검열을 나갔던 일이 생각나 가슴이 쩡해 왔다.

진호뒤를 따르던 세웅은 성내골의 눈 덮인 내물을 잘못 짚어 두발이 그만 물속에 빠졌다. 고장난 개소를 퇴치하고 다시 돌아 섰을 때는 발이 시리다 못해 얼어 들어 감각마저 잊어 버렸다. 눈속을 걷다 보니 그 내막을 미처 몰랐던 진호는 뒤 따르는 세웅이 아래턱을 덜덜 떠는 심상찮은 상태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세웅이, 왜 그래?》 하며 우아래를 훑어 보다 갑옷처럼 찝찝해 진 바지를 일별하고 대변에 모든것을 알아 차렸다.

지체없이 바위밑의 안침진 곳으로 세웅을 부축하고 들어 간 그는 얼어 든 그의 신발을 뜯어 내다싶이 벗겼다. 감각이 마비된 언 발을 두말없이 자기 가슴을 헤치고 그속에 밀어 넣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감각 없던 발에 따듯한 온기가 돌고 저리고 쑤시던 아픔이 없어졌다. 그제야 가슴에 묻었던 발을 꺼낸 진호는 또 한참동안 손으로 비벼 땀이 나게 안마를 해주고는 속내의 자락을 북 찢어 꼼꼼히 감쌌다. 그리고는 제압담 자기의 신을 벗어 대신 그의 발에 신켜 주며 꾸짖듯 말했다.

《세웅이! 왜 말 안했어? 한번 동상 입으면 매해 도진다는걸 몰라. 병사는 발이 날개야 날개.》

세웅은 그만 목이 콕 메여 《부분대장동지!》 하고 부르짖으며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

세웅의 속생각을 알리 없는 진호는 《세웅동무! 철호동무와 교대하고 눈 한목고 제격 날라다 녹이자구. 분대장동지랑 돌아오면 훈훈하게 목욕을 시켜 한잠 재운 다음 배구경기를 한판 해야지.》 하며 웃음을 한입 문 입귀를 찡긋하고 문을 닫는다.

세웅이 철호를 찾으려 몸을 일으키는데 그 순간에 표시기가 또 떨어 졌다.

수화기를 드니 공필대위이다.

《세웅동무! 7중대선이 감도가 약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소. 중계를 좀 하라구.》

7중대란 삭도하차장 웃쪽 골안에 자리 잡은 중대다. 한참 찾으니 7중대장 방성필이 전화 받는다는 대답이 간신히 들린다.

《대위동지! 7중대장동지가 나왔는데 감도가 나빠 여기서도 겨우 들립니다. 선로 중간 어디가 눈에 묻힌 모양입니다.》

《그럼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오. 고지구 분대와 전원초소들에 배치된 신입병사들과 휴식 내려 갔던 군관들이 방금 고지밑에서 출발했음. 7중대와 삭도하차장에서 그들의 점심식사를 준비

할것. 그들이 도착하는 즉시 중대장은 고지밀으로 내려가 휴식하고 래일 올라 올것.》

세웅이 또박또박 중계하는 내용을 반복하자 방성필은 잠시 말이 없더니 호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웅동무! 대위동지에게 전하오. 난 아무래도 내려 갈것 같지 못한다구. 강습 간 중대군관들이 래일 온다는데 휴식이라니 말이나 되오.》

방성필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공필은 성을 벌컥 냈다.

《안되오. 무조건 내려 가라고 하오. 한달에 하루 휴식하는건데 집에서 기다리는것도 생각해야지.》

그 순간에 어떻게 감도가 좋아 진 모양이었다.

공필의 말을 다 들은 방성필이 《아, 공필동지, 내 방성필입니다.》 하더니 《아, 사정이야 지금 근무를 서는 공필동지도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한다. 그리고는 껄껄 웃는다.

《다음번에 함께 내려 가 우리 가족오락회나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우리 집 사람이나 영선이 얼마나 다 군관가족예술포조에 당당히 뽑힌 사람들이고 나도 손품금음계쫓은 짬을줄 아니 음치인 대위동지가 좀 웅색하긴 하겠지만. 하하하.》

방성필은 리공필과 이 설천봉에서 병사생활도 같이 시작하고 군관학교도 함께 나와 같은 시기에 중대장을 하던 각별한 사이다.

강습과 휴식으로 내려 간 중대군관들을 대신해 초소에 나가 있다 보니 결국 한달에 하루밖에 차례지지 않는 휴식마저 저처럼 단념해야 하는구나하고 생각하니 이 설천봉을 지켜 선 지휘관동지들의 수고가 새삼스레 세웅의 가슴노리를 지지며 몽클하게 전해 온다.

《사람두 참...》 공필은 더는 그 고집을 어쩔수 없는지 입맛만 다시고 만다.

## 폭 설

공필대위는 날씨가 급변하여 바람이 자면서 설천봉을 비롯한 동부산악지대에 많은 눈이 쏟아진다는 상급의 긴급통보를 받았다. 밖을 내다보니 벌써 바다쪽에서 뽀얀 회백색구름이 밀려들어 설천봉상공을 뒤덮고 있다. 왜무재령쪽에서도 검재빛 구름들이 기류를 타고 산밭을 훑으며 밀려내리는것이 보인다. 얼마후에 고지는 몇발자국 앞도 가늠하기 어렵게 짹 들어찬 구름속에 잠기고말았다. 이윽해서 그 하늘에선 쌀가루 같은 하르르한 싸락눈이 소록소록 휘뿌려 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차츰 발이 굵어 지며 수천수만의 손이 서둘러 뜯어 던지는 솜뭉치 같은 무덕무덕한 눈송이들이 천지간에 가득 차서 무너

지듯 평평 쏟아 지기 시작했다. 한시간도 못되어 엇그제 무더기로 내린 눈우에 덧쌓이기 시작한 눈은 병실과 정비장, 초소의 잠복호들을 눈속에 묻어버렸다.

공필대위는 심각해 졌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다. 설천봉에서 폭설은 일체 류동인원금지를 뜻한다. 공필대위는 부대장에게 제기된 정황을 즉시 보고하고 결론을 받았다.

공필은 전화기가 주련이 놓인 직일탁앞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뽀얀 눈발속에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눈은 하늘밑굽이 빠진듯 하염없이 쏟아 진다. 아무리 변덕이 심한 설천봉이라도 날씨가 이렇게 급변할줄은 정말 뜻밖이다. 아마 지금쯤 휴식 내려 갔던 군관들과 신입병사들은 고지길의 중간지점인 삿갓봉을 지나 언젠가 기완이라는 병사가 제동 풀린 후방차를 몸으로 막아 위기에서 구원했다 해서 《기완이 굽인돌이》라 부르는 두번째 물곶쫄에서 지금의 폭설을 맞기 시작했을것이다. 그들이 기르마재-삭도하차장까지 올라서자면 이제 한시간은 더 걸려야 한다. 멀리 2중대 초소들에서 물자운반으로 떠난 조들은 지금 삭도하차장거리의 3분의 2 지점에 닿았을것이다.

이제 그들을 돌려 세우기엔 늦었다. 그대신 한시바삐 그들모두를 삭도하차장에 무사히 당도케 하여 자그마한 사고도 생기게 해선 안된다.

리공필은 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삼마봉!》

《삼마봉 전화 받습니다.》

동세웅의 목소리다.

《오, 세웅동무요? 다시 교대했소?》

《예! 방금 교대했습니다.》

리공필은 7중대를 찾으라고 했다. 방성필이 인차 나왔다. 예상외로 감도도 좋다.

《성필동무! 무더기눈이 내린다는 상급의 통보요. 일체 류동인원을 금지하고 화목과 식량을 모두 병실과 식당안에 끌어 들이도록 하오. 그리고 모든 구분대는 실내에서 훈련준비를 다그칠것.

동무는 즉시 7중대에서 10명씩으로 두개 대를 편성하여 2중대방향과 삿갓봉경길로 마중 보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삭도하차장에 도착하면 철저히 인원을 점검하고 단 한명두 류동 못하도록 해야겠소. 지금 이 시각부터 동무는 하차장지구질서를 관리하는 총지휘관이요.》

《알았습니다. 헌데 차라리...》

방성필은 이곳은 성미가 또 살아 난것 같다.

《잠정적이지만 이 지구 위수사령관이라 명명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 소리는 못 들은듯 공필은 잘라 말한다.

《그리고 잊은게 있소. <삼마봉>중계초소 분대장이 한명의 대원을 데리고 2중대에서 6중대쪽

선을 검열하면서 아침에 떠났소. 그들이 6중대에 도착했다는가를 한시간간격으로 꼭 알아 보오.》

그 시각부터 공필은 앞에 놓인 전화통을 바꿨으며 순간도 멈춤없이 수신자를 불러 댔다. 《ㄴ》강기슭에 전개된 수십개의 전연초소, 그 뒤의 훈련구분대들, 창고와 정비장들을 찾아 폭설에 대처할 대책, 일체 류동인원금지와 통신이 두절돼도 행동해야 할 방향을 지휘부와 합의한대로 일일이 지시했다.

그 다음 잊은것이 없는가? 문득 생각나는게 있다. 전화동다리는 지난번 눈사태에 끊어 저 나간 후 다시 세운 림시다리이다. 그 다리가 끊어지면 2중대로 나가는 교통이 차단될수 있다. 공필은 또 수화기를 들었다.

《5중대요? 아, 중대장동무요? 마침이군. 삭도하차장으로 가는 2중대군인들이 통과했소? 방금 통과했다. 종소. 중대앞에 었그제 눈사태때 끊어진 후 림시 세운 나무다리가 있지? 그 다리가 지금 내리는 폭설에 다시 밀려 내릴수 있소. 그 웃쪽 산비탈에 눈이 쌓이는 족족 쳐내던지오. 다시 다리가 끊어지면 동무가 책임질줄 아오. 알겠소? 종소.》

그때 삭도하차장으로 통한 전화가 징 울었다. 송수화기를 드니 방성필이었다.

《공필동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고지밀에서 떠난 군관들과 신입병사들이 2중대친구들과 거의 같은 시각에 들어 오는군요. 거 참.》

《그렇소?》

공필은 기빠 소리 쳤다. 시계를 보니 12시 10분전이다.

《잘됐소.》

## 군관사택마을

참, 그때 문득 공필은 삭도로 올라 오는 후방물자와 훈련기재생각이 났다. 삭도상차장에 전화를 거니 지금 삭도가 만가동하여 2중대물자를 거의 올렸다고 한다.

《바람이 터지면 바가지가 뒤집힐수 있소. 그전에 3중대물자까지 올려 채야지. 그래 3중대 돼지는 다 잡았소?》

삭도분대장은 2중대 사관장과 자기 분대원들이 3중대 사관장을 도와 그 일을 끝냈다고 보고한다.

《거 잘했소. 그렇게 서로 돕는게 우리 설천봉의 <가풍> 인거요. 수고했소.》

《뭘, 수고랄게 없습니다. 저 그런데 대위동지...》

삭도분대장은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듯 《여기 말입니다. 방금...》 하고 전화기를 놓지 않는다.

옆의 누구와 무슨 말인가 주고 받더니 《방금 지원물자를 가지고 가족소대가 도착했는데 가족소대장아주머니가 전화를 바꾸겠답니다.》 한다.

《뭘, 가족소대장?!》

공필은 너무 뜻밖이어서 말끝을 못맺는다. 그는 그제야 새 년도훈련에 들어 가는 고지구분대들에 보내는 지원물자를 가지고 군관가족소대가, 더 정확히는 그 소대장인 안해가 고지밀의 삭도상차장에 와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수고해요. 영선이 아버지세요?》

선물적인 랑랑한 목소리... 웃을 때면 입모양이 무척 고운 안해의 얼굴이 눈이 한뼘이나 쌓인 눈앞의 창문유리에 방불히 그려 진다. 좀해서는 웃지 않는 공필의 무뚝뚝한 얼굴에도 느슨한 웃음이 비졌다.

《당신이요? 이거 참 안됐소. 한달만에 겨우 하루 말미가 생겼는데 근무를 서다 보니... 부대는 지금 바쁘오. 래일모레가 새 훈련시작이 아니요. 그래서 말이요.》

리공필은 그답지 않게 두서없이 덤빈다.

《호호호, 참 당신두 누가 뭐래요. 걱정 말아요. 우리 가족소대가 집집마다 돌아 기며 방성필아저씨네랑 군의아저씨네랑 김장도 다하고 겨울나이 준비도 다 끝냈으니 아무 넘려들 말고 모두 새 훈련지도나 잘해 달라고들 전해 주세요.》

안해는 그의 심정을 다 알고 있는것이다. 무어라 말할수 없는 뜨거운 감정의 격류가 물결처럼 가슴을 적시고 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년중 제일 바쁜 겨울나이준비기간에 한 가정에 남자손이 가야 할 일이 좀 많으며 남편과 만나 하고 싶은말, 나누고 싶은 정인들 그 얼마랴.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일을 혼자힘으로 해체끼며 병사들의 원호물자까지 마련하느라 수고 많은 안해...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는 사소한 마음속 그들을 줄세라 오히려 고무와 격려를 주는 안해였다. 미쁜정이 가슴밀굽에서 그들먹 차오른다.

... 사실 군사복무로 시간이 귀중한 군관들은 오랜 련모과정을 거쳐 련인들을 사귀는 일이 드물다. 언제 퇴근시간 맞추어 련인들을 기다렸다 버드나무 우거진 강변을 어깨 나란히 거닐어 보는적도 없으며 풀물이 들도록 호젓한 잔디밭에 구두코를 나란히 하고 구름 피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하도록 행복에 취해 미래를 꿈 꾸어 보는 일도 없다.

열흘 또는 보름동안의 휴가를 받고 고향에 가서 자기들처럼 진실하고 꾸밈이 없으며 건강하고 열정적인 처녀들을 만나 대대로 내려 오는 자질구레한 풍습을 제껴 놓고 간소한 하루의 잔치끝에 이 산촌의 호젓한 군관마을로 데려 오는 그네들이다. 그러고는 초소를 며칠 떠났던 일이 무슨 큰잘못이나 되는듯 얼굴이 별절게 상기되어 대

충 꾸린 사택에 사랑하는 사람을 떨겨놓고는 황황히 초소로 올라 간다.

군사분계선이 지척인 초소마을, 홀연 도시와 별방에서 떠나 기차를 타고 수백리, 빠스와 자동차를 타고 또 수백리, 그리고도 굵이굵이 산골길을 밟 아프게 걸어 수십리를 들어 와서야 찾아든 산골마을의 적막한 밤. 밤새 우는 소리에도 가슴이 화닥 뛰는 젊은 각시를 위해 마을의 군관안해들이 잤아 와 밤동무해 주건만 밤이 깊으면 여전히 무섭고 외롭고 정불지 않는 마을,

그러나 아낙네들끼리 소대, 중대, 전투단위를 못하고 억척같이 염소와 돼지를 키우고 군인들의 훈련보장에 뛰어 다니고 밤경비를 서며... 그런 속에서 차츰 조국이라는 크나큰 가정을 한가슴에 안고사는 호방하고 락천적이고 통이 큰 군관들의 드림없는 동지가 되고 전우가 되어 한생을 바쳐 함께 초소를 지켜 가는 그들, 군관의 안해들...

공필의 눈에는 고지를 내려가 자주 보군 하던 사택마을의 풍경이 영화화면처럼 얼핏 눈앞을 스쳐 간다.

...고지에서 남편이 내려 온다는 기별이 오면 그날은 온 집안이 명절날이다. 안해는 날자를 맞춰 한줌 놓아 키우던 콩나물시루를 내려 놓고 망을 차려 놓고 순두부를 앗는다. 시어머니가 보내온 평양간장의 달콤한 간속에 절임해 두었던 고기를 꺼내 기름에 볶고 집안밖청소를 말끔히 하고 아이들의 숙제며 옷차림까지 일일이 신척한다.

《영이 아버지 내려 온다며...》

저녁노을의 붉은 빛이 해불처럼 타는 아아한 고지우를 바라보며 문가에 기대 서 있는 녀인에게 무엇인가 담은 그릇을 안고 찾아 온 옆집 녀인도 함께 시선을 모두어 고지길을 살핀다. 그러다 샷갓봉밑으로 휘어 올라 간 고지길에 전투가 방울 멘 벌에 탄 정다운 모습이 나타나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 입술을 꼭 옥물며 부엌으로 뛰어 들어 간다.

고지우로 《장기출장》 갔던 아버지에게 한꺼번에 안기는 아이들의 환성, 부엌에선 벌써 무엇인가 짜르르 끓는 소리가 들린다. 부엌문으로 뭉게뭉게 밀려 나오는 뜰김,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방안에선 군복도 벗지 못한 아버지가 그 동안의 《빛》을 갇느라고 아이들을 목에 잔등에 곁으로 태우고 방안을 벌렁벌렁 기여 가는데 송골송골 내똥은 이마의 땀을 흠치며 기름 끓는 가마에 무엇인가 연신 뜰어 넣던 안해는 가마안의 것이 타는줄도 모르고 남편이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방안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다.

저 멀리 사시절 눈과 비, 바람과 별속에 변함없이 우람차게 머리를 쳐든 설천봉의 웅자처럼

안팎다른 변심과 교태를 모르는 순박하고 진실한 군관사택마을, 그 집집마다에서 쏟아 지는 불빛이 시내물에 아롱져 흐르고 그들의 웃음이 집뜨락에 번져 내려도 현란한 느낌이 없이 아득한 창공에 그윽히 빛나는 별빛들처럼 푸근한 정취만을 가슴가득 채워 주는것은 바로 우리 남편들과 설천봉을 함께 떠받들고 있는 군관안해들의 그 아름다운 정신미가 비껴서가 아니겠는가...

《참, 영선이가 벌써 말을 한다면...》

가슴 가득한 말을 어떻게 고를지 모르던 공필대위가 이렇게 외우자 안해는 저옥 놀란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웅이가 들렸댔다더군...》

《아이참, 그 동무... 벌써 다 말했군요.》

안해는 사뭇 아쉬운 어조다.

《내려 오면 당신을 뜻밖에 기쁘게 해주려뻔했는데...》

《하하하, 난 지금 너무 넘칠만큼 행복하오.》

그때 문득 그들의 대화에 끼여 드는 목소리가 있다.

《대위동지! 저도 인사 좀 하겠습니다.》

《누구? 오, 세웅이, 하하. 그래 그러라구.》

안해를 친누나처럼 따르는 세웅이 끝내 참을수 없었던 모양이다.

《명선이 어머니! 접니다. 세웅입니다.》

《아이, 세웅동무! 건강해요? 여기 세웅동무가 좋아 하는 갓김치랑 취떡이랑 따로 올려 보내니 분대동무들과 함께 나눠요.》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웅이 인사하고 물러 나자 안해는 다시 남편을 찾는다.

《그리고 영선이 아버지! 방성필아저씨에게 옥이 엄마가 보내는것도 여기 함께 올라 가니 꼭 전해 주세요.》

《알았소. 여보, 고맙소.》

공필은 전화가 끝난 뒤에도 안해를 만난 흥분에서 쉬 벗어 날수 없었다.

휴식을 내려 갔다 한들 이처럼 힘찬 안해의 고무와 격려를 받겠는가. 그래 새 년도훈련을 본때 있게 다그쳐 부대가 《오중흠7련대칭호》를 쟁취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자. 영선아! 그때면 너도 걸음마를 땔테니 우리 모두 큰 걸음으로 만나자꾸나.

## 긴급정황

그때 직일탁우에 놓인 전연방향의 비상전화가 징- 하고 길게 울렸다.

공필은 긴장해 지며 제격 송수화기를 들었다.

《2중대장이 전화합니다. 대위동지! 방금 가덕

끝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한 동무가 급병으로 후송돼 초소로 들어 왔습니다. 군의동무가 나가봤는데 급성…충수염이랍니다.》

《뭐라구?》

리공필은 등골을 훑어 내리는 전율을 느꼈다.

《정확히 진단한거요?》

《예! 이 하영준동무가 처음에 동통이 오는것을 가볍게 여기고 몇시간을 입 악물고 참다 보니 상태가 더 나빠 졌습니다. 현재로선 상당히 급한 상태입니다. 군의동무는 4시간을 넘기기 힘들것 같답니다.》

리공필은 눈앞이 아찔해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순간에 그의 뇌리속에선 가덕골초소에서 군의소까지의 거리가 줄달음친다. 50리길이다. 눈이 허리까지 치는데다 시시각각 쏟아 지는 폭설이 덧쌓이는 지금 그 길로 4시간안에 후송해야 하는 것이다. 리공필은 머리를 저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눈앞에는 10년전 자기가 부소대장때 겪었던 일이 편득 떠오른다. 설을 갓 넘긴 어느날 지금 같이 강설이 내려 초소지붕까지 눈속에 묻혔던 때 형제바위초소에서 급성충수염 환자가 발생했었다. 그때까지는 충수염수술은 설천봉군의소에서 할수 없는 상태였다. 부대에서는 설천봉에서 제일 가까운 《ㄱ》항에 자리 잡은 해군기지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했다. 그래서 해군기지와 연계를 취하여 《ㄴ》강하구까지 어뢰정을 동원하기로 했다. 상급의 승인을 받고 룽해군이 동원된 어마어마한 비상전투가 벌어 졌다. 설천봉과 해군기지 그리고 주변 인민들까지 온통 떨쳐 나 형제바위초소에서 고지밀에 이르는 60리 구간과 고지밀에서 어뢰정이 닿을수 있는 해안포 중대까지 수십리구간의 눈을 치면서 치열한 전투를 벌려 끝내 병사의 생명을 구원했던것이다. 지금은 설천봉군의소에 외과수술장비와 의료집단이 빈틈없이 갖추어 저 있다. 그러니 노루목여귀의 군의소까지만 후송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정황은 그때보다 더 긴박하다. 그때 그 병사는 시간적여유가 있었지만 가덕골의 이 하영준병사는 복막직전상태인것이다.

리공필은 이 정황을 자기 혼자 결심으로 처리할수 없음을 느끼고 구부대장에게 곧바로 보고했다. 구부대장은 직접 사태를 알아 본듯 잠시후 다시 전화를 걸어 왔다.

《공필동무! 환자상태가 위험하오. 그래서 관하 중대들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오. 2중대와 직속 구분대 전체가 총 동원되어 가덕골로부터 군의소까지 담가 한개가 통과할 너비로 길을 열것. 3중대, 5중대, 7중대는 하차장에서부터 군의소까지 눈을 쳐나갈것. 군의소에서는 지체없이 수술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도록 할것.》

《알았습니다. 저, 그런데… 지금 내리는 이 눈

속에서 일없겠습니까? 얼마후에 바람까지 터진다면… 예측 못할 사고가…》

《때문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것을 특별히 강조하시오. 공필동무! 지금 삭도하차장에 머물고 있는 지휘관들과 2중대병사들은 한결같이 배일모레가 첫 훈련날인데 그곳에 더 머물수 없다면 눈을 치면서라도 자기 초소까지 나가겠다는 거요. 신입병사들이 더하다고 하오. 장군님의 훈련명령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그들의 가슴에 끓는 앙양된 열의가 얼마나 훌륭하오. 그래서 그들도 삭도하차장쪽에서 맞받아 눈을 치면서 초소로 나가도록 하자는거요. 그러면 눈치는 시간도 훨씬 단축할수 있겠소.》

공필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알았습니다. 구분대를 동원하여 환자의 후송을 보장하고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자기 위치에서 새 훈련에 진입할수 있게 조직하겠습니다.》

《중소. 믿겠소.》

온 설천봉이 쏟아 지는 폭설을 털어 던지며 일떠섰다. 2중대가 련화동다리까지의 구간을 맡고 눈을 칠수 있는 기재와 장비를 가지고 일제히 펼쳐 나섰고 직속구분대 전체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삭도하차장쪽의 도로로 진출했다. 하차장의 훈련기재와 후방물자들을 휴대한 2중대병사들과 휴식내려 갔던 군관들 그리고 신입병사들이 그들을 마주 향해 눈을 쳐나왔다. 한편 3중대와 5중대, 7중대는 군의소방향의 도로에 달라 붙었다.

공필은 그다음 련대군의소를 찾았다.

《삼마봉!》

《삼마봉 들읍니다.》

《세웅동무, 군의소를 찾소.》

《대위동지! 군의소는 단선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분대장동지랑…》

《아차, 그렇지!》

리공필은 입술을 꼭 깨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던가.

《세웅동무! 그대 분대장동무에게선 다른 소식이 없소?》

《없읍니다.》

《찾소. 어떻게든. 군의소를 찾지 못해서 수술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병사의 생명은 담보하기 어렵소. 세웅동무! 알겠소?》

그러던 공필은 자기가 막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것을 문득 느꼈다. 어쩌면 좋은가. 7중대에서 련락병을 띄울것인가. 했으나 이내 머리를 저었다. 하차장옆의 7중대에서부터 군의소까지는 20리길이다. 허리치는 눈길을 헤치며 가느라면 군의소에 당기전에 눈을 친 길을 오는 환자가 그를 따라잡게 될것이다. 그렇다면… 공필은 안절부절 못하여 방안을 왔다갔다 했다.

같은 시각 통신초소의 근무실도 바다속 같은 무거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부분대장동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라도 분대장네 조가 군의소에까지 닿지 않았겠는가 하는 기대에 군의소를 계속 찾던 세웅이 절망에 잠긴 눈길로 부분대장을 바라보았다. 진호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더니 틀어 쥔 주먹으로 허공을 뺨 가른다.

《에익, 방도가 없단 말인가?》

그때 벽에 붙인 방향선선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세웅이 《부분대장동지!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눈을 빛내며 진호를 바라본다.

《어떻게?》

《여기 지금 분대장동지가 2중대를 출발해 따라가고 있는 군의소선과 병행하여 8중대선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두 선이 제일 가까운 이 돌바위굽이가 2키로미터밖에 안되니 그사이를 가로질러 선을 늘이면...》

진호의 눈망울이 불을 뿜듯 번쩍였다.

《됐소. 그거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동문 정말...》 진호는 세웅의 어깨를 와락 붙잡고 두드렸다.

그들의 보고를 받은 공필은 흥분하여 소리쳤다.

《웁소. 그게 명안이요. 진호동무! 그래 누구와 나가겠소? 세웅동무와? 좋소. 그럼 지금 곧 떠나시오.》

...정오를 넘어서자 마침내 우려하던 바람이 터졌다. 산발을 뒤흔들며 아우성치며 달려 든 눈보라는 자연의 광란에 도전하는 설천봉병사들의 기상에 악이 받친듯 갈퀴처럼 치켜 든 영악스런 손으로 그들의 군복을 쥐어 뜯고 잔등을 후려 같기고 눈사태를 덮쳐왔다. 하지만 그 무엇도 동지를 구원하기 위해 펼쳐 나선 그들의 불굴의 기백을 굽힐수는 없었다.

삭도하차장에서 돌바위굽이까지의 가장 경사가 급한 도로구간엔 3중대와 5중대가 붙었다.

《여! 3중대친구들! 그 굽은 팔뚝들을 뒤흔다 만 두 해먹으려나. 그걸 쓰고 그 대톱 좀 빌리자구.》

삽으로 눈을 연방 퍼던지던 5중대의 격술명수인 송덕팔하사가 성차지 않는듯 3중대에 달려 와 숨장갑을 흔들며 사정한다. 능글거리는 그의 표정을 건네 본 3중대 리정찬하사가 《덕팔동무! 그럼 저기 가자구.》 하며 어디론가 데려 간다.

《사관장동지! 5중대 덕팔이 이 친구 양배추값 받으러 왔답니다.》

《뭐? 아니 동무 정말이요?》

영문 모르는 사관장이 허리를 일으키며 어이 없어 눈을 부릅뜬다. 멧 모르고 실롱실롱 따라갔던 송덕팔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

《아, 아닙니다. 아, 톱 좀 빌리자는건데 이 친구 완전히 생사람을... 아, 됐습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황급히 도망친다.

《덕팔이! 대톱은 저기 하차장 신대원들에게 다 넘겼다네. 거기 가보게나.》

《와, 하하하.》

세찬 눈보라소리를 짓누르며 웃음소리가 산악을 메아리친다. 삭도하차장쪽에서는 눈 칠 기재가 없는 군관들과 사관들, 신입병사들이 3중대에서 가져 온 벌목용맷잡이톱들을 일제히 넘겨 받았다. 방성필중대장이 휘몰아 치는 눈보라를 피해 서서 신입병사들에게 대톱으로 눈 치는 법을 배워준다.

《자, 동무들! 여기 설천봉눈은 바람이 너무 세차 내리면서 다져 지기때문에 삽으로는 흠처럼 한삽씩 파낼수밖에 없소.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눈치기방법이 이 대톱을 리용하는것인데, 예-방법은...》 하면서 방성필은 둥그렇게 흰 긴 맷잡이톱의 두 손잡이를 끈으로 묶는다. 그리고는 두 손잡이를 틀어 잡고 예리한 톱날 뒤면을 눈담벽에 힘껏 내리 박는다. 바닥까지 박힌 톱을 절반쯤 올려 끄웁 끄당겨 안는다. 흰 대리석기둥 같은 길다란 눈기둥이 우쭐 들러 가슴에 안긴다. 그것을 힘 소리치며 길옆 낭떠러지로 내던진다. 한번, 두번 숨돌릴새 없이 연방 찍어 번쩍 들어 내던지고 또 내던지고...

골짜기로는 눈기둥이 부서져 떨어 지며 뽀얀 눈구름이 일어 난다. 잠간사이에 그의 뒤로는 몇 십메터의 전호같이 긴 통로가 개설된다.

《와!》

환성이 터진다. 너무도 사납고 험악한 설천봉의 산들과 바람과 폭설에 어지간히 기가 죽고 퍼렇게 얼어 들었던 젊은 병사들이 저마다 해보겠다고 눈을 뒤집어 쓰며 달려 든다.

방성필이 그런 전사들을 둘러 보며 소리친다.

《동무들! 수리개가 날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는가.》

《비바람, 눈보라속에서!》

신입병사들이 합창한다.

《범두 새끼를 낳으면 벼랑에 굴러 보고 산놈만 품에 안는다는걸 아는가.》

《압니다. 설천봉골짜기에 굴러 떨어 질 시라소닌 여기 없습니다.》

《와하하.》

익살과 웃음, 랑만의 메아리는 광란하는 눈보라를 뚫고 하늘가로 메아리친다.

그때 삭도하차장의 공영택하사가 흰 보자기로 찢 밧국통을 들고 달려 온다.

《7중대장동지! 사택에서 아주머니랑 가족소대가 보내는 원호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래?!》

서둘러 마중 간 방성필이 보자기를 풀어 본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구마가 한가득 담겨 있다.

《역시 우리 집 사람이 필요한 때를 알거든.》

방성필은 만족하여 웃으며 《영택동무! 신입병사들에게 빨리 가져다 주오.》 하고 재촉한다.

그런 속에서 가덕골을 떠난 하영준병사의 담가는 키 넘는 눈을 처낸 눈전호속을 걸어 려화동방향으로 올라 갔다. 길 양옆의 눈담벽에는 눈을 치던 병사들이 솟으로 쓴 속보가 이어 졌다.

《장하다! 초소를 지켜 4시간을 견지한 하영준동무!》

《영준동무! 힘을 내라 동지들이 곁에 있다.》

하영준병사는 담가우에서 배아픔과 추위에 허리를 펴지 못한다. 이런 지독한 추위에도 그의 이마에는 아픔을 참느라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눈을 치던 2중대 한 병사가 옆을 지나가는 그의 마음을 녹ιά혀 주느라고 싱글벙글 웃으며 소리친다.

《영준동무! 내 방금 공군부대에 전화를 걸었구만. 직승기라도 띄워 달라고 말이요. 근데 말이요.

공군부대장동지 말씀이 설천봉은 어뢰정하구만 논다구 싫다누만.》

오래전에 있던 설천봉의 일화를 떠올리는 익살에 웃음이 터진다. 하지만 너무 심각한 군의의 얼굴을 보고는 곧 심중해 진다. 군의는 담가옆에 따라 가며 아무 소리도 못 들은듯 모포를 환자의 머리까지 폭 씌워 준다. 지금 병사의 병상태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그만이 조이는 가슴으로 가늠하고 있는것이다.

## 런결점

권선기 두개씩을 메고 왜무재령에서 흘러 내린 산릉선을 타고 내린 두 병사는 8중대 방향선과 6중대와 군의소를 런결한 선로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멈춰 섰다.

《세웅이! 8중대방향을 내가 맡을테니 동문 6중대선방향을 따라 나가라구.》

진호는 세웅의 얼어 든 불을 숨장갑 낀 손으로 비벼 주며 《자, 시간 없어. 출발!》 하고 떠밀었다.

세웅은 험한 벼랑을 두개나 넘어야 하는 8중대 쪽을 스스로 맡고 떠난 진호의 모습이 눈보라속으로 사라지는것을 일별하며 서둘러 강쪽으로 돌아 섰다. 잔등을 내치다가는 얼굴을 후려 치는 눈보라, 수백개의 바늘이 한꺼번에 누벼 대는듯 따끔거리는 눈알갱이에 눈을 뜰수 없다. 드러난 살갗은 금시 찢겨 나가는듯 쓰리고 알알하다. 골짜기에 내려서며 세웅은 자기가 받은 임무가 얼마나 힘든가를 새삼스레 깨닫고 숨이 찼다.

골짜기에 쌓인 눈은 이미 바람에 다져 진 눈이어서 발을 내딛을 때까지는 꺼지지 않고 몸의 체중을 받아 주었다. 그러나 일단 딛고 올라 서려는 순간이면 퍼석 꺼져 내리며 허리까지 빠져 들고 또 한걸음 내짚으며 올라 서려 하면 또 폭 빠져들고... 그야말로 매 걸음마다 다리의 힘이 폭 폭 빠져 나간다. 작은 산마루 하나를 넘어 선 세웅은 단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안되겠어. 설피를 신어야지.)

그는 후려 치는 눈보라를 피해 바위밑으로 내려섰다. 그 자리에 앉아 허리에 차고 온 설피를 신고 다시 일어 섰다. 그러나 무거운 권선기를 메다보니 그냥 눈속에 빠져 든다.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세웅은 덧맨 권선기를 내려 누우로 끝었다. 그제야 설피가 빠져 들지 않는다. 세개의 산경사지를 넘으며 한개의 권선기는 다 풀려 나가고 새 권선기를 이었다. 강쪽으로 눈보라를 맞받아 계속 전진했다.

그런데 암회색 코숭이가 삐죽 내밀린 룡선을 넘어 내려 서는 찰나에 세웅은 아 하는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허공 내리 굴었다. 눈을 떠보니 깊이를 알수 없는 눈구덩이속이었다. 벼랑에 부딪치며 상했는지 온몸이 쭈시고 저리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어서 나가자. 세웅은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에 아 소리를 지르며 다시 쓰러졌다. 오른쪽 발목이 끊어 지는듯 아파다. 더듬더듬 손으로 만져 보니 발목이 접질리고 피까지 나는것 같다. 시간이... 시간이 없다. 다급해 난 세웅은 바위를 의지하고 몸을 일으키며 눈더미를 와락와락 헤쳤다. 온몸을 폭 덮은 눈더미속을 간신히 뚫고 나온 그는 그만 맥이 진해 쓰러졌다.

그때 옆구리에 멘 전화기가 드르륵 울린다. 세웅은 간신히 장갑을 벗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세웅동무! 어느 지점이야?》

진호부분대장이다.

《골골 골짜기를 빠져했습니다. 부분대장동지!》

《다른 정황은 없겠지.》

하마트면 발을 상했다는 말을 할뻔 했다. 세웅은 믿음에 찬 진호의 눈길을 앞에 보는데 싶어 침을 꿀꺽 삼켰다.

《부분대장동지! 걱정마십시오, 끝까지 가내겠습니다.》

세웅은 이제 가야 할 거리를 따져 보았다.

400미터, 저 아래 《L》강 기슭을 따라 간 전선주의 애자가 눈보라속으로 가물거리며 안겨 온다. 그 거리가 지평선 한끝처럼 막막하게 가슴을 메운다. 세차게 머리를 저었다. 온 설천봉이 일떠나 한 병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벌리는 이 전투의 운명이 결국은 나에게 달려 있다. 이만한 상처가 뭐라고...세웅은 피 터지게 입술을 깨문다.

…부대직일관 리공필대위는 긴 숨을 내쉬었다. 하영준병사가 련화동다리를 넘어 섰다. 2시간 동안에 겨우 15리를 돌파했다. 하지만 그들이 눈을 치면서 나지는 길만큼 움직였던 까닭에 더 전진하지 못했던것이다. 이제는 그앞의 도로들에 전 부대가 동원되어 길을 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덕골초소에서 설천봉으로 되돌아 오는 경사급한 길이었다면 고지 련마루에 올라 선만큼 거의 평지길이나 다름 없는 길을 따라 가면 된다.

직일관실 시계가 오후 2시 30분을 알렸을 때 훈련기재와 지원물자들을 휴대한 2중대 병사들과 초소로 가는 신입병사들이 개설된 도로를 거쳐 련화동다리를 넘어 섰다. 삭도하차장까지 도로개설을 끝낸 직속구분대들은 계속 내리는 눈을 처리할 일부 인원을 남겨 놓고 일제히 3중대와 5중대, 7중대가 맡은 군의소까지의 마지막방향에 달라붙었다.

하늘이 메이게 쏟아 지는 폭설, 눈을 뜰수 없는 강풍속에서 부대는 한 병사의 생명을 구원하고 새년도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군의소가 만단의 수술준비를 갖추고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수술에 착수하는것이다. 적어도 1시간전에는 수술준비를 지시해야 한다. 그러자면 통신이 지체없이 회복되어야 하는것이 다.

그때 6중대에서 전화가 왔다. 김형철분대장이 그때야야 6중대에 도착했던것이다. 그들이 행여 어느 순간에 군의소까지 가는 선을 회복했다는 전화가 올수 있으리라 믿었던 기대도 사라졌다. 믿을것은 진호와 세웅이밖에 없다. 공필은 조바심치는 가슴을 가가스로 진정하며 전화기옆을 떠나지 못했다.

…세웅은 천근으로 무거운 한발한발을 간신히 옮겨 놓고 있었다. 이제는 눈속에서 발을 뺄을 힘이 없어 손으로 다리를 들어 옮기고 다음다리를 또 들어 옮기고 그러며 권선기를 끌고 한치한치 전진한다. 일어 들고 힘이 빠질대로 빠질 몸은 그대로 눈속에 찾아 들고 눈앞까지 몽롱하다.

아, 더는 못 가겠어. 그만 눈속에 얼굴을 박고 쓰러진 세웅은 단숨을 헉, 헉 내뿔었다. 감겨진 망막우로 누군가가 마주 온다. 《세웅동무! 일어나라구!어서…》 시꺼먼 눈섭밑에 부리부리한 저 눈빛.

아, 분대장동지! 어제밤 오락회때 한팔로 세웅을 옆에 끼고 다른 팔로는 허공을 휘저으며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하고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던 진호부분대장의 얼굴도 마주온다.

《세웅이! 동문 아직 다 모르는것 같아. 천금 주고도 살수 없는게 동지라고 하신 장군님말씀의

뜻을…》

세웅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압니다, 부분대장동지! 전군이 하나의 동지가 되는 그 혈맥을 저는 잇는겁니다.》

팔을 번디디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세웅은 얼굴에 달라 붙은 진눈덩이를 손으로 훑치고 나서 큰 숨을 후- 내쉬었다.

기어이 가내야 한다. 기어이…

몇걸음 가가스로 내짚었으나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이제는 다리를 들어 올릴 맥조차 없다. 불로 지지는듯 한 발목의 동통은 더욱 심해만간다.

부연한 공간을 확 채우고 이리저리 내달으며 몸부림치듯 울부짖는 눈보라, 희뿌연 눈보라의 장막사이로 저아래 골안을 따라 지나간 전선줄이 꿈속에서처럼 아슬푸레하니 내려다 보인다. 어느 때 같으면 한달음에 달려 갈수 있는 그 거리가 마치 천리 먼 길처럼 느껴 진다.

어린 시절 썰매를 타고 내리막길을 신나게 지치던 생각이 난다. 장난에 정신 팔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눈범벅이 되어 썰매에만 매달려 있던 그 시절, 그때문에 어머니한테서랑 지청구도 많이 들었지. 그때처럼 썰매 같은게 있었으면, 그러면 저기까지 단숨에 내리지칠수 있겠는데…

문득 한가지 생각이 뇌리를 친다. 그렇지.

주변을 둘러 보던 세웅은 가까이에서 서 있는 소나무로 가가스로 기어 갔다. 허리까지 눈속에 묻혀 세찬 눈바람에 시달리며 몸부림치는 소나무.

كم직한 가지 하나를 골라 잡아 당겼다. 휘칠할 뿐.

푸르른 솔가지를 두팔로 그러안다싶이 하고 한 발을 줄기에 대고 번디디며 마지막힘을 짜내어 당겼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지가 허영게 언 속살을 드러내며 부러져 나가는것과 함께 세웅이도 저쯤 나동그라졌다. 당장 끊어 저 나가는듯 한 발목의 아픔…

세웅은 아픔을 털어 버리려는듯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어 났다. 솔가지를 당겨 놓고 권선기를 그우에 단단히 비끼라 댔다. 다음 두툼한 솔잎우에 올라 앉았다. 가지를 두손으로 거머쥐고 눈보라속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전주대를 똑바로 노려 보았다. 큰숨을 후- 길게 내뿔었다가 다시 크게 들이 쐈 다음 숨을 딱 멈추고 힘껏 내뿔었다.

솔가지는 썰매처럼 다져진 눈우를 내리지치기 시작했다. 속도가 점점 빨라 진다. 맞받아 불어오며 얼굴을 때리는 눈보라때문에 눈을 뜰수가 없다. 휘- 휘- 마치 휘파람소리처럼 울리며 귀전을 스치는 눈보라소리, 솔가지밑에서 뽕얇게 일어나 날리는 눈가루, 점점 커지며 다가오는 전주대…

솔가지는 자그마한 둔덕을 허공 날아 더욱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다. 전주대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든다. 세웅은 이를 악물고 틀어 쥔 가지의 방향을 힘껏 꺾었다.

하늘땅이 빙그르 돌아 가는듯 한 느낌... 세웅이는 휘뿌려 저 저쪽에 나떨어 졌다.

눈을 뜨니 아, 흘러 간 통신선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세웅은 필사의 힘을 다해 전주를 향해 돌진하듯 나아갔다. 거의 눈에 묻히고 옷부분만 겨우 드러난 전주, 드디어 애자를 오지게 틀어 쥔 선이 손에 잡혔다. 말할수 없는 감개가 순간 가슴을 찌르르 적시고 든다. 세웅은 급히 선을 연결하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삼마...》하고 초소를 찾으니 입이 얼어 붙어 턱이 눌러 지지 않는다. 장갑을 벗고 얼굴을 한참 비빈 다음 다시 발전자돌리개를 돌렸다.

《삼마봉 듣습니다.》

드디어 또랑한 철호의 목소리, 《세웅동무야? 도착했어?》 환성을 올리는 진호부분대장의 목소리가 막 겹치며 웅웅 귀전을 울려 댈다.

《예! 빨리 직입관동지를 연결하십시오.》

세웅은 온 설천봉병사들이 하영준병사의 심장에 이어 주는 뜨거운 피줄의 맥동을, 그 벅찬 숨결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 않았다.

하영준병사의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다. 수술장에서 입원실로 옮겨 온 병사에게 외과군의를 진심으로 말했다.

《동문 온 부대 병사들의 그 뜨거운 동지애의 손과 손에 받들려 여기까지 온셈이요. 더우기 통신중계초소 그 동무가 아니었다면... 그런 동지애로 뭉쳤으니 우리 설천봉이 끄떡 없는거지.》...

종일 퍼붓던 폭설과 강풍은 저녁무렵에야 잠잠해 졌다.

방성필중대장이 보낸 병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진호와 세웅은 저녁의 진한 피빛설광이 왜무재령 밑으로 잠겨들 무렵에야 삭도하차장으로 돌아왔다.

전화로 세웅을 찾은 리공필은 《그래, 난 세웅일 믿었소, 믿었거든.》하고 가슴속에 가득한 말을

한마디에 담고는 더 말을 못했다.

그날 저녁까지 휴식과 훈련강습으로 고지밀에 내려 갔던 지휘관들과 새로 배치된 신입병사들이 모두 전연초소와 자기 구분대에 도착했다. 훈련기재들과 후방물자들도 전부 운반되었다.

리공필은 전 구분대가 새 년도훈련에 들어 갈 만단의 준비를 끝냈음을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직입관을 인계했다...

그날 저녁 통신중계초소의 작은 병실에는 하루의 임무를 끝낸 본대 전원이 모였다. 진호에게서 모든 사연을 보고 받은 김형철본대장은 그답지 않게 동세웅을 짊 끌어 안고 놓지 않았다. 《세웅동무! 정말 장해!》하고 한참이나 잔등을 두드려 주며 그는 눈을 습벅였다. 세웅은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몇달전의 일처럼 아득하게 생각되었다.

잊지 못할 하루. 이 하루사이에 키도 마음도 흠뻑 자란것 같은 뿌듯한 감회를 누를수 없다.

큰 목욕가마에 출렁출렁 넘어 나는 뜨거운 물로 훈훈히 목욕을 한 본대는 철호가 하얀 백포를 퍼놓은 깨끗한 병실에 들어 서며 거기서 풍기는 따뜻하고 온화한 방안의 느낌에 환성을 올렸다.

《아, 나의 집, 나의 초소여. 내 너를 떠나 살수 없거니.》 진호부분대장이 익살맞게 시랑송조로 웨치자 와, 웃음이 터졌다. 이 작은 병실은 말 그대로 온 하루 폭설과 강풍에 지질대로 지친 그들을 포근히 안아 맞아 주는 그들의 요람인것이다.

그밤 세웅은 김형철본대장과 박진호부분대장사이에 누워 고향의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설천봉의 평범한 하루였다.

사시절 눈과 비, 구름바다속에 잠겨 있는 설천봉의 웅자는 멀리서 보면 망망대해를 헤쳐 가는 거대한 군함같이 보인다. 그 군함의 사령탑 같은 설천봉주봉에 밤이면 아득한 하늘가에 신비로운 동화의 세계를 속삭이는 별빛처럼 깜빡이는 작은 불빛 하나가 오늘도 그 또렷한 광채로 자기의 위치를 온 조국땅에 알리고 있다.

## 상식

# 5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될 나노메터기술

nm(나노메터)기술이 5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첫 단계에서는 nm구조물질에서 원자수량을 정확히 조정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것은 계산기설계 및 제작기술, 초정밀전자장비를 요구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nm구조물질을 생산하게 될것이다. nm구조물질과 nm복합재료의 제작이 실용화 수준에 도달할것이다.

셋째 단계에서는 복합nm구조물질의 대량제작이

가능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계산기설계, 제작계통, 계산기모의기술, 조립기술을 요구한다.

넷째 단계에서는 nm산기가 제작될것이다.

다섯째 단계에서는 과학자들이 동력원장치, 부분품을 제작하게 될것이다.

비록 nm기술이 매 단계에서 도달할 시간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주체99(2010)년전에 nm기술은 다섯째 단계까지 발전할수 있다고 한다.